금주의 법구-〈법구경〉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깨어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9월 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16호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마음챙김 수행으로 사회 문제 극복하자"

28차 WFB 서울총회서 세계불교도 한목소리

전세계 불자들의 축제인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28차 서울총회'에 참석한 세계 불교지도자들이 세계 및 한반도 평화와 세계인의 번영 등을 한목소리로 발원했다.

태국 스리랑카 등 전 세계 20여개국 불교지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현재 갈등과 전쟁 등으로 위기에 빠진 세계인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그 벽을 뛰어넘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키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라는 주제로 9월 27일 WFB 제28차 서울총회 개회식이 서울AW 컨벤션 센터서 성대히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는 환영사를 통해 "서울총회 주제는 전 인류가 더불어 사는 지구촌 공생을 위한 준엄한 과제이자 불자들의 방향이 돼야 할 명제"라며 "서울총회와 관련된 각종 회의가 원만히 이뤄져 불교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판 와나메티 본부회장도 대회사를 통해 "이번 총회 주제인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는 세계화가 모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새로운 문화의 흐름이 급격한 변화를 선도하는 이 시대에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 생각한다. 불교 교리가 세계화의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인류 평화와 행복을 이루게 할지 논의하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북핵 문제로 갈등이 고조된 남북 문제를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도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번 총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구촌 곳곳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행복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종파를 초월해 함께 하신 세계 불교지도자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지구촌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에 이어 WFB 본부측에서 불교발전과 종교 화합에 기여해달라는 의미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대만중국불교협회장 원종 스님 등을 종교특별고문으로 추대했다. 개막식에 앞서 당일 오전에 열린 WFB 대표자회의에서는 집행위원회(EXCO) 신임 이사로 진각종 교무국장 수각 정사(前 WFB 재무분과위원장) 등 8명과 부회장 14명을 선출했다. 이어 열린 WFB 전체회의에서는 본부회장에 판 와나메티 총재를 재추대하고, 오계수지 상임위원장에 진각종 총무부장 덕정 정사를 선출하는 등 11개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선출했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 7개 국가가 회원으로 새롭게 등록해 눈길을 끌었다.



9월 27일 WFB 28차 서울총회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사진 왼쪽)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6개 아젠다 담긴 선언 발표
세계 · 한반도 평화, 안정 위한
불교도들 실천 방안 논의해
차기는 2018년 日 나리타서

9월 29일 서울 하월곡동 진각종 총인원 진각문화전승원서 국내외 불교 인사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폐막식에서는 이번 대회 포럼 내용을 집약한 아젠다가 담긴 서울총회 공동 선언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총 6가지 의제가 담긴 선언문은 △마음챙김 수행에 집중하며, 세계시민으로서 평화 · 조화 · 관용 같은 가치를 지킬 것 △모든 이들의 심신 건강, 개인적 성장, 가족과 사회망의 좋은 관계를 지지 △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WFB 지부와 협력체를 격려하며, 이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WFB 창립 정신을 실천 △세계적인 위험 속에서 불교 수행을 통해 본래면목을 자각할 것 △WFB가 '지혜와 자비의 단일체'임을 신념으로 삼을 것 등이다. 이와함께 대중들은 29회 WFB 총회를 2018년 9월, 일본 나리타서 열 것을 결의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교리문제 '척척' 푸는 사관생도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실시하는 제8회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사관생도부문 시험이 9월 28일 5개 사관학교서 동시에 열렸다. 올해로 4회째인 사관생도 시험에는 총 900여 명의 생도가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사진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화랑호국사서 진행된 시험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 글 · 사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첫 '의전' 연구서 나왔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불교의전편람 연구' 펴내
현행 불교의전 기준점 '전무'
행사 분석 · 가톨릭과 비교
종단 의전전문팀 구성 제시
"의전 교육 구축" 과제 꼽아



법회 외 불교행사 시 적용되는 '불교의전'의 시행을 다룬 연구서가 조계종 사상 처음으로 편찬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9월 1일 '불교의전편람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집 〈사진〉을 펴냈다.

불교의전은 법회가 아닌 행사에서 진행되는 규범으로 중국 〈칙수백장청규〉(1335년)와 우리나라 〈석문의범〉(1935년)에 의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불교계 행사가 현대화되며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연구에서 불교사회연구소는 조계종 각종 행사 시행 실태를 분석해 의전 기준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봉축법요식, 종조다례재, 종정추대식, 방장승좌식, 국제행사, 주지진산식 등 사찰행사, 상량식 및 낙성법회, 호국의승행사 및 수륙재, 기우제, 백고좌법회, 다비식 등 행사서 기존의 의전방식을 소개하고, 역사에 근거한 표준절차를 제시했다. 각 행사마다 표를 통해 역사기록과 시행범위, 표준화된 절차 등이 보기쉽게 정리됐다.

이와 함께 연구서는 현행 불교의전 시스템의 개선점도 밝혔다.

연구서에 따르면 현재 조계종은 통일된 편람, 실행매뉴얼이 정비돼 있지 않을뿐더러 그 시행주체도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는 상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여기에 더해 각 사찰에서는 실행도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행사의 경우 과다한 내빈 인사 등으로 불교색 마저 없어진 경우가 있다. 중앙종무기관부터 의전전문팀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서에서는 이웃종교의 의전시스템과 조계종 의전시스템의 비교도 진행됐다.

가톨릭의 경우에는 의전사제단이 구성돼 보다 장엄한 전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의전팀에 대한 구성조건과 보수, 복식 등을 명확히 지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장기적으로는 불교의전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전통인사 등 일상생활 의전교육, 다례 · 공양, 주요불교행사 설행 등 기본의전교육, 국제불교영어 등 전문분야 의전교육 등 다양하다. 현재는 이뤄지지 않는 이런 의전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의전관리능력을 상향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와 불교의 접점인 불교의례 행사를 장엄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주어사 바른 역사 계승 '종교 화합 거점'으로

아리담문화원, 11월 화합 마당
9월 30일 심포지엄 열고 논의

불교와 천주교 간 갈등이 촉발됐던 주어사서 종교 화합 한마당이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수원 아리담문화원(원장 송탁)은 11월 5일 오후 2시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하품2리 마을회관서 '주어사의 올바른 역사 계승을 위한 화합 한마당'을 개최한다.

한국 7대 종단 협의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 종교평화 시민모임 '사이좋게' ·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불교 · 유교 · 가톨릭이 함께 어우러져 주어사를 화합의 거점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주어사는 조선 후기 천주학을 공부하던 학자들이 강학을 진행하던 곳으로, 이들을 보호해주던 주어사 스님들이 1801년 신유박해 당시 함께 수난을 당하며 폐사됐다. 이후 가톨릭 신자들은 주어사 성지화를 추진하고, 조계종 용주사 신도들이 복원 기도를 봉행하며 종교 간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아리담문화원 측은 "다른 문화의 이해와 차이의 수용은 현대사회 화합과 번영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주어사의 역사적 이해를 통해 서로 다른 종교의 문화가 어떻게 융합돼 왔는지 알아보고, 계승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화합한마당은 불교 · 유교 · 가톨릭의 합동 추모 의식에 이어 뮤지컬 및 판소리 등 문화예술제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낮 12시부터는 주어사지 순례 명상이 실시된다.

한편 아리담문화원은 9월 30일 수원 화성박물관 다목적 강당서 '주어사의 올바른 역사 계승을 위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발제는 △서종태 전주대 교수 △이상봉 불교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박정임 경기일보 부장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맡았다. (031)216-2341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중국 선종 사찰 순례
① 소림사 上 12면

산문 밖의 禪
신현득 前 불교아동문학회장
14 · 15면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81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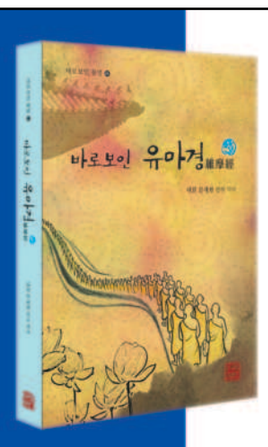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6권 출간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니, 불보살님이 교화하는 경지에서의 깨달음의 실경과 신통자재한 방편행을 보여주는 최상승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가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禪의 일상, 禪의 누림!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

‘직선제’ 도입 11월 종회서 성사될까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9월 27일 연석회의를 열고 제207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제207회 정기회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열리며, 특히 개회와 함께 하반기 중앙종회 의장 선출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임시종회에서 이월된 종헌 · 종법 제개정 건과 함께 2017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예산안 승인도 다뤄진다. 종헌 · 종법 제개정안에는 직선제 특위가 상정 예정인 총무원장 선출 직선제안과 종헌종법특위가 지난 임시회에 상정, 이월된 총무원장 선출 추첨제안이 맞붙을 예정이다. 또 소청심사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 각종 인사안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출협 제13회 불교출판문화상 공모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가 ‘제13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

조계종과 불출협은 최근 ‘제13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계획을 확정, 10월 14일까지 출품작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불교출판문화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불교출판문화상 공모 대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에 한정 된다. 불교를 주제로 한 모든 분야의 저서 및 역서가 응모 가능하며 다른 기관에서 선정된 도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불교출판문화상 공모전에서 올해의 불서로 선정된 10종 중 대상 1종에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 우수상 2종에는 상패와 상금 각 400만원이 수여된다. 또 올해의 불서로 선정된 그 외 7종 도서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불교출판문화상 응모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며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11월 말 발표 예정. 김주일 기자

〈바로잡습니다〉 본지 1115호 3면의 “最古 금속활자본은 증도가, 송광사서 간행” 기사 중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박상국)’을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으로 바로잡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제1회 학인토론대회

미래의 가전연, 法의 ‘舌戰’ 펼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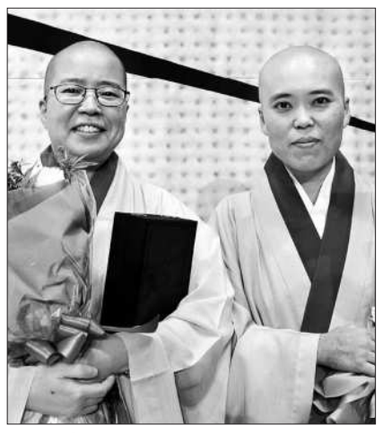
〈논의 제일〉

결선 12팀, ‘존엄사’ 찬반 토론
학인 스님들 전문적 식견 ‘눈길’

봉녕사 ‘선재선재’ 팀 우승 차지
“불교 · 사회 접목 공부에 보람”
설정 스님 “한국불교 희망봤다”



제1회 학인토론대회에서 참가한 스님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우승의 영예를 차지한 선재선재팀

“춘다의 공양을 받았던 부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을 알았지만, 자신을 점검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불교적인 일이다.” 〈해인사 승가대학 ‘가야산 호랑이’ 팀〉

“현재 존엄사를 위한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 자신보다는 가족 결정권이 우선되는 상황이다. 불살생계를 내세우고 있는 불교는 임종 순간까지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봉녕사 승가대학 ‘선재선재’ 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존엄사법)을 놓고 학인 스님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9월 28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일원에서 제1회 학인토론대회 ‘토론의 힘-동몽이상(同夢異想)’을 개최했다. 오전 예선과 오후 결선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대회는 총 11개조, 22개 팀이 참가했으며, 12개팀이 결선에 올라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2팀씩 6개조 나뉘어 진행된 토론은 약 2시간 30분가량 이뤄졌으며, 전문 심사위원들이 토론에 대한 점수를 채점했다.

결선 주제는 존엄사법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논쟁들을 불교적으로 살피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펼치는 것이었다. 학인 스님들은 자신이 맡은 입장에 서서 상대의 논리를 비판하고 설득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몇몇 참가팀들은 높은 전문적 식견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찬성 입장을 맡았던 ‘해인삼매(해인사 승가대학 2팀)’는 “불교적 생사관으로 보면 임종 직전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위적 생명 연장은 맑은 의식 상태를 보전해주지 못한다. 존엄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한달에 1천만 원가량 청구되는 의료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환자 가족에게 소요되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반대 측은 현재의 연명치료 중단은 경제 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계층들에게는 합법적인 살인을 용인해주는 행위이며, 의료 분배 문제는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료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봤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전대회 우승팀’은 “다른 사람의 혜택의 문제를 당면 환자나 의사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사는 어떻게든 환자의 존엄을 지키며 치료하는 사람이지, 병실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는 착오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완화치료에 관심을 갖지 않는 종단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봉녕사 승가대학 ‘선재선재’는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보다는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통해 사회복지적 문제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영국과 미국에서 연명 의료 중단 후 호스피스로 전환되는 비율은 96%이다. 하지만 한국은 21개 기관 호스피스 지원에서 4개 지원으로 축소됐다. 현재 암환자 100명 1개의 병상만이 확보된다. 그나마 호스피스 전문 기관의 1/3이 기독교계다. 불교는 단 한곳도 없다”고 비판했다.

열띤 토론 끝에 첫 토론대회의 대상(총무원장상) 수상자로 봉녕사승가대학 ‘선재선재’ 팀 보인, 진욱 스님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교육원장상) 수상자로는 해인사승가대학 ‘해인삼매’ 팀이 이름을 올렸다. 결선 진출 10팀에게는 우수상이 수여됐으며, 예선 참가팀에게도 원력상이 주어졌다.

대상 수상자 ‘선재선재’ 팀 보인 스님은 “토론대회 준비 전에는 존엄사를 찬성했지만, 반대입장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다”면서 “불교와 사회문제를 연결시켜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진욱 스님은 “오늘의 결과는 학장 스님부터 도반 스님들까지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가능했다. 수시로 의견을 주고, 점검해주는 등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대회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종단 원로 · 중진 스님들이 참여해 학인들의 토론을 관전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설정 스님은 “최근 종단을 비판 · 조롱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오늘 학인 스님들의 토론을 보며, 한국불교의 희망을 봤다”면서 “좋은 토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천박해서는 안되며, 이성적 안목도 탁월해야 한다. 오늘 토론대회는 한국불교의 희망을 넓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우희종 교수에 법적 대응 들어가

교구본사주지협 · 중앙종회 등 연이어 연대 입장 밝혀

종회서 입장문 채택, 특위구성 논의
명예훼손 사찰 · 스님 소송 동참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조계종 비판 발언으로 인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 각계에서 우 교수에 대한 성명이 나오는 가운데 조계종 교구본사와 중앙종회도 연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념)는 9월 28일 김제 금산사에서 4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우희종 교수의 〈쇼! 개불릭〉 파문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교구본사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지현 스님은 “우 교수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종단을 기망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책을 팔아 스님들에게 고기를 사주겠다는 등 막말로 스님들과 불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관계자는 “당사자나 단체들을 중심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빠르면 9월 내 소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파문 확산 후에도 팟캐스트 ‘쇼! 개불릭’을 통해 불교 폄하 발언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대응도 진행할 것임을 전했다.

이에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우 교수의 막말을 좌시할 수 없다”며 교구본사가 연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종회도 연대대응과 함께 입장문을 11월 종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중앙종회는 11월 정기종회에서 호법특위 등 불교외호 조직 구성도 논의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9월 27일 연석회의에서 우희종 교수가 출간한 ‘쇼! 개불릭 씹고, 뜯고, 맛보는 종교이야기’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스님들은 “근거없는 내용이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고, 불교에 대한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종단 안팎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뜻을 모았다.

중앙종회는 지난 용주사 사태 당시에도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발언 등으로 서울대 총장을 찾아 항의한 바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서울대 항의방문과 명예훼손 법적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이번 사태 외에도 여러 가지 불교 폄훼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불교를 외호하기 위한 호법특위 구성과 제재방안 등도 생각해볼만 하다”며 종회에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선학원 ‘승려법’ 개정 두고 갈등 확산

7일 선학원서 이중승적 방지 조치…선미모 반발

선학원(이사장 법진)의 승려법과 계단법 개정을 두고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이하 선미모)은 최근 “지난 9월7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이중승적 방지’를 목적으로 승려법과 계단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한데 대해 ‘선학원이 사실상 탈종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승려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선미모 측은 “개정된 승려법에 명시돼있는 기성종단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타종단이나 기성종단에 조계종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학원 내 분원장 스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학원은 9월 7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승려법’과 ‘계단법’ 일부 조항을 개정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승려법’에 △타종단 승적 보유자가 재단의 승적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종단의 승적을 포기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종단 승적 보유자가 재단 승적 취득을 승인받고도 30일 이내에 종단 제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학원 승적을 자동 실효토록 하는 것이다.

선학원 측은 “〈승려법〉 개정안은 기존 선학원 소속 창건주와 분원장 및 도제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사찰을 신규등록하거나 창건주 지위의 승계나 위임시 타종단의 승적으로 선학원 취적을 막겠다는 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갈등 확산 국면에서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선학원과의 갈등 관계를 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www.eunhae-sa.org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07주년 개산대재

만등불사 · 중악(中岳) 은빛 작은음악회

아미타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미타도량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809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 지 1207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스님들의 선맥(禪脈)이 이어온 은해사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한한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0(2016)년 10월

■ 차량운행 동대구역 지하도(오전9시)→하양→은해사
남부정류장(오전9시)→경산→하양→은해사
포항역(오전8시30분)→영천→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 문의 종무소 (054)335-3318 원주실 (054)335-5220
제10교구 각 말사
■ 주소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은해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본·말사

개산대재 대법회

• 일시 : 10월 15일 (토요일, 음9.15)
• 장소 : 극락보전 앞

오전 9시30분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
11시 육법공양, 개산법요식
오후 12시30분 중악은빛 작은음악회
6시 만등불사 점등식

만등불사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널리 펼치는 연등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며, 소원이 이뤄지는 뜻깊은 공덕입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여 세세손손 복을 누리세요.

• 동참금 : 만등불사(1인 1등 1만원)

중악은빛 작은음악회

• 일시 :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 출연 : 선화여고 밴드부 연주, 동초제 판소리보존회, 트로트가수 외



옥천사 시왕도, 40년만에 제자리로

조계종 · 옥천사, '제2초강대왕도' 프랑스서 환수 '쾌거'

1970년대 도난됐던 옥천사 시왕도 중 한 폭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경남 고성 옥천사(주지 진성)는 "보물 제1693호로 지정된 '옥천사 시왕도'의 한 폭인 '제2초강대왕도'를 프랑스에서 환수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옥천사 명부전에 봉안된 '시왕도'는 모두 10폭으로 1744년 화승 효안(曉岸)의 주도하에 조성됐다. 조계종 중앙기록관 자료에 따르면 1976년 11월 12일 '제1진광대왕도', '제2초강대왕도'가 도난돼 현재 8폭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나머지 8폭의 시왕도는 2010년 보물 제1693호로 지정됐다.

옥천사 '시왕도'는 한 폭에 시왕 1위(位)를 묘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 화면에는 용두장식 의자에 좌정한 시왕과 권속을 상단에 배치하고 하단에는 각 시왕에 해당하는 지옥 장면을 묘사했다. 환수된 '제2초강대왕도'의 초강대왕은 사후 14일에 만나게 되는 왕으로 초강(初江)에서 망자의 죄를 심판하고, 초강을 건너는 망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의 개인소장자는 옥천사 '제2초강대왕도'를 한국에서 체류하던 마지막해인 1981년에 인사동 고미술상에서 구입해 귀국했다. 이후 35년동안 보존하다 최근 프랑스 기메박물관을 통해 문화재청에 알려졌고, 조계종은 도난 여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중앙기록관에서 확인했다. 이후 조계종은 문화재청

시왕도 8점 모두 보물 지정돼
문화재적으로 높은 가치 가져

사찰박물관장 · 전문 학자 주도해
소장자 유상기증으로 우선 반환
해당 문화재 환수기금 불사 '필요'


옥천사 시왕도 '제2초강대왕도'.

국제협력과를 통해 프랑스 현지법 및 국내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는 등 협의를 진행했다. 결국 소장자와 유상기증 사례로 문화재를 기증키로 협의를 이끌었다.

이 같은 일련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옥천사의 성보 환수 원력이다. 기증사례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성보 환수를 하겠다는 옥천사 주지 진성 스님의 원력에 따라 성보박물관장 원명 스님과 불교미술학자 강소연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추선 연휴도 뒤로하고 9월 12일 프랑스 현지로 떠나 협의를 진행했다.

원명 스님과 강 교수는 개인소장자의 '시왕도'를 감정하고 반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기메박물관 한국관의 피에르 깜봉 담당 학예사에게 문화재 반출 허용 여부를 타진했다. 깜봉 학예사는 "(문화재를)내줘도 좋다"는 자문을 내놨고, 이후 소장자는 9월 15일 유상기증하는 데 동의하게 된다.

'제2초강대왕도'는 구입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고, 현재 불화의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지난 9월 23일 한국으로 이운된 '제2초강대왕도'는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안정화 작업 중에 있으며, 이후 옥천사로 이운될 예정이다.

성보박물관장 원명 스님은 "옥천사의 도난 불교문화재가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3점이 돌아왔다.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난 문화재 환수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왕도 환수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됐다. 재원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문화재 환수에 종단뿐만 아니라 불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정안스님은 "이번 환수를 바탕으로 종단은 사례에 따라 환수 방향을 다각화하여, 도난 불교문화재가 환지본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축구로 하나되는 종교화합과 평화 움직임 불교 · 가톨릭 · 개신교 · 원불교 등 4대종교 성직자들은 9월 26일 서울 상암동 난지천축구장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기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축구 시합에 앞서 불교팀 감독 지담 스님이 개신교팀 목사와 악수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희론' 극복해야 화쟁 구현 가능"

김점란 소장, 9월 26일 '화쟁사상 이해를 위한 열린 세미나'서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는 9월 26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화쟁사상 이해를 위한 열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점란 붓다의 대화 연구소장은 '삶 속의 대화와 화쟁'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소장은 화쟁의 핵심을 '언어'로 규정, 희론을 극복할 때 화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상을 분별해 의미를 부여하는 언어표현, 즉 희론서 벗어나는 것이 화쟁의 핵심과제란 뜻으로 풀이된다.

김 소장은 "희론은 실재하지 않는 자아 관념을 증폭시켜 내 견해에 집착하게 하고, 배타적 쟁론태도를 갖게 한다"며 "이러한 희론의 소멸은 전도된 인식을 깨고 사물의 연기적 성품 또는 공성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희론을 극복할 때 화쟁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희론서 해방된 자는 언어세계를 무아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한다. 또 관행에 따른 일상 언어를 따르면서도 언어세계에 소유적으로 집착하지 않는다"며 "비로소 다투지 않고 담론할 수 있는 화쟁 능력을 지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왕근 붓다로살자 편집장과 신호승 화쟁위원은 각각 '토론과 화쟁'과 '사회적 대화의 원리로서 화쟁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아름 기자**

"백남기 농민의 극락왕생 발원하옵니다"

조계사 분향소 설치 등 불교계 애도 줄이어



서울 조계사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 분향소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가 317일 만인 9월 25일 오후 1시 58분 숨을 거뒀다.

이에 대해 노동자 및 일반 시민사회계는 물론 종교계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지원, 이하 불시넷)와 붓다로살자는 9월 26일 오후 6시 서울 조계사 생명평화법당에 백남기 농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불시넷 및 붓다로살자 측은 "생명평화의 벗, 백남기 농민 추모에 불교신자 및 조계사 인근 시민들이 많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분향소에선 매일 오전 9시~오후 9시 불시넷 및 붓다로살자 회원들이 반나절씩 릴레이 기도를 펼칠 예정이다. 철거 일정은 미정이며, 추후 장례 일정이 발표되면 논의될 예정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 이하 실승회)는 9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백 농민의 사망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명확하다"며 "우리는 정부에게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신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9월 26일 '백남기 농민 죽음을 애도하며'란 제하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폭력을 사용하거나 무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칠순이 다된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았기에 백 씨의 죽음은 더욱 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면서 "이런 가운데도 경찰과 정부는 그 누구도 문책하지 않을뿐더러 사과도 거부하고 있다. 돌아가신 고인에게 그저 송구스럽고 죄스러울 뿐"이라 운을 뗐다.

이어 사회노동위는 "317일간 힘들었던 육신의 고통을 끝낸 고인의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발원한다"며 "정부는 고인의 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자숙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편히 보내드리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한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불교위원회(이하 자평통)도 9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백 씨는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이 지속한 농민생존권 박탈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민중대회에 참가했다"며 △더민주 · 국민의당 · 정의당은 즉각 박근혜 정권 탄핵조치에 돌입할 것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 구성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제안 · 요구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국회서 문화재 지진보호 대책 강구"

정세균 국회의장, 9월 28일 불교포럼서 강연

정세균 제20대 국회의장이 9월 28일 서울 그랜드 엠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제21차 불교포럼에서 국회에서 문화재 지진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이날 '지속가능한 사회, 20대 국회' 주제 강연에서 "이번 지진에서 문화재 피해 중 불교문화재가 상당수라는 점에서 불교계 뿐 아니라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피해 문화재 복구를 조속히 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 국회의장은 "문화재 정밀 실측 보고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우려스럽다. 주먹구구식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정 국회의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양극화 등 산적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진단하며 해법을 제시했다. 정 국회의장은 특히 청년대책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20대 국회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정 국회의장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도전적 상황과 난제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 만큼 헌법정신을 구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주호영 국회의원,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200여 회원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 주 문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

진화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스님은 10월 29일~11월 17일까지 사자루서 〈금강경〉을 주제로 '금강산림대법회'를 실시한다.



자비의전화 동문회 MT

무각 (사)자비의전화 대표 스님은 10월 22일 부천 오정구 작동산서 '2016 자비의전화 총동문회 MT'를 개최한다.



참선 · 아비라기도 수련회

원유 전국선원수좌회 부의장 스님은 10월 28~31일 양평 수리선원서 '제1회 참선과 아비라기도의 만남 수련회'를 실시한다.



청소년 燈작품 공모

심산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스님은 10월 24일~11월 5일 '제7회 전국청소년 등작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사찰음식 대잔치

육문 전국비구니회장 스님은 10월 13~14일 서울 법룡사서 '선재스님과 함께하는 온 가족 사찰음식 대잔치'를 개최한다.



경남승병단 출범식

호산 (사)대한호국불교승병단 경남승병단장 스님은 10월 8일 오후 2시 MBC경남 마산홀에서 경남승병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무극〉 출판기념회

성련 대일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9월 25일 대구 달서구 메트로갤러리에서 〈무극〉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공불련 16주년 기념법회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10월 15~16일 대구 동화사서 '창립 16주년 기념법회 및 대의원 총회'를 봉행한다.



BBS 영상공모전 시상식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은 10월 10일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서 '영상공모전 산따라 물따라 시상식'을 개최한다.



동국대 객원교수 재임용

배우 이덕화 씨는 2014년에 이어 지난 9월 1일자로 동국대 서울캠퍼스 예술대학 연극학부 객원교수에 재임용됐다.

"종단 교육체계 기틀 마련 주력"

원융종 제4대 종정 성관 스님



종단 만장일치로 추대
젊은 인재 종단적 발굴
종도 화합도 헌신할 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불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종단 수행지도자로서 총무원장과 함께 종단 교육체계의 기틀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대한불교원융종 제4대 종정에 前 총무원장 성관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스님은 8월 18일과 30일 중앙종회의와 임원회의서 만장일치로 종정에 추대돼 9월 25일 원융사서 공식 취임했다.

성관 스님은 취임과 함께 종단 교육불사에 매진할 것을 천명했다. 스님은 "현재 불교계에 젊은 인재들이 부족하고, 원융종은 종단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더욱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타개해나갈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종단 교육체계를 바로세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불교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야 불교계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추진되는 종단 차원의 교육불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성관 스님은 종단발전에 헌신하고자 종도화합과 재정안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헌에 따르면 창종주인 일공 스님의 입적 후 3개월 내에 새 종정을 추대해야 했으나 종단 사정으로 인해 1년 넘도록 공석으로 방치되면서 종단 분위기가 흐려졌기 때문이다.

성관 스님은 "창종주이신 일공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1년 넘는 기간 동안 종정이 공석이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며 부분적으로 종도들이 흩어지는 안 좋은 현상이 생겼다"며 "이제부터 종도 역량을 한데 모아 결집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종단 재정안정화에 나서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종단 화합의 초석을 놓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성관 스님은 "종정이라고 하면 대단한 직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이는 단순한 이름일 뿐 나 역시 같은 수행자"라며 "대승불교의 가치에 따라 종도들과 소통하고 정진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성관 스님은 1948년 4월 22일 출생, 1968년 유념 법신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하여 1980년 원융종 창종주 영산당 일공 스님에게 건당했다. 원융종 경기종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의장, 7대 총무원장 등 종단에 주요소임을 역임했다. 현재 수원 용화정사에 주석하고 있다.

한편, 추대법회에는 총무원장 진호 스님과 조계종 용화사 주지 성주 스님,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스님 등 종도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안성사암聯 회장 해월 스님 취임

"안성시민 행복 위해 이타행 실천"

안성불교사암연합회는 9월 24일 안성시 리움웨딩홀에서 '안성사암연합회 제10 · 11대 회장 이 · 취임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월도 스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본원종 총무원장 만혁 스님, 이천불교사암연합회장 인성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0대 회장 지강 스님(칠장사 주지)에 이어 제11대 회장에 취임한 해월 스님(쌍미륵사 주지, 법상종 총무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10대 회장스님의 자비정신과 이타행을 본받아 안성시민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 아울러 회원스님들의 화합을 위해 낮은 자세로 나눔과 소통을 실천해 이타행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월 스님은 이어 "안성은 고려 초에 그 어느 지역보다 불교가 흥성한 곳으로 특히 미륵신앙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미륵석불과 천년고찰 등 불교문화재가 많다"면서 "앞으로 종교를 초월해 안성시민의 안녕을 돕는 데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삼보조계종 25주년, 새출발 다짐

9월 29일 기념법회, 지역민 경로잔치도

(사)대한불교삼보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이 창종 25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대한불교삼보조계종은 9월 29일 김해시 내동 휴앤락몰 6층 뷔페에서 '창종 25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1부 기념법회에 이어 2부에서는 지역민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나눔의 자리로 회향했다.

이 자리에는 종단 법주 정각 스님, 총무원장 법장 스님, 허성곤 김해시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우리 승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숭고한 정신을 선조들로부터 계승해야 한다. 또한 대중을 위해 그 의무와 책임을 오롯이 느껴야 한다"며 "기념법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삼보조계종이 25주년을 넘어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펼치겠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보조계종은 1987년 8월 창종해 전국에 540개 사찰이 등록했다. 무료급식소 자원봉사, 국제구호, 경찰서 · 법무부 법회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성관음사, 다보불탑 쌍탑 봉안

9월 24일, 사부대중 100여 명 동참



대구 성관음사(주지 일우)는 9월 24일 대법당서 다보불탑 쌍탑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엔 주지 일우 스님, 천불사 법원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일우 스님은 "칠보탑을 나투게 한 법화행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 부처님을 닮아가는 서원을 세우고, 법화경의 가르침을 일심으로 믿고 따르는 도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보불탑은 7층 쌍탑으로 1층에는 불자들의 서원이 2층엔 불사 동참제자들의 명부, 3층엔 진신사리가 봉안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수미정사, 1080일 수행정진 회향

이웃과의 자비나눔 실천 다짐



인천 수미정사(주지 종연)는 9월 24일 경내서 '희망복지 타운 붓다원 건립 발원'으로 시작한 1080일 수행정진을 회향했다. 이날 신도들은 정진 회향으로 보살계를 받고, 〈범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만들어 개개인의 신행을 점검했다. 아울러 대중은 법회가 끝난 뒤 호계첩을 받고, 이웃과의 자비나눔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조계종 사무실 개원

9월 27일, 서울 종로구에



(사)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장 운산)은 9월 27일 서울 종로구(두산위브파빌리온 831호)에 총무원 사무실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각성 스님, 원로의장 금산 스님,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종도 및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불자들에게 신심을 진작시키는 참신한 종무행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10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속리산 한껏 물들인 전법도생 포교원력

조계종 포교사단, 법주사서 팔재계수계법회
포교사 3500명 운집, 철야하며 佛心 다져



갈색 단복을 갖춰 입은 포교사들이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한글반야심경을 독송하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다.

"발길 닿는 구석마다 불법을 펴고 중생 위한 발원에 밤을 지샌다…."

이름처럼 세속과 떨어진 속리산자락에 전법도생(傳法度生) 포교원력을 담은 노랫말이 가을바람 타고 대지를 훑었다. 부처되고자 하는 여여한 마음들은 법륜을 굴리는 원동력으로 거듭나고, 무명을 밝히는 지혜광명처럼 밤하늘 별빛만이 영롱했다.

9월의 마지막 주말, 포교사들의 자세를 점검하고 열악한 환경서도 포교원력을 놓지 않는 이들을 격려하고자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이 보은 법주사서 개최한 제14회 팔재계수계실천대법회가 성대한 막을 내렸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35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운집한 행사는 여느 때보다 여법했다.

"제7대 포교원 종책기조와 핵심과제의 첫 번째가 '새로운 불자상 정립과 신행풍도 개선' 입니다. 새로운 불자상이란 불자로서 기본에 충실하고, 늘 하심해 봉사와 신행을 적극 실천하는 데서 확립됩니다. 내부결집을 통해 대사회적 역할을 높이고, 자리와 이타를 추구하면서 깨어있는 시민보살로서 대승행을 실천합시다."

24일 오후 7시 대웅보전 앞에서 열린 입재식서 이 같이 말한 윤기중 포교사단장의 목소리는 굳건했다. 계를 지키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하지만 속세에서 제대로 지계를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성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적 불자로 거듭나자는 다짐이자 당부였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현재 우리는 무속적 기복신앙에 편중된 불교를 접하고 있다. 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전법을 해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며 "시대와 맞지 않는 신행형식을 벗어나 동체대비의 자세로 적극적인 포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포교사단은 일선현장서 꾸준한 원력을 바탕으로 포교활동을 펼쳐온 포교사와 단체에 대해 시상했다. 시상식서 광주전남지역단 김인수 포교사와 울산지역단 사찰문화해설팀이 각각 총무원장상을 받았으며, 이외에 포교사 36명과 35개 봉사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진 종단포교자격자 품수식에서는 제21회 일반포교사 579명, 제10회 전문포교사 135명, 제21회 국제포교사 19명, 제9회 불교상담심리사 158명이 자격증과 단복을 받고, 한량없는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 곳곳에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전문포교사 자격을 받아 직장직능분야서 활동하게 된 정순로(57, 법웅) 씨는 "현재 회사서 조그맣게 불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들 대부분이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종단차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가족은 당연하고, 같이 호흡하는 동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반포교사 등 900여명 품수
오후불식하며 새벽까지 정진
그간의 과업 깊이 참회하고
無明 밝힐 지혜의 빛 서원

일반포교사를 품수한 김준식(67, 일현) · 이종례(60, 공덕화) 씨는 "늦은 나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 배우는 자세로 힘닿는 데까지 전법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상담심리사 1급을 품수한 이점임(63, 자심행) 씨는 "부처님께서 아픔을 가진 여러 중생을 평생 위로하고 함께하셨던 것처럼 내담자의 이야기를 진솔한 마음으로 경청하겠다"면서 "단순한 치료사가 아닌 돕고 같이 걸어가는 상담사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품수식이 끝난 뒤 포교사들의 보수교육을 돕고자 법주사 회주 월탄 스님이 법좌에 올랐다. 스님은 "오욕칠정이 아무리 만족된다고 한들 진정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행복은 본래면목인 참나로 돌아가기 이전에 결코 이뤄질 수 없다"면서 "중생제도 이전에 조고각하를 실천해야 모든 포교사들이 자기 부처를 깨달을 수 있고, 이는 곧 5천만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열쇠가 된다"고 법문했다.

스님은 이어 "항상 스스로 올바르고 값지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진정한 수행자이자 보살이 되길 바란다"며 "내 가족부터 부처님으로 만들고, 그 다음 이웃과 국민으로 확대시켜 불국정토 구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팔관재계' 를 앞두고는 시상 · 품수 등으로 내내 밝았던 분위기가 엄숙해졌다. 신라시대부터 시행된 팔관재계는 오계 외에 세 가지 계율을 더한 것으로 재가자가 매일 지키기 어려워 한 달에 6재일(8 · 14 · 15 · 23 · 29 · 30)동안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전계대화상 지홍 스님을 비롯해 갈마사와 교수사 등이 나란히 법석에 앉았다. 포교사들은 스님들의 지도에 따라 그동안 속세에서 지은 죄를 참회하고, 법사스님들의 연비를 받으며 다시금 지계를 되새겼다.

어느덧 날이 바뀐 시각, 3500여 포교사들은 각각 손에 촛불을 들고 법주사서 정이품송까지 왕복 6㎞에 달하는 거리를 3시간동안 걸으며 명상에 잠겼다. 전날 시작된 오후불식으로 인해 체력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포교사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새벽예불과 연수특강까지 끝내고 각자 활동하는 포교현장에 불법을 전하기 위해 회향했다.

충북 보은=윤호섭 기자



법주사 대웅보전 앞에 35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운집해 장엄함을 연출했다.



포교사들이 법사스님에게 연비를 받으며, 지난 과업을 참회하고 지계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포교사들의 팔관재계를 돕기 위해 법석에 오른 스님들. 분위기가 장엄하다.



음악으로 전하는 따뜻한 '생명나눔' 향기

생명나눔실천본부, 9월 24일 불암사서 산사음악회 개최

아름드리 나무숲과 향기로운 풀, 흐르는 계곡물, 가을을 알리며 지저귀는 산새들까지. 온갖 생명이 깃든 불암산 자락에 사람들이 도란도란 모여들고 음악이 울려 퍼지자 산사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쳤다.

9월 24일 남양주 불암사와 (사)생명나눔실천본부가 공동 주최한 '2016 생명나눔 산사음악회'엔 2200여명 사부대중이 모여 가을 초입의 낭만에 젖어들었다. 2007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8회를 맞은 '생명나눔 산사음악회'는 사회에 생명나눔 의식을 확산시키고,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시키고자 기획됐다.

가수 성빈과 동국대 무용대학원 학생들의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일면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생명나눔 공헌자 표창 △명예의 전달 헌정식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장학금 수여 △홍보대사 위촉식 등으로 이어졌다.

재단법인 일면장학회는 배움에 뜻이 있는 학인 스님 및 청소년들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장학단체다. 이날 일면장학회는 봉선사 능엄학림 소속 법종 스님 외 9명 학인 스님, 불자 청소년 7명 총 16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원을 수여했다.

박정호(의정부 광동고 · 3년) 군은 "수험이 얼마 남지 않아 긴장된 마음을 달래고자 매일 아침 학교 법당서 30분 씩 예불을 드리고 있다. 그 공덕으로 장학금도 받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법당에 나가며 남은 기간 동안 학업에 정진할 것"이라 소감을 말했다.

아울러 생명나눔실천본부 새 홍보대사로 가수 양하영 씨가 위촉됐다. 양 씨는 "올해 동국대 일산병원 '한다솜 희망음악회'서 공연한 것을 계기로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인연을 맺었다"며 "불자로서 곳곳에 음악공양을 올리며, 생명나눔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본격적인 음악회는 BBS불교방송 FM '유쾌한 가요쇼' 진행자 고한우 · 세리 씨가 포문을 열었다. 맛깔 나는 진행으로 분위기를 단숨에 띄운 고 씨는 "선선한 날씨 속 천년고찰서 산사음악회 진행

2200여명 대중 경내 가득 메워
2007년 시작돼 올해로 8회째
청소년 등 16명 일면장학금 수여
장기기증 희망등록 동참 '활발'
"생명나눔 확산 계기 될 것"

을 맡아 영광"이라며 "앞으로 50년, 100년을 이어가는 산사음악회로 사회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원했다.

경내를 가득 메운 대중들은 진행에 맞춰 박수를 치거나 파안대소했다. 축제가 어색한 듯 쭈뼛대던 71사단 장병들도 어느새 긴장을 풀고 음악회를 즐겼다.

71사단 장만수 상병(23)은 "부대원들과 함께 산사음악회를 방문하니 즐겁다"며 "공연 뿐 아니라 장기기증희망등록 캠페인도 진행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동참할 의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2016 생명나눔 산사음악회'서 가수 김용임 씨가 열창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기기증희망등록 캠페인과 함께 바자회 등이 진행됐다. 산사음악회가 장기기증희망등록 홍보에 높은 효과를 보인 것은 이미 정평 난 상황. 이날도 1시간 만에 20명 이상이 신청하며 다시 한 번 산사음악회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

이관자(69) 씨는 "불암사 산사음악회에 매년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며 "나뿐 아니라 친구들도 모두 이곳서 장기기증 희망신청을 했다. 이런 자리 덕분에 음악도 즐기고 뜻 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웃어보였다.

한편 이날 자리엔 조계종 종회의원 호산 · 환풍 스님, 회룡사 주지 성타 스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낙영 경기도의원, 태석기 동국대의료원장, 박희도 前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한정 의원은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불암사를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산사서 자비와 사랑을 마음껏 담아가길 바란다"며 "생명나눔 의식 확산에 앞장서는 일면 스님의 큰 마음을 배워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 장기기증 운동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서 펼쳐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태석기 원장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여러 캠페인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장기기증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격려했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이자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은 "올해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산사음악회를 진행하며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 뿌듯하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모여 훗날 더 따뜻한 사회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기뻐했다.

박아름 기자 · 이승희 수습기자

스리랑카 불교의 등불, 냐나난다 초청법회

10월 14일 참불선원서… "남방불교 이해 높일 것"

'스리랑카 불교의 등불'로 평가받는 냐나난다 테로 존자〈사진〉가 사상 최초로 방한, 서울 대치동 참불선원서 특별법회를 갖는다.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은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냐나난다 존자 특별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자리는 한국불자들이 남방 상좌부 불교의 본산지 스리랑카의 불교를 이해하고, 새 수행법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냐나난다 존자는 페타데니하 대학서 팔리어를 가르치는 교수였으나, 교수직을 버리고 아란냐 숲속으로 들어가 15년 이상 수행에 전념했다. 이후 1999년 마하매우나워 선원을 설립, 17년간 꾸준히 새 불교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수행자다. 현재 마하매우나워 선원은 스리랑카 내 60개 분원과 해외 30개 분원이 설립될 만큼 성장했다.



참불선원 측은 "스리랑카는 삶의 의의와 생활원리, 공덕관념에 근거한 선행을 올바로 실천하는 남방 상좌부 불교의 종주국"이라며 "이번 법회는 스리랑카 초기불교를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남방불교의 새로운 수행방법을 경험하고, 부처님의 깊은 깨달음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냐나난다 테로 존자 초청법회는 부처님 당시 고귀한 원형불교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법석이 될 것"이라며 "이날 자리가 한국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국제적 상호교류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마크 테토, 9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세대 · 국경 초월 영화제될 것"

JTBC '비정상회담' 출연자 마크 테토가 제9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서울노인영화제 측은 "마크 테토는 노인문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 홍보대사로 가장 적합하다. 제9회 서울노인영화제는 그와 함께 세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영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크 테토는 사회공헌재단 '코리아 레거시 커미티'서 활동하며 서울노인복지센터 후원을 시작, 노인문화와 특별한 만남을 맺었다. 마크 테토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이 노래방 · 요리교실 · 라디오방송국 ·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생활에 참여하는 모습이 매우


제9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마크 테토.

인상적이었다"며 "영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감정, 시선, 생각들을 느낄 수 있는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도 서울노인영화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9회 서울노인영화제는10월 20~22일 서울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서 개최된다. 박아름 기자

산청 보림선원, 추계 철야 정진

산청 보림선원(선원장 전근홍)은 10월 21~23일 추계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첫날 오후 9시 예불을 시작으로 선원장의 새말귀(신화두)에 대한 소개, 소참법문이 진행된다. 이후 백봉거사의 육성 CD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좌선과 포행을 병행한다. 총 9시간의 설법과 15시간의 좌선 및 포행 등을 하며 눕지도, 자지도 않은 채 장좌불와로 새말귀를 참구한다.

전근홍 원장은 "자연에 묻혀 참선, 포행 정진을 하면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백봉거사님의 생전 육성 설법이 와전과 곡해를 예방하고, 후학들의 공부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055)972-9555 윤호섭 기자

22년 만에 문 연 아주대병원 법당

9월 29일 무위선원 주지 보경 스님 원력으로

1994년 수원 아주대병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불교법당이 문을 열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말사 무위선원(주지 보경)은 9월 29일 수원 아주대병원 본관 지하 2층서 법당 개원식을 봉행했다.

아주대병원에 불교법당이 들어선 것은 개원 이래 처음이다. 그간 개신교와 가톨릭 환우들을 위한 공간은 유지됐으나, 부처님 가르침 되새기며 치유를 기원할 공간이 없어 많은 불자들이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무위선원 주지 보경 스님은 법당을 설립하고자 병원 관계자를 비롯해 다양한 이들을 만나며 법당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곳곳에서 도움을 받아 법당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아주대병원 지하에 새롭게 마련된 불교법당.

보경 스님은 "지인 병문안을 하러 병원에 왔다가 법당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원력을 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법당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병원불자들을 위한 귀의처로서 법향을 널리 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원식에는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탁승제 병원장 등이 참석, 불자환우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생활 할 수 있길 기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특별한 템플스테이

국제선센터, 10월 6~7일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10월 6~7일 경내서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 '부모님 손잡고 1박2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를 돕고, 한때의 탈선을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템플스테이에는 '울화통 캠프'로 잘 알려진 보관 스님이 지도법사로 참여한다. 스님은 △사찰 예절교육 △내 마음 다스리기 △알아차림 명상 △스님과의 차 한 잔 등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계획이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받은 아픔과 좌절을 딛고, 미래를 향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길 바란다"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활안 · 호암스님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강의

경덕전등록은 송나라의 도원(道源)이 1006년에 저술했으며, 총 30권에 이른다.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역대 선종의 조사들, 오가(五家) 52세(世)에 이르기까지
법등(法燈)을 전한 법계(法系)를 차례로 기록한 책이다.

■ 강 사 : 활안스님(금강선원 총재)
호암스님(전 불교통신대학원장 / 내원사 주지)
■ 일 시 : 2016년 10월 17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동참비 : 월 50,000원
■ 장 소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43가길 6(청량리동)

※ 통신반 모집 : 지방에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의를 녹음하여 CD로 제작하여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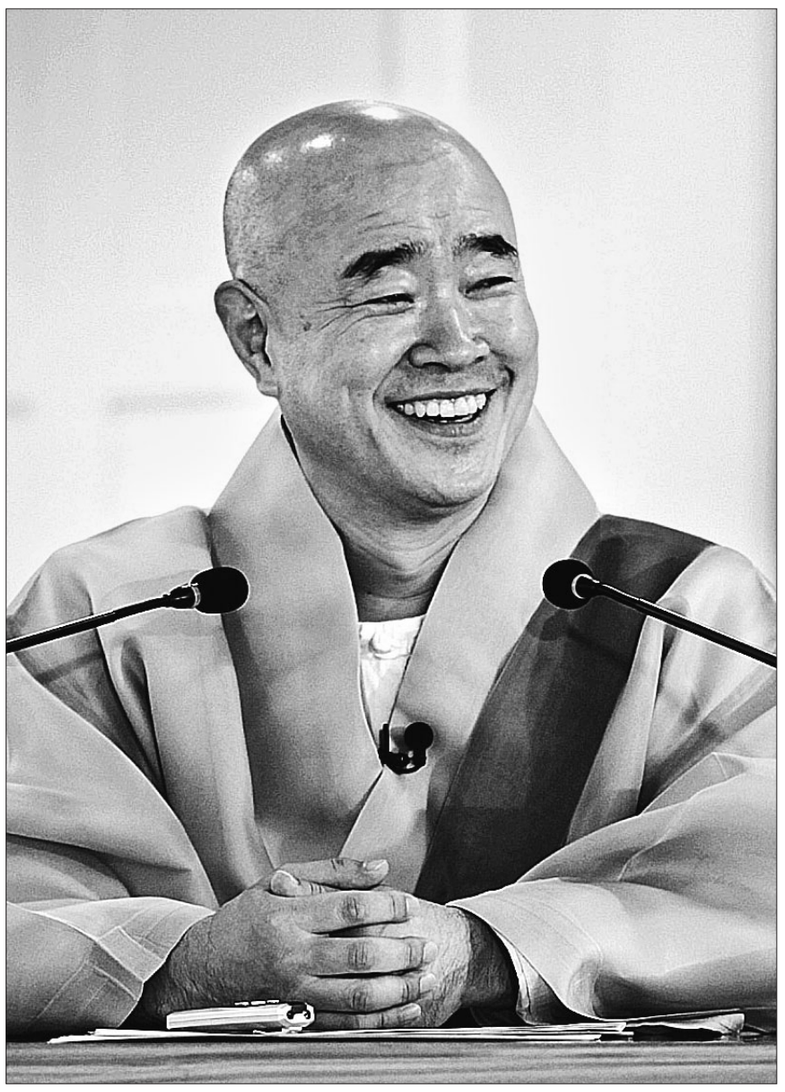


“관찰자를 관찰할 때 見性 가능”

참불선원 인문학강좌… 명쾌·호쾌·상쾌 〈선가귀감〉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선(禪)이란 무엇일까. 혹자는 이를 뜬구름 잡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지만 선은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걸림이 없을까. 불가(佛家)에서는 걸림이 없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걸림없다고 본다. 물론 중생이 이를 간단히 받아들이긴 어렵다. 이와 관련해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은 9월 26일 서울 참불선원 인문학강좌서 “참선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모습을 바라보는 관찰자를 관찰한다는 점에서 명상과 차이가 있다”며 “화두를 통해 성품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월호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서 박사학위를 받고,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문하로 출가했다. 쌍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제방선원서 정진했으며, 고산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 받았다. 현재 서울 송파구 행불선원장과 달라이라마방한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이다. 저서로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천수경 풀이 〈아바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등이 있다.

오늘은 서산대사(1520~1604)가 〈선가귀감(禪家龜鑑)〉을 통해 설명한 ‘선(禪)’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을 이야기하면 중국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서산대사라는 특별한 선승이 계셨고, 이런 좋은 어록을 남겨주셨다는 게 고귀합니다. 그럼에도 〈선가귀감〉을 공부하는 사람이 드문 점은 안타깝습니다. 서산대사의 법명은 청허 휴정이고, 임진왜란 때 의승군을 조직해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는 사실입니다. 서산은 당시 묘향산이 서북의 명산이라는 뜻에서 이름 지어진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근기를 파악하기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정비소에 갔더니 사무실 옆에 적힌 내용인데요. 차주라면 꼭 해야 할 2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2가지입니다.

△A(미리미리 관리)-최소비용(그린존) △B(때가 돼서 관리)-기본비용(블루존) △C(때가 지나 처방)-추가비용(레드존) △D(미루다가 수리)-최대비용(블랙존)

건강하고도 관련 있겠죠. 차에 관한 얘기지만 마음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존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입니다. 어느 날 행불선원 근처를 지나다 아스팔트와 시멘트 담벼락 틈을 비집고 핀 꽃 한 송이를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고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꽃의 생명력’ ‘아름다움’ ‘밝고 환하다’ ‘참 애썼구나’ ‘열심히 살고 싶다’ 등등 아주 다양하겠죠. 느낌을 얘기했을 뿐인데 사람마다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눈으로 보는 모습에 대해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이와는 달리 사진을 찍은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관찰자의 시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한 얘기는 참선의 시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던진 서두입니다. 즉, 주와 객의 시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관찰자의 시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불교수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몸 보기, 둘째 마음 보기, 셋째 성품 보기입니다. 따라서 불교수행은 보는 것이고, 이를 관찰하는 걸 명상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모습을 바라보는 관찰자와 그 관찰자를 관찰하는 것이 참선이고 견성(見性)이라고 합니다. 명상과 참선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것입니다. 명상은 한 가지를 계속 관찰하는 사마타와 여러 가지를 보는 위빠사나로 구분되죠. 하지만 참선은 관찰자를 관찰합니다.

그렇기에 참선문중에서는 견성도인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참선은 목표도 견성이고, 방법도 견성입니다. 어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을 보고, 마음을 보는 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성품은 도대체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서양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분별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관찰자는 분별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익숙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이보다 쉬운 것도 없습니다.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는 관찰자를 일물(一物)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산대사의 임종게로 알려진 시에는 이에 대한 관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수행인 불교
서구교육 익힌 이에겐 어려워
모든 존재 이미 걸림 없기에
화두 통해 본래면목 살펴야

공수래공수거 시인생 생종하처래 사향하처거(空手來空手去 是人生 生從何處來 死向何處去).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것이 인생이다. 생은 어디서 왔으며, 죽음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렇습니다. 대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대왕도 ‘죽을 때 자신의 손을 대중에게 보여주라’ 고 했습니다. 결국 빈손이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제 출가동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느 날 젊은 지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인마저 돌아가셨죠. 그때 죽음이 먼 미래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생야일편부운기 사야일편부운멸 부운자체본무실 생사거래역여연(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浮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然).

태어난다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 일어남이며,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 사라짐이네. 뜬구름 자체는 본래 실체가 없으니 생사의 오고감 또한 이와 같도다.

어느 날 저는 삼각산에서 참선을 했습니다. 출가 이전에 마음공부 하려고 여지간히 헤맸죠. 책도 읽고, 큰스님들 법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곤 산속에서 참선한다고 가부좌를 틀고 죽어라 정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더군요.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랐는데 넓적한 바위가 있더군요. 그 바위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화두고 뭐고 그냥 힘들어서요.

그렇게 쉬고 있는데 하늘이 정말 파랬습니다. 모처럼 마음이 편해졌죠. 근데 동글동글하고 아주 예쁜 구름 하나가 천천히 흘러오더군요. 그리곤 어느 순간 점점 흩어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걸 보는데 어찌나 환희심이 나던지 콱 막혀 있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왔죠. 이 게송이 그때 마음과 참 닮았습니다.

독유일물상독로 담연불수어생사(獨有一物常獨露 湛然不隨於生死).
오직 한 물건만 항상 홀로 드러나 생사에 따르지 않고 맑네.

우리 몸뚱이는 생로병사(生老病死)하고, 마음은 생주이멸(生住異滅)하며, 우주는 성주괴공(成住壞空)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여러분과 내일의 여러분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끊임없이 변화할 뿐입니다. 오로지 일물(一物)만 있을 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울림 주발을 치고) 지금 소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울림 주발을 잡고) 지금은 어떤가요? 소리가 없습니다. (다시 울림 주발을 치고) 지금 소리를 듣고 있나요? 그렇죠. (울림 주발을 잡고) 소리를 안 듣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듣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없다는 걸 압니다. 즉 소리에는 생멸이 있지만 소리를 듣는 성품은 항상 존재합니다.

잘 때 꿈에서 볼 것 보고 들을 것 다 듣죠? 이것도 성품의 작용입니다. 여러분이 잠들어도 성품은 잠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은 관찰자입니다. 그리고 성품을 보는 게 생사를 넘는 것이죠. 몸뚱이는 죽고 살지만 그 성품은 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내는 것도 ‘내가 화를 내는구나’가 아니라 ‘월호가 화를 내는구나’ 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선가귀감〉의 첫 대목을 보겠습니다.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이름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 없다.

한 물건이란 뭘까요? 이를 두고 옛 어른은 동그라미를 그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부처님 나기 전에 의젓한 동그라미, 석가도 아직 모르는데 가섭이 어찌 전하랴?” 정답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한 물건을 불성(佛性)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아닌 이유는 이름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명명하든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이름이든 붙일 수 있고, 어떤 모양이든 그려낼 수도 있겠죠.

우리는 흔히 일체중생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고 합니다[一切衆生悉有佛性]. 내 몸이 있고, 그 안에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마음 안에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불성은 내 몸보다 클 수 없습니다. 불성이란 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몸보다, 마음보다 큰 것이 불성이지만 이를 지니고 있다고 표현하다보니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몸을 닦지만 성품을 닦을 순 없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아서 닦을 수 없는 겁니다. 〈반야심경〉의 불구부정입니다. 이건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5온 12처가 모두 불성입니다. 일체가 나이고, 불성인 셈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화두집인 〈선문염송〉의 제1칙이 ‘도솔화두’ 입니다. ‘세존께서 아직 도솔천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왕궁에 강림하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중생을 다 제도해 마쳤다. 이것이 무슨 소식인가.’

무슨 뜻인지 단박에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이것이 간화선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묵조선이 좌선을 중시한다면 간화선은 문답을 중시합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면 백년이 지나도 똑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정관념으로 인해 말이죠. 간화선은 선지식이 답을 가르쳐주진 않지만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알려주죠. ‘이뭣고’ 화두 역시 같습니다.

도솔화두를 잘 살펴보면 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과 카필라성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말합니다. 출생 이전에 중생을 제도한 것은 시간적 걸림이 없다는 것이고요. 더 자세히 설명할 부분이 있지만 일단 ‘선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선가귀감〉 두 번째 대목은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오심은 마치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남이다’ 입니다. 역시 쉽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이는 한 물건으로 따졌을 때 사람마다 본래면목이 뚜렷이 이루어져 있기에 부처와 조사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 허망한 생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다른 대목인 ‘대장부는 부처와 조사 보기를 원수같이 해야 한다’ 는 것 역시 부처와 조사에게 매달려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얽매여 걸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참선은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무언가 길을 열어줄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어야 접근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화두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쉽게 배울수 있습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 (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6. 10. 22(토) 오후 1시부터 ~ 10. 23(일) 오후 4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0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 (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화)

※ 교재 : 10,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4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0월 31일까지
◆ 강의일시 :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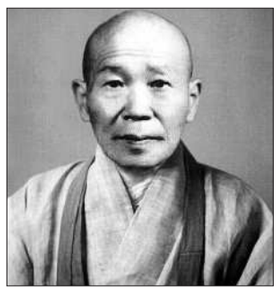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근대 佛母 일섭 스님, 학술적 조명된다

일섭문도회, 10월 8일 첫 학술세미나 개최



근대 시기 최고의 불모(佛母)로 활동한 일섭 스님〈사진〉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개최된다.

(사)불교미술일섭문도회(이사장 김성규)는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근대 불모 일섭 스님의 작품세계'를 주제로 제1회 학술세미나를 연다.

그간 일섭 스님에 대한 연구는 스님이 빠지지 않고 쓴 일기인 〈연보〉를 토대로 생애를 조명한 석사학위 논문이 전부로, 스님의 작품세계를 학술적으로 살피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섭 스님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불모 유성 스님의 맥을 이어 근현대 시기 불모로서 활동을 해왔다. 스님은 14세에 전남 송광사에서 출가해 19세에 한봉린 스님을 만나 불화를 처음 그렸고, 23세에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각지 불모들과 교류했다. 또한 이 시기 보응 스님을 만나 문하로 들어갔다.

이후 일생동안 해인사 사천왕탱화, 조계사 후불탱화, 송광사 시왕각부탱화, 옥천사 팔상탱화, 백양사 사천왕 소조상 등 북한 함흥 · 연변부터 남한의 제주까지 전국의 주요 사찰의 불화, 단청, 불상 등의 불사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불화부터 불상, 단청에 이르기까지 불교미술 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일섭 스님의 작품세계를 고찰한다.

주요 발제로는 정병국 동국대 미술학과 교수가 '화사 일섭의 불화양식 고찰', 곽동해 한서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가 '화사 일섭의 단청양식 특성에 대해', 이숙희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일섭 스님의 조각세계' 등을 진행한다. 발제에 앞서 신은영 송광사 성보박물관 객원 연구원이 일섭 스님의 연보를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세미나 토론자로는 김승희 국립전주박물관장, 박현수 동국대 미술학과 겸임교수, 심영신 홍익대 강사 등이 참여한다.

김성규 불교미술일섭문도회 이사장은 "일섭 스님은 약 1천여 곳의 사찰에서 불사를 맡아 진행했고 불화, 단청, 공예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 현대불교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하지만 스님의 작품세계에 대한 학술적 조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한국불교미술의 맥을 정리하고,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전통산사' 보존관리 활용방안은?

등재추진위, 10월 7일 3차 국제학술회의

'한국의 전통산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는 10월 7일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제3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연속유산의 보존관리 활용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미셸 코트(프랑스 낭트대학교 명예교수)의 '연속유산 보존관리 계획 : 신규 등재신청서에 대한 요구사항'이란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구오 짠(이코모스(ICOMOS)중국위원회 부회장), 페카 티틸라(핀란드 국토조사국), 히로시 츠지바야시(와카야마현 세계유산센터 국장) 등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연속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연속유산의 보존관리 활용방안과 세계의 연속유산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전통산사'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회의에 앞서 10월 6일에는 신청대상 유산 중 하나인 안동 봉정사와 영주 부석사 일원의 답사를 진행한다.

등재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회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속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존 방향에 대하여 이해를 도모하려 한다"면서 "현지 답사를 통해서는 '한국의 전통산사'의 국외 전문가들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등재 가능성을 높이고, 보존관리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원효 사상 · 저술, 세계 불교에 지대한 영향"

동국대 세불연, 울산대 연구단 공동 학술대회

동아시아 · 미국 · 유럽 불교에 원효 사상 미친 영향 분석

유럽 원효 연구, 아직 미흡
한국 · 유럽 공동연구 필요해

美, 기신론 주석 연구 활발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사상가 중 한 명인 원효 스님(617~686)의 사상이 세계 불교학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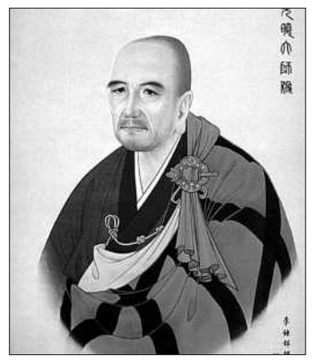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와 울산대 원효토대연구사업단은 9월 24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분황 원효와 세계 불교학'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원효 스님이 보여준 여래장인식과 불성론의 이해를 살피고 후대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원효 스님은 〈대승기신론〉 주석서만 8권을 쓸 정도로 〈대승기신론〉에 집중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원효는 주석서들을 통해 일심의 철학을 공고히 했고, 일심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 아려야식 개념과 여래장 개념을 적절히 원융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심 여래장 사상은 동시대는 물론 후대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태현 스님의 경우 원효와 법장의 〈기신론〉 주석을 엄밀히 분석해 〈대승기신론내의약탐기〉를 저술했다. 그는 두 사람의 주석을 종합하면서도 이들 견해의 차이를 소개하고 있다. 이후 통일신라대까지는 원효의 여래장 인식과 불성 이해의 지형에 영향을 받은 저작들이 간행됐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선학이 성하면서 원효의 여래장 인식과 불성 인식과 이어질 수 없었다는 게 고 교수의 주장이다.

고 교수는 "원효는 지식사회에서 존재감을 지니지 못했지만, 왜란 등 국난 위기때마다 민족 상징으로 되살아났다"며 "조선 후기와 대한 시대에는 그를 기리는 영정과 벽화들이 그려졌고, 설화들도 산발적으로 재생산됐다"고 설명했다.



원효 스님 진영. 원효 스님의 사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최원호 연세대 외래교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원효 연구 현황을 분석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유럽에서 원효 연구는 아직 발아(發芽) 단계이다. 논문으로는 이계선 신부의 1976년 파리 7대학 박사 논문으로 '7세기, 신라의 원효대사: 생애와 저술 포교활동'과 자신의 EPHE 박사 논문인 '존재론의 근거로서의 일심: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별기의 번역과 주석' 정도이다.

최 교수는 "한국 불교 고전의 번역뿐만 아니라 오늘의 뛰어난 불교 연구소들의 편찬을 예비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금강대 연구교수는 원효 스님의 사상이 미국불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했다. 그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불교학자인 로버트 버스웰, 박성배, 찰스 뮐러, 리차드 맥브라이드의 원효 연구를 분석했다.

이들 학자들의 연구는 차이점도 상당히 있지만, 공통적으로 △원효는 신라불교를 대표하는 위대한 승려 △원효가 보여준 광범위한 분야와 그에 대한 학문적 태도 △저술의 목적이 화쟁에 있다는 사실 △원효가 〈대승기신론〉을 사상의 중심에 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 활동 학자들은 원효 연구를 바탕으로 그의 저술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가을 공개행사 '풍성'

진관사 · 삼화사 · 백운사 등 수륙재 10월 초 · 중순 개최

승무 · 탈놀이 등도 잇달아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125호 삼화사 수륙재의 모습. 올해에도 삼화사, 진관사, 백운사의 수륙재를 일반인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수륙재, 승무, 탈놀이 등 국가무형문화재들의 흥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개행사가 가을 맞아 잇달아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립무형유산원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기 · 예능 공개행사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고 9월 29일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불교 무형문화재 행사는 수륙재이다. 이승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고 천도하기 위하여 불법(佛法)을 설명하는 종교의식인 수륙재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25 · 126 · 127호로 삼화사 · 진관사 · 백운사 각 사찰의 수륙재가 지정돼 있다.

조선 초기 이후 모든 수륙의 고혼 천도를 위하여 행해졌던 백운사의 '아랫녘 수륙재'는 10월 7~8일 백운사 경내서 열린다. 또한 조선왕실 주도로 이뤄진 진관사 수륙재는 10월 8~9일, 삼화사 수륙재는 10월 14~16일에 봉행된다.

가을 하늘 아래 운치를 더하는 경복궁 수정전에서는 '궁궐 공개행사 토요마당'으로 각양각색의 예능 공개행사가 열린다. 우선 10월 1일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의 보유자 이애주 선생의 공연을 시작으로 △제39호 처용무(처용무보존회, 10월 8일),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보유자 강정열, 10월15일) △제30호 가곡(보유자 김경배, 10월22일) △제16호 거문고산조(보유자 김영재, 10월29일) 등 전통문화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기능 보유자의 다채로운 시연과 전시도 이뤄진다. 제106호 각자장 보유자 김각한은 10월12~18일 서울 강남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제107호 누비장 보유자 김해자는 10월21~23일 경주 교촌한옥마을 손누비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진행한다.

현대를 대표하는 불모(佛母)로 잘 알려진 제108호 목조각장 보유자 박찬수 씨는 10월28~11월6일 경남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에서 전시회를 연다.

사찰 불사의 달인들의 공개행사도 마련된다. 제74호 대목장 보유자 최기영은 학림사 오등선원서 보유자 신응수는 10월 29일 충남 공주시 성재 전통건축자료관에서 공개행사를 갖는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월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02)3011-2153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기신론소 돈황사본 전문 강독회 열린다

금강대 불문연, 10월 7~9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돈황사본 전문강좌- 돈황사본 〈대승기신론〉(羽333V)' 집중 강독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독회의 주제인 〈대승기신론소〉(羽333V)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새롭게 발견한 돈황문헌으로 현존하는 〈대승기신론〉 주석서인 〈대승기신론의소〉보다 오래된 것이다.

3일 동안 이뤄지는 강독회의 발제는 이케다 마시노리(금강대)가 맡으며, 강사로는 은정희(서울교대, 7일), 안성두(서울대, 7~8일), 백진순(동국대, 8일), 김천학(동국대, 9일), 최연식(동국대, 7~9일), 박인석(동국대, 9일)이 참여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연구소가 발굴한 〈대승기신론소〉(羽333V)를 해독함으로써 〈대승기신론〉의 최초기 수용 과정 등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문헌 연구의 현재 최고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셔, 그 동안 연구소가 강독해 온 결과물을 놓고, 한국 불교학계 최고 수준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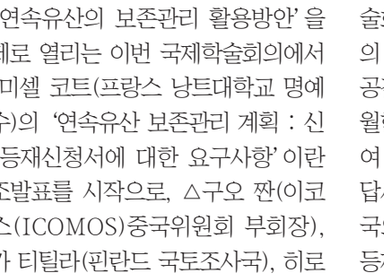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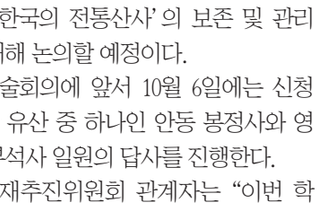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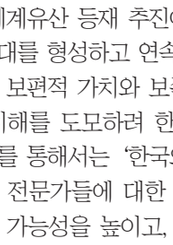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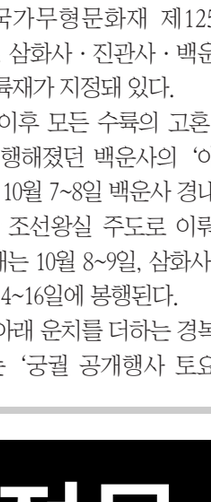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싱숭생숭’ 내 마음, 음악으로 달래볼까

경남 불교계, 가을 한복판 음악회 및 축제 등 ‘다채’

구룡사, 가을 달빛 산사음악회와 백일장·사생대회·전시회 등 열어
대원사 등서 합창축제도 마련해



부산 경남 사찰과 단체들은 다채로운 음악행사를 마련하고 불자들을 초대했다. 사진은 작년 부산 파라미타 전국합창제 모습

깊어가는 가을, 부산 경남의 사찰과 단체들이 다양한 축제와 음악회를 마련하고 대중들을 초대한다.

창원 구룡사(주지 신공)는 창건 89주년을 맞아 10월 15일 구룡사 경내서 ‘창건 기념 법회 및 제4회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달빛 산사음악회’를 연다. 창건 기념법회는 오전 10시 설법전서 진행하며 음악회는 오후 7시이다.

이날 구룡사는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상식 및 구룡은암장학금을 수여하고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국대 이사 법산 스님을 초청해 법석을 펼친다. 음악회는 구룡사 우담바라 합창단의 음성 공양을 시작으로 가수 전영록, 박성철, 원더풀 중창팀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구룡사 산사음악회는 매년 각 신도회와 합창단 등 소속 단체들이 직접 축제를 주관하고 갈고 닦은 결과물을 선보여 의미가 남다르다. 먼저 바라밀 선다회는 오후 5시부터 경내 마당에서 두리차회를 열고 구룡사를 찾는 이들에게 가을 찻자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바라밀 꽃꽂이회가 마련한 아름다운 가을 꽃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구룡산사의 가을 정원’이란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작품 전시회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범어사 포교원 대원사(주지 담화림)는 ‘대원선재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10월 22일 오후 7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극장서 개최한다. 대원선재합창단은 2015년 12월 창단해 현재 45명의 어린이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첫 발표회를 통해 음성 포교의 결실을 맺어가겠다는 의지다.

대원사는 “전법 도량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많은 신도회를 창립하고 그 가운데 어린이 포교를 위한 합창단을 창단했다”며 “저희 대원선재어린이 합창단 활동에 격려를 부탁하며 발표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불교신도회(회장 김복광)는 울산 불자들을 위한 ‘제20회 울산불교합창축제-나누는 즐거움 함께하는 행복’을 10월 5일 오후 6시 KBS 울산홀서 연다. 이번 합창대회에는 한마음선원합창단을 비롯해 BBS 울산불교방송합창단, 백양사삼보합창단, 법륜사마야합창단, 월봉사월광합창단 등 울산 사찰 소속 합창단 단원 1500여명이 대거 참여한다.

울산불교신도회는 “합창단이 하나 되는 자리이다. 이를 통해 울산 불교 또한 하나가 되고, 참가팀 뿐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함께 즐기고 행복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10월 8일 오후 2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서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제’를 개최한다. 이번 합창대회에는 부산 대천중학교 대천 합창단, 경남 마산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합창단, 서울 송곡고등학교 송곡마하나임 남성합창단 등 전국의 중고등학교 10여 개 팀이 참여해 경연한다.

백명숙 협회장은 “합창을 통해 배려를 배우고 서로를 위한 마음을 내는 것이 곧 살아 있는 교육”이라며 “매년 합창대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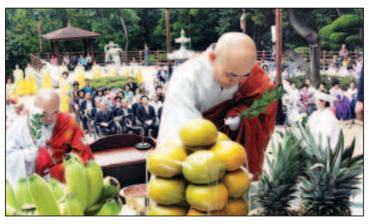
부산 불교, 사명대사 호국 정신 잇다

9월 26일 사명대사 열반 제406주기 추모대재

부산불자들이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9월 26일 사명호국광장(초읍 부산어린이대공원 내)서 ‘사명대사 열반 제406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부산 불교는 매년 음력 8월 26일 사명대사 추모재를 봉행하며 호국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추모재는 1부 부산영산재 보존회(부산지방무형문화재 제9호)의 호국영산대재로 문을 열어 2부에선 △육법공양 △호국발원문 낭독(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헌화 △사명대사 행장 소개로 진행됐다. 회장 경선 스님은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불교 뿐 아니라 부산,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마음 모아 함께 함이 마땅할 것”이라며 “부처님 법을 실천함이 곧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 스스로 자비롭게 하는 길이다. 불교가 곧 온갖 생명을 길러내고 호법하고 호국하는 길임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연합회는 9월 26일 사명호국광장서 ‘사명대사 열반 제 406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나한 신앙, 공적 영역 발원으로 나가야”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19차 학술대회’서

청도 운문사가 주최하고 한국정토학회와 원광화랑연구소가 주관한 제19차 학술대회가 9월 26일 운문사 경내 선열당 시청각실서 개최됐다.

‘나한 신앙과 역사’란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운문사 승가대학 학장 일진 스님, 한국정토학회장 최정인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제1주제 ‘청도 운문사의 나한 신앙 고찰’ 발제를 맡은 일진 스님은 “운문사의 나한 신앙은 현재 개인의 복을 비는 사적 영역서 중생구제와 국가 안녕을 기원하는 공적 영역으로, 또 부처님 정법이 널리 퍼지길 발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부 순서서 명성 스님은 “고승대덕스님이 머무신 유서 깊은 교육도량에서 ‘나한 신앙과 역사’란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라며 “발표자 및 토론자 뿐 아니라 참석한 대중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청도 운문사의 나한 신앙 고찰’을 주제로 발제 중인 일진 스님.

부산 관음사, 회주 지현 주지 영산 스님 취임

부산 관음사가 ‘회주 추대식 및 주지 취임 법회’를 봉행하고 전법 도량으로 나아 갈 것을 서원했다.

관음사는 9월 27일 관음사 경내 원통보전서 지현 스님을 회주로 추대하고 새 주지 영산 스님의 취임을 알렸다.

회주 지현 스님은 “끝까지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울 것”이라며 “사부대중도 마음 모아 함께 불사에 동참하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영산 스님은 “절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사부대중”이라며 “이와 같이 알고 노력하며 마음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지 영산 스님은 통도사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 사회복지법인 자비원 원장, 통도사 율원 율감, 교수사를 역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관음사는 ‘회주 추대식 및 주지 취임 법회’를 9월 27일 봉행했다.

안국사, 창원 도심포교 도량으로 ‘재탄생’

9월 22일 옛 39사단 군법당 안국사 폐사 고불식

폐사 위기에 처했던 옛 39사단 안국사가 창원 도심 포교 도량으로 재탄생한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9월 22일 ‘통도사 창원전법도량 안국사 폐사 고불식’을 안국사 법당서 봉행했다.

안국사는 1990년 옛 육군 39사단에서 군법당으로 건립 된 후 25년간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지난해 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하고 신도시 건설로 인해 기존 안국사는 폐사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과 통도사, 창원 불교계의 지속적 노력으로 새롭게 법당을 불사하고 신도시 포교 전법도량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통도사는 앞으로 신도시 건설 지역서 700m 가량 떨어진 곳에 총 2000㎡ 부지를 마련하고 2019년 10월까지 2층 법당과 요사채 등을 불사할 계획이다. 공사는 올 연말 도시계획이 확정 된 후 내년 상반기 착수한다.


통도사는 9월 22일 ‘통도사 창원전법도량 안국사 폐사 고불식’을 안국사 법당에서 봉행했다.

고불식에는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총무국장 도문 스님, 창원포교당 구룡사 주지 신공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및 구룡사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대중들은 폐사 위기에도 안국사를 묵묵히 챙겨온 주지 정오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군포교 전당 안국사 군법당이 시대적 변화의 요청에 따라 폐사됨을 눈물로 부처님께 아뢴다. 하지만 신도시 포교를 위해 새롭게 창건하고자 함을 기쁨으로 또한 고한다”며 “다행히도 더 좋은 인연을 만나서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운 도량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여러 불자님들의 기도와 소망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통도사 창원포교당 구룡사 주지 신공 스님은 “창원시민과 불자님들이 새로운 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며 “이젠 새롭게 불사될 안국사 건립을 위해 마음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실 이전

9월 28일 이전 개소식 개최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공동 대표 무원)이 사무실을 이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9월28일 부산 진구 동평로(양정청소년수련관 옆) 새 사무실에서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동 대표 이사 무원 스님, 혜총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최주덕 삼광사 신도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무원 스님은 “남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으로 시작했다. 흩어져 있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재를 지내는 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도 확대 동참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가 9월28일 부산 진구 동평로 새 사무실서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세간 떠난 깨달음은 토끼뿔 · 거북털”

월주 스님, 60년 수행 회고록 펴내



한국불교 정화운동과 조계종단 개혁, 2번의 총무원장 소임, 10 · 27법난 등 현대 한국불교사의 중심에 섰던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사진〉이 60년 수행생활을 정리한 회고록 〈토끼뿔 거북털〉과 법어집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사진집 〈태공〉을 출간했다.

월주 스님은 9월 26일 금산사 화림선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서 출간 배경과 그간의 소회를 풀어냈다.

월주 스님은 회고록 제목과 관련해 “불법은 세간 가운데 있으니 이를 떠나 깨달음을 찾는다면 이는 토끼뿔과 거북털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는 육조 혜능대사의 〈육조단경〉에 나오는 ‘불법재세간(佛法在世間) 불리세간각(不離世間覺) 이세멱보리(離世覓菩提恰) 여구토각(如求兎角)’에서 따온 것이다.

월주 스님은 이 자리서 한국불교에 대한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스님은 “종교지도자는 세상의 빛이 돼야 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도리와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불교는 아직 멀었다. 수행공간을 갖고 있고 수행력은 있지만 세상을 이끌고 계도할 실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학들에 의해 생겨나는 큰스님들의 임종게 · 오도송에 대한 우려의 뜻도 전했다.

월주 스님은 “큰스님들이 생전에 임종게 등을 남기지도 않았는데 입적 후 오도송과 임종게가 발표될 수 없다”며 “나의 임종게는 없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가 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님은 10 · 27법난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자성을 나타내면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소녀상 철거에 반대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건과 관련해 “국민의 아픔을 돌보고 치유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다.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월주 스님은 향후 계획에 대해 “당초 80세까지 활동하려 했으나 건강이 허락한다면 미수(88세)까지 활동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꽃무릇 물든 선운사, 1500년의 울림

9월 24일, 상생 페스티벌 선운문화제



선운사 스님들과 108명의 불자들이 〈석시원류〉 경판을 머리에 이고 경내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온 산하를 빨간 꽃무릇이 붉게 물들인 전북 고창 선운사서 지역 대표 불교축제인 선운문화제가 열렸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9월 24일 선운사 일원서 ‘1500년의 울림 상생 페스티벌 선운문화제’를 개최했다. 선운사의 역사 ·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획된 이번 문화제는 산사의 품격과 지역 상생이라는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는 만세루서 열린 꽃무릇 시화전으로 문을 열었다. 부처님 일대기와 가르침이 서역 및 중국에 전파된 사실을 기술한 〈석시원류〉 경판이운식에서는 108명의 불자들과 관광객들이 경판을 직접 머리에 이고 천왕문을 거쳐 경내 법계도를 돌아 스님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마을 주민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알려줘 생계를 잇게 한 고마움을 기리는 보은염 이운식이 봉행됐다. 이는 다른 사찰서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 상생의 표본으로, 1500년간 봄과 가을에 선운사에 소금을 공양하는 의식이다.

100여 명의 검단마을 주민들은 마을서부터 선운사에 이르기까지 소금을 직접 이운해 선운사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보은염 이운식을 재현했다. 이운식에서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김상호 고창부군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구본일 BTN불교TV 사장, 방송인 선우용녀, 선운사 신도회 임원 등이 이운 행렬을 맞았다.

경내에 어둠이 내려앉자 선운사 앞마당 특설무대에는 선운문화제의 백미인 산사음악회가 열려 가을밤 산사를 찾은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성진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막을 올린 산사음악회는 식전공연으로 선운사 합창단과 전주 크로마하프팀, 동국대 힐링

산사 · 지역 상호발전 도모

보은염 이운식 등 행사 다채

산사음악회서 법음 전하고

불교문화체험에 신심 다져

코러스팀이 무대에 올라 ‘진리의 빛’ ‘선운사’ 등 불자와 대중이 익숙한 곡을 연주해 산사음악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산사음악회의 연주를 맡은 40인조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는 선운사서 초연된 ‘축제를 위한 상강례’를 서곡으로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였다. 초청가수로 무대에 오른 도신 스님은 ‘목탁새’ ‘무상’ 등을 열창해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는 또 소프라노 이정화, 바리톤 송기창, 테너 하만택 등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음악을 연주해 가을 문턱에 들어선 산사의 밤을 밝혔다. 무대의 마지막은 전 출연자와 관객들이 하나 돼 ‘친구여’를 합창하는 것으로 꾸며졌다.

이밖에 경내 곳곳에서는 인경체험, 선운사 108보물찾기, 고창주민과 도시민을 연결하는 직거래장터, 셀카포토대회 등이 열렸다.

경우 스님은 “선운사는 1500년의 역사와 보은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한 고창의 자랑이자 정신이다”며 “가을 산사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배경삼아 최고의 출연자들이 펼치는 클래식 공연에 흠뻑 젖어 선운사를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운사 관계자는 “올해 선운문화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구본사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운사는 오랜 역사와 빼어난 자연환경, 소중한 성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사시사철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봄철의 동백꽃과 가을의 고풍스런 단풍과 함께 어우러지는 붉은 꽃무릇은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큰스승 도광 · 도천 스님 기리며”

구례 화엄사, 합동추모재 및 도천 스님 부도비 제막



근대 구례 화엄사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두 스승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화엄사(주지 영관)는 9월 23일 화엄사의 가람중흥과 수행정신을 통해 화엄종찰의 가치를 높인 이산당 도광 스님(1922~1984)과 도천당 도천 스님(1922~2011)의 합동 추모재와 도천 스님의 부도비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평생 수행도반이었던 두 스승의 부도는 한 곳에 모시고, 부도비만을 별도로 세워달라는 유지에 따라 앞서 세워진 도광 스님의 부도비와 부도탑 옆에 도천 스님의 부도비가 마지막으로 세워졌다.

이산당 도광 대선사 원적 32주기, 도천당 도천 대종사 원적 5주기를 맞아 봉행된 합동추모재에는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을 비롯한 도광, 도천 문도회 소속 스님과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두 스님의 수행 정신을 기렸다.

문도대표 명선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화엄사 문장)은 인사말을 통해 "두 큰 스님의 수행가풍을 이어 받아 문도가 서로 화합하여, 화엄종찰의 발전에 이바지 해달라“고 당부했다.

영관 스님은 기념사서 “연기조사의 서원을 바탕으로 한걸음에서 시작되었듯이, 부도비 제막을 통해 본사부터 솔선수범하여 문도 스님들의 고견을 잘 수렴하고, 화엄문도의 많은 후학들이 종단의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죽비삼배, 행장소개, 헌다, 반야심경 독송, 헌화, 경과보고, 문도대표 인사, 불사 공로자 감사패 증정, 인사말 등 기념식에 이어 자장율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것으로 전해진 적멸보궁 터에 대한 개축불사 상량식도 함께 봉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왕실 축복’ 받으며 도봉산 오른 석가탑

천축사, 10월 9일 행원산신대재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문화재인 경주 불국사 석가탑이 왕실 축복 속에 도봉산을 오른다.

도봉산 천축사(주지 함결)는 10월 9일 사찰 일대서 ‘2016 천축사 행원산신대재’를 봉행하고, 석가탑 ½ 크기로 축소 제작한 석탑을 대중에 공개한다.

천축사 석가탑 공식 명칭은 ‘석담석가탑’. 탑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석장(석구조물 분야) 이의상 선생과 석공예 부문 대한민국 명장 김식경 선생이 함께 만들었다.

천축사는 석담석가탑 공개와 더불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과거 천축사의 장엄함을 연출할 계획이다. 특히 천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왕실과 맺었던 인연을 알리고자 ‘왕실 행차 재현의식’을 실시한다. 이 의식은 왕과 왕비가 천축사에 행차해 향과 축문, 지전을 하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봉행된 천축사 행원산신대재. 사진제공=천축사

천축사는 이와 함께 새롭게 정비된 경내 조경을 선보이고, 행원산신대재를 담아내는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한다. 국립국악단 축하공연과 도봉산 장엄길 기원행사도 열린다. 장엄길 기원행사는 서원터 주차장서 천축사 일주문을 거쳐 경내까지 이어지며, 꽃비와 리본 장엄, 행원 형상물 설치, 마임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천축사 측은 “천축사가 천년고찰 면모를 되찾을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도량을 정비해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천축사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천년고찰에 걸맞은 사찰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축사는 673년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1398년에는 조선 태조가 이곳에서 유숙한 이후 기도처로 삼았고, 이 인연을 바탕으로 중창됐다.

(02)954-1474 윤호섭 기자

탑사 갑룡장학회, 청소년 장학금 전달

진안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는 9월 23일 진안 한방타운 강당서 이현교(진안여중 1) 학생 등 35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총 108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탑사 회주 혜명 스님,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 탑사 주지 진성 스님, 대구 혜인정사 주지 진송 스님, 이항로 진안군수, 박금석 복성장학회장, 김훈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탑사 회주 혜명 스님은 “장학금이 공부하는 데 비록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지만 학생들이 사회의 큰 기둥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성 스님도 “진안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는 만큼 자원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17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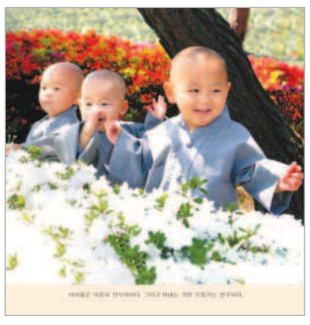
12절 258㎜×265㎜

100부 이상 @ 1,000원

3천부 이상 @ 8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H.P 010-3554-2988, 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농협 : 121068-56-042256 ◆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業의 불길은 그 무엇보다 뜨거우니…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㊼ 화염산 지나는 현장법사 일행

색욕의 유혹을 물리치고 떠난 길, 색욕보다 더 뜨거운 것이 길을 막는다.

800리에 걸쳐 타오르는 화염산(火焰山)! 무쇠 몸에 구리 머리를 가진 이라 해도 넘지 못한단다. 돌아갈 수도 없는 막다른 길, 한참 떨어진 곳도 숨이 턱턱 막히게 뜨겁다.

다행히 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천리 넘어 떨어진 곳에 취운산(翠雲山)이란 산이 있고 거기에 파초동(芭蕉洞)이란 골짜기가 있다네. 그 골짜기에 쇠부채 신선이 사는데 그 신선의 파초선이란 쇠부채가 불길을 잡을 수 있다네.

손오공에게 천릿길이야 산책 거리도 안 되지. 급히 근두운 타고 파초동을 찾아가는데 참으로 인연이 얽히고 얽혔네. 파초동 주인은 나찰녀, 또는 쇠부채공주라 불리는데 손오공 요괴놀음 시절의 의형인 우마왕의 아내요, 손오공 애먹이다 관세음보살 문하로 이적한 홍해아의 어머니로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상황설정을 좀 요약해볼까? 우마왕은 본부인 나찰녀를 돌보지 않고 옥면공주란 요괴에게 새장가들 들어 마운동이란 곳에 가서 알콩달콩 살고 있단다.

나찰녀는 독수공방의 설움 속에 홀로 살고 있고…. 이런 나찰녀에게 손오공은 아들 뺏어간 원수! 그래서 한바탕 대판 싸움이 벌어질 밖에.

그런데 바로 나찰녀가 가진 신묘한 부채가 문제일세.

휘익~ 부채질을 하니 손오공 휘휘휘휘휙~~ 날려가, 날려가, 날려가….

오만 리를 날려가버리네. 날려가 떨어진 곳이 마침 황풍요괴 잡을 때 도움 받았던 영길보살의 거처일세. 안성맞춤이라고 해야 할까?

영길보살이 바람을 이겨내는 정풍단(定風丹)을 주시네. 손오공 정풍단 빌어 다시 나찰녀에게 도전! 나찰녀 아무리 부채질해도 소용없고 싸움 실력으론 안 되니 파초동으로 달아나 문 걸어 잠금. 손오공 벌레로 변하여 파초동 잠입.

나찰녀가 차 마실 때 다시 나찰녀 뱃속으로 잠입(?). 뱃속에서 널뛰기를 하니 나찰녀 항복, 항복! 그래서 파초선 빌어 나와 의기양양 일행 이끌고 화염산 화염에 대고 휘익~ 부채질.

그런데 이게 웬일?

불길이 사그라지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타오르네! 알고 보니 가짜부채, 나찰녀에게 속았구나.

난감해 있는 일행 앞에 화염산 토지신이 나타난다. 화염산의 유래를 말해주는데, 손오공의 업보로다. 예전 손오공이 천상세계를 소란케 할 때 태상노군의 단로를 엎었는데 그 때 불기운 머금은 벽돌 한 장이 하계로 떨어져 지금의 화염산이 되었다 하네.

과거야 어쨌든, 누구의 업이든 이곳을 지나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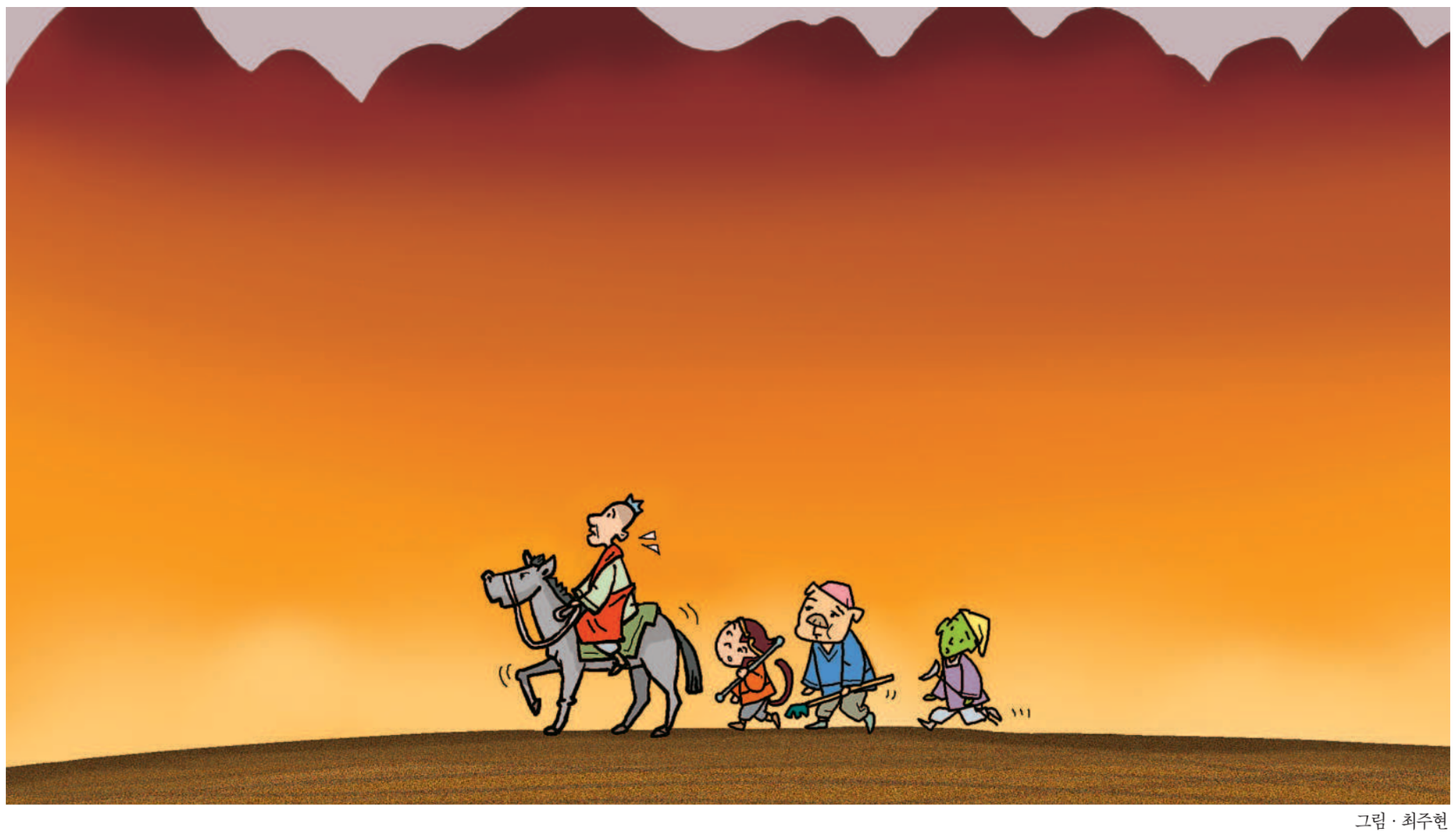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찰녀는 꼼짝도 않으니 그 남편인 우마왕 공략으로 돌아선다.

옥면공주가 사는 마운동이란 곳 찾아가 여차저차하여 우마왕을 만난다.

"형님! 그간 기체후일향만강하시옵나이까…. 사연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 형수님 설득하여 파초선 빌려 줍셔~"

부부는 한 마음이라 했던가? 씨알도 안 먹힌다.

"내 아들 괴롭히고, 내 마누라도 괴롭힌 이 나쁜 놈아!"

그래서 또 한바탕….

애초에 형 동생 하던 사이 쉽게 승부가 날 리 없다.

우마왕이 초대받은 곳이 있어 휴전하고 간 사이 손오공이 우마왕으로 변신하고 나찰녀 찾아간다.

오! 날 버리셨던 님이 오셨구나. 나찰녀 기쁨에 차서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결국 파초선도 빼주고….

낌새가 이상해서 급히 뒤쫓아 온 우마왕, 나찰녀한테 사연을 듣고 분노에 치를 떤다.

이놈의 원숭이 녀석!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마왕이 저팔계로 변신을 하여 손오공을 속이곤 파초선 도로 찾아가버리네.

그리고 다시 한바탕…. 자기로 변신했다고 화난 저팔계까지 힘껏 거드는데 그뿐인가? 천신들 총출동이다. 금강역사, 탁탑천왕, 나타태자, 기타 등등 왜 이러느냐구?

우마왕은 그냥 요괴가 아니란 말씀.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집착하는 고집을 상징하는 정말 위험한 요괴거든!

화염산은 손오공의 업보
우마왕 업이 '진화' 막아
수행정진 만이 '업장' 해소

가장 무서운 것은 비슷한데 잘못된 것, 바로 사이비(似而非) 아니겠어? 바로 사이비 진리의 상징 요괴 우마왕! 그래서 온갖 천신들 와르르 소몰이꾼으로 나서니 아무리 대단한 우마왕이라도 당할 길에 없다.

"살려 주십시오. 모든 걸 뉘우치고 불문에 귀의하겠습니다."

남편에 대한 일편단심 변함없는 나찰녀, 파초선 가지고 나와 애끓는 하소연….

"저희 부부를 살려 주소서…."

그러니 어쩌겠나. 본디 형님, 형수님이었던 데다 신선의 길에서 잠시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인걸! 파초선 빌어 화염산 불을 완전히 꺼버려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시 올바른 길 찾아 힘차게 나선다.

정도를 걷는 이에게 돌아가는 길은 없나니 아무리 힘든 난관도 샛길 찾지 않고 당당히 뚫고 나가는 그 모습!

역시 정도로 돌아선 우마왕, 나찰녀 부부가 배웅하누나.

엄청 복잡한 뒷이야기 정리하고 요약을 했는데도 좀 길어졌네요. 서유기에서도 유명한 대목, 화염산과 우마왕 이야기군요. 실크로드 중간에 실제로 화염산이란 지역이 있어서 더더욱 이 이야기가 친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화염산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요?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지역이지요? 자동차 보닛에 계란 깨어 올리면 금방 계란 프라이가 되어버리는 지역! 그곳이 바로 화염산입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유사하라든가 통천하 같은 것들도 지리적인 장애와 연관되어 있겠지만, 특히 이 화염산은 분명하게도 뜨겁고도 뜨거운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나온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일 년 평균 강수량이 30mm를 넘지 않는 지역, 그러면서도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어서는 곳이지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힐 듯한 곳 아닙니까?

그곳을 무거운 등짐지고 허위허위 넘었을 현장법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뭉클해지지요. 그분의 서원과 열정 덕분에 우리가 부처님의 은택을 입고 있다는 감사의 마음이 새록새록 우러나게 됩니다.

삼쾌선생은 이 화염산 지역에 참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여행에 나서 우르무치로 가는 여정에서 화염산을 지나게 되었지요. 정말 4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에 그 메마른 화염산 계곡을 이리저리 헤매 돌다, 헤매 돌다…. 다시 나와서 원주민들이 불어주는 토속 악기 소리에 맞춰 흥겹게 춤도 한바탕 추고…. 그건 다 좋은데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다들 축축 늘어져 집결 장소에 모였는데…. 아 글세 거기에 놓여있는 커다란 수박 덩어리! 럭비공 모양의 길쭉한 수박, 우리나라 수박보다는 훨씬 더 큰 수박, 그것을 냉장했다가 꺼내 썰어 놓고 있더란 말씀이지요. 비가 거의 안 오고 햇살은 뜨겁디 뜨거운 그곳 과일이 얼마나 달겠어요? 거기에 시원하게 냉장을 한 것이니,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져 비틀거리며 온 우리들에게 정말 천국과 같은 맛이었을 것이 틀림없었겠죠? 제 평생이 그렇게 달고 시원한 수박은 처음 먹었다고 서슴치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했더니 모든 일행들이 다 자기도 그렇다고 하더군요. 평생에 가장 맛있는 수박을 먹었던 곳, 그곳이 바로 화염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장법사는 그 맛있는 수박도 못 드셨겠지요? 아마도 수박이라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수박을 서과(西瓜)라 하는데, '서양 오이'라는 의미지요. 아마도 오이가 일찍 들어오고 다음에 수박이 들어와서 서양 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대개 고려 시대에 들어왔다고 하니, 중국이 그보다 좀 빨랐을지는 몰라도 당대(唐代)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현장법사는 냉장한 수박은커녕 그냥 수박도 못 드셨을 겁니다요.

애구, 수박도 못 드시고 고생하시며 그 험하고 뜨거운 길을 걸으셨을 현장법사님을 생각하며 모두 묵념!

이크,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요. 묵념까지는 마시고 그냥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 가지면 되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그 뜨거운 화염산에 얽힌 현장법사 일행의 고난과 애환, 그것을 돌파하는 지혜와 용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껴주신 마음에 성우상사에서 국내 처음으로 거위털 두루마기와 동방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가볍고 따뜻하며 세탁시 물빨래 가능합니다. 구겨지지 않고 흡습, 발산 공기층의 형성으로 땀이 ;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전제품 거위솜털 800FP) (비구니, 비구스님 공용)


잔누비두루마기 88만원


반동방 68만원, 잔누비 73만원

불교 박람회 참여 업체
전국 방문 상담 가능

전제품 거위털
사이즈 M,L,XL,2XL

· 누비적삼 50만원
· 실내 저고리 23만원
· 속조끼 14만원
· 속바지 38만원
· 겉조끼 18만원
· 중량점퍼 35만원
· 복대 5만원
· 버선 8만원
· 공양앞치마 2만원
· 모자 9만 5천원
· 목도리 대 5만 5천원
· 목도리 중 2만 8천원
· 목워머 1만 6천원
· 휴대용 이불 M2 (105/148) 14만원
· 휴대용 싱글이불 겸 배낭 M3 (150/200) 28만원
· 사계절 이불 600g 55만원
420g 42만원
(이불 그램수 조절 가능)


땀이 차지 않습니다.
물수건으로 닦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람막이겸 비옷
바람막이 상의 18만원
바람막이 하의 11만원


사폭바지
굵은누비 50만원
잔누비 55만원


보살님용
3계절용
조끼 18만원
바지 36만원
색상선택 M/L/XL

성우상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19번지
로타리상가 B1층
대표번호 : 02-2679-2848
남성우 : 010-3707-7016

단추와 옷고름(선택) 맞춤도 가능하며 맞춤시 방문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namsungwoo.co.kr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국행수륙재


진관사국행수륙재에 내리는 산화락(散花落 ; 꽃비)

모시는 글

귀의삼보 하옵고,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인 진관사국행수륙재津寬寺國行水陸齋는 조선 태조임금이 수차례의 거동을 통해 수륙사水陸社를 건립하면서 이룩한 것으로 600년 역사를 지닌 서울의 유일한 국행수륙재입니다. 국행수륙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불교의식으로서 불교문화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있는 존재와 생명없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가없는 법의 은혜로움이 베풀어지는, 이 아름다운 법연法筵에 자리를 내어 청합니다.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주지 계호 합장

칠재 회향 1부 2016. 10. 8(土)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설정 큰스님 법문(오후 4시)
2부 2016. 10. 9(日)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 전화문의 : 02)359-8410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 주관 |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재청, 국립문화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림사 소실산 유봉 중턱에 있는 달마동 입구. 달마동은 길이 7m, 넓이 3m의 천연동굴이다. 이곳에서 달마 스님은 9년간 면벽했다.


달마 스님이 머물며 수행을 했다고 알려진 초조암. 이곳에는 육조 혜능이 달마 스님을 기리며 식수한 측백나무가 있다.


달마동과 초조암에 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소림사 고승들의 탑들. 일명 '탑림(塔林)'이라고 부른다.

달마 대사는 왜 소림굴서 9년 면벽했나

중국 선종사찰 순례 - ① 소림사上(면벽굴·초조암)

부리부리한 눈매의 서역 출신 승려가 양나라 황제인 무제 앞에 섰다. 평소 불교를 숭앙해 많은 불사를 일으키고 승려를 배출해 스스로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런 양무제가 물었다.

"내가 제왕이 된 후 무수한 절을 짓고 승려를 출가시켰다. 스님께선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승려는 "없다"고 즉시 답했다. 황제는 다시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무공덕."

답답한 황제는 "왜 나의 공덕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은 인천(人天)의 작은 복이니 유루(有漏)의 공덕이 될 뿐"이라고 답했다.

황제의 질문은 이어졌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실한 공덕이라는 말이냐?"

서역 승려의 대답은 간단했다. "맑은 지혜는 묘하게 밝아서 본체가 스스로 공적(空寂)하니 세상의 함이 있는 일(有爲之事)로는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양무제는 "그렇다면 나를 대하고 있는 당신은 무엇이냐"고 소리쳤다. 그러자 승려는 이렇게 말하고 황제와의 문답을 마친 후 사라졌다. "모릅니다.(不識)"

달마동에 오르다

당대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황제 앞에서 한 치 두려움없이 불교의 교설을 설하던 승려. 그가 바로 중국 선종 시작을 알린 보리달마(菩提達磨, ?~495) 스님이다. 그는 남천축 향지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 반야다라(般若多羅)를 만나 출가해 부처님 법을 배웠다. 스승 밑에서 공부한 보리달마는 유지에 따라 스승 입적 후 6~7년이 지난 뒤 중국으로 건너가 전법을 한다.

달마 스님은 양무제를 만나 문답을 나눈 뒤 북쪽의 위나라로 향했고, 곧 낙양에 도착했다. 이후 숭산 소림사에 머물면서 면벽 수행을 했다.

소림사에 주석하며 장장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했던 곳은 현재 '달마동(達磨洞)'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달마동은 소림사 소실산 유봉 중턱에 있는 길이 7m, 넓이 3m의 천연동굴이다.

소림사의 탑림을 지나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날 수 있다. 산 입구는 평탄한 길이지만, 몇 굽이를 돌아가면 곧바로 가파른 계단이 나온다. 솔직히 '악' 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 같은 계단 약 20분 가량을 올라가야 달마동을 만날 수 있다.

사실 달마동으로 오르는 길은 최근 SBS에서 방영한 주말 예능 '주먹쥐고 소림사'에서 김병만, 육중완 등 남자팀이 매일 무술 수련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 달마동을 오르던 시간이 약 오후 4시 가량이었는데 수련을 나온 어린이·청소년 무승(武僧)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어린 무승들은 빠르게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얼마 안가 지쳐 숨을 헐떡이는 어린 무승들도 있었다. 물론 필자 역시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쏟아지는 땀과 헐떡거림 속에서 절로 조선 중기 문신인 양사언(1517~ 1584)의 시조 한 구절이 떠올랐다.


달마동 내부에 있는 달마상. 사진촬영을 하면 바로 안내원의 제지를 받는다.

양무제를 피해 온 달마 스님
소림사서 머물며 면벽 수행
가파른 계단 올라야 가는 곳
어린 武僧 오르며 심신 단련
복원위해 닫은 초조암 아쉬워

'태산(泰山)이 높다 하지만 하늘 아래 산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스스로 오르지 않고 산만 높다 하는구나.'

몇 번을 '가다 쉬다'를 반복하며 오르다 보면 드디어 달마동에 도착하게 된다. 숨을 몰아 쉬며 입구에 다다르니 중국인 관광객과 신도, 무승들이 한데 모여 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달마동, 일명 달마대사 9년 면벽굴 앞에 섰다. 입구 안에 들어서면 총천연색 가사를 입고 있는 달마 스님이 봉안돼 있다. 1명 정도가 들어서 참배를 올릴 수 있는 곳. 이곳에서 달마 스님은 장장 9년을 면벽 수행을 했다. 왜 9년의 기간 동안 달마는 굴 속에서 면벽을 했을까?

일반적으로는 법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된 제자를 만나지 못하면 혼자 죽을 각오까지 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법을 얻기 위해 나타난 사람이 중국 선종의 2조 혜가(慧可)였다. 소위 '안심법문'으로 잘 알려진 일화는 달마동 면벽굴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달마 스님의 9년 면벽은 간화선의 공안이기도 하다. 달마의 '9년 면벽'에 대해 자명 선사는 "풍년인데 소득이 없었다", 양기 선사는 "서천사람이 중국말을 몰랐다"고 답했다. 어쩌면 달마가 행한 9년 면벽 진의는 참구하는 수행자만이 풀 수 있는 화두일지 모르겠다.

문을 닫아 아쉬웠던 초조암

달마동을 오르든 내려오든 만날 수 있는 곳이 '초조암(初祖庵)'이다. 초조암의 이름은 중국 선종의 초조인 달마 스님이 수행했던 곳이어서 붙여졌다. 달마동을 뒤로하고 내려와 초조암을 찾았다. 현지 가이드는 초조암이 곧 복원·보수 예정이어서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직접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초조암에서 꼭 봐야하는 것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초조암의 주전인 대전(大殿)이다. 대전은 북송시대에 세워졌으며, 초조암이라는 이름답게 달마상이 봉안돼 있다. 또한 동벽, 북벽, 서벽으로 혜가, 승찬, 도신, 홍인 스님 등 23명의 스님들의 진영들이 그려져 있다.

대전 건물의 기둥도 이색적이라고 한다. 기둥에는 인물상, 공양상, 꽃과 산수 등이 부조로 표현돼 있다.

두 번째는 대전 앞에 있는 커다란 측백나무다. 이는 육조 혜능 스님이 소림사에 참배하러 왔다가 초조암에 와서 달마 스님을 흠모하면서 식수한 나무라고 전해진다. 대전 앞 측백나무를 '육조수식백(六祖手植柏)'라고 하며,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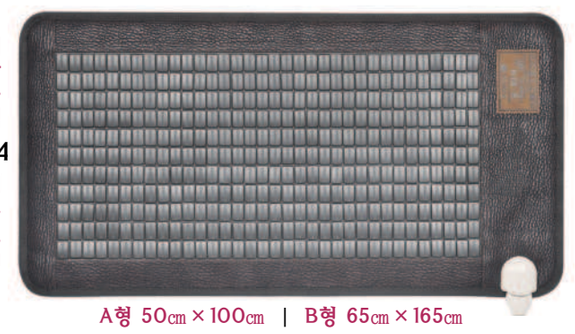
지금의 달마동 9년 면벽굴의 달마상은 뒤편의 벽이 아닌 찾아오는 참배객을 보고 있다. 자신의 팔을 잘라서라도 깨달음을 얻으려 한 넓은 선기(禪器)를 지닌 제2의 혜거를 기다리는지, 탁한 사바세계를 경책하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다.

초조암을 나와 소림사로 향하니 수많은 선사들의 탑들이 펼쳐진다. 중국 선종 초조 달마의 후예들이다. 유구한 선(禪)의 역사를 지켜왔던 선지식들이다. 과연 현대의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법을, 달마의 법을 세상에 잘 담아내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음을 던져본다.

중국 숭산=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100㎝ | B형 65㎝×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마음으로 보라”… 어린왕자, 화두를 던지다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⑥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고전인 〈어린왕자〉는 총 3차례에 걸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프랑스에게 제작된 애니메이션 〈어린왕자〉의 스틸컷. 어린왕자가 여우를 만나는 장면이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동화적인 소설이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다. 이것은 문장이 시적인 서정성과 리듬감으로 물결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저자가 책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어른들이 깊은 생각으로 삶을 반추하여 어린 왕자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이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 즉 육안(肉眼)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구경(究竟)에는 나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자전적인 체험소설이다.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난 생텍쥐페리는 1, 2차 세계대전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초창기의 비행기 조종사이다. 그는 두 차례의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생명의 본질을 깊이 생각했다. 당시 시속 100km라는 느린 비행속도는 공중에서 지상의 사물들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지녔던 평면적인 안목과 사고가 입체적이고 수직적인 인식으로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되었다. 여기에 불안전한 기계로 설비된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비행 노선을 개척하느라 7000m의 높은 산맥을 넘고 때론 광활한 사막을 지나며 수없는 죽음과 대치하면서 인간의 한계상황과 이것을 뛰어넘는 정신세계를 자각하게 되었다. 생텍쥐페리는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남방 우편기〉 〈야간비행〉 〈인간의 대지〉 〈전시조종사〉 〈어느 인질에게 보내는 편지〉 〈어린왕자〉 〈성채〉등의 작품을 남겼다.

특히 〈어린왕자〉는 생텍쥐페리가 사하라사막에 불시착하여 부서진 비행기와 식수 부족 그리고 고독감으로 죽음과 대치하는 가운데 구출되는 극적인 체험을 통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자각의 체험기이다. 그런데 이 체험 소설에는 서양의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닌 동양의 직관적인 사유의 불교 사상이 담겨있다. 이것은 생텍쥐페리가 인간의 마음을 중요시하고 그것에 모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체의 모든 형상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 마음의 투사를 그림자로 인식하는데 이것은 불교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사상과 일치한다. 그는 마음의 눈으로 삼라만상 일체가 분별이 없음을 깨닫고,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라는 불성(佛性)을 증득함으로써 생과 사를 초극하게 된다.

이것은 직관적인 인식, 즉 개오(開悟)의 경지에서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텍쥐페리는 어떻게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었을까? 그는 명상을 통하여 직관의 경지에 이르렀다. 생텍쥐페리의 비좁은 조종실은 비행을 수행하는 장소인 동시에 명상의 장소였다. 그의 명상은 보통 사람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공간 속에서 죽음과 대치하는 고독한 구도자의 삼매라고 할 수 있다.

깊은 명상의 체험 속에서 모든 두뇌작용과 인지작용이 정지되면 일체가 개념적인 사고를 거치지 않고 그냥 경험된다. 그 순간, 내부로부터 관조가 가능하여 고공비행을 하면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지상세계의 진면목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고공과 저공을 넘나들면서 비행하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사물의 신비를 체험하면서 현실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참모습을 조망하게 된다.

이것은 불교의 선(禪)과 같은 경지이다. 생텍쥐페리는 깊은 명상을 통하여 우주의 실상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행동과 사고, 꿈과 사고의 분리를 거부했으며 이 몽상의 흔적은 그의 모든 작품 속에 어김없이 나타난다.

〈어린 왕자〉도 예외는 아니다. 생텍쥐페리는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과 갈증과 고독으로 인하여 심신이 완전히 탈진하여 절대적 한계 상황에서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들어 가사상태에 이르렀다. 인간은 이러한 죽음 앞에서는 그동안 쓰고 살았던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고 원초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그 순간은 모든 감각기관이나 두뇌 작용을 통한 인식은 정지 상태에 이르며 의식의 주체는 깊은 무의식 세계로 빠져든다. 그리고 존재의 실상은 이 순간에 드러난다. 생텍쥐페리가 무의식의 심층에 빠져들었을 때 어린왕자가 그를 깨웠다. 생텍쥐페리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적었다.

“나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나는 눈을 비볐다. 나는 주의 깊게 살폈다.”

이때 생텍쥐페리가 벼락에 맞은 것처럼 놀라 일어났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 표면의식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식을 넘어 더 깊은 초의식으로 나아간 것이다. 생텍쥐페리가 눈을 비비고 자세히 바라보는 순간은 무의식 세계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 순수세계와 합일하여 존재의 실상을 보는 순간이다. 그때 나타난 어린왕자는 생텍쥐페리의 심층에 숨어있던 진아(眞我)가 드러난 것으로, 곧 자신의 화신(化身)이다.

어린 왕자와 생텍쥐페리와의 대화는 선문답(禪問答)이다. 선(禪)이란 언어나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 그 자체를 직시하여 내부의 실체를 바로 보는 것이다. 즉 의식의 껍질을 벗고 마음의 눈으로 실상의 진여를 아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어린 왕자〉는 ‘마음’에 관한 화두를 독자에게 수없이 안겨주지만 그 중 몇 개만 살펴본다.

생텍쥐페리의 자전적 체험 소설
조종사와 어린왕자 선문답 ‘눈길’
인식 한계 · 근원에 대한 질문 던져

코끼리 삼킨 보아뱀 · 상자 속 羊 등
禪的 기제들 ‘心眼으로 보라’ 강조
구도 마친 어린왕자, 자기 별 귀향
육신 벗어나 정각 이룬 선지식 흡사

비행기 조종사는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의 부탁에 병들고, 뿔나고, 늙은 양을 그려준다. 이것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양들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오래 사는 양을 갖고 싶다고 한다. 즉 어린 왕자는 사고(四苦)를 해탈하여 변하지 않는 불성이 깃든 양을 요구한 것이다.

생텍쥐페리가 이번에는 작은 구멍을 뚫은 네모 상자를 그려서 양이 그 안에 있다며 건네준다. 그러자 어린왕자는 자기가 원했던 그림이라면서 “저런 양이 잠들었네”라고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마음의 눈을 뜬 선지식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어린 왕자〉의 1장에도 나온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시절에 코끼리를 통째로 삼켜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그렸는데 어른들은 그림의 겉모습만 보고 모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어린 생텍쥐페리가 보아뱀의 안을 그리든 밖을 그리든 그림을 제쳐 두고 대신 지리, 역사, 수학, 문법에 전념하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어른들은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육체적인 욕망이나 물질적인 것에 애착을 갖는다. 이러한 욕망이나 애착은 내가 존재한다는 망상 때문에 일어난다. 나라는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변하므로 실체가 없는 무아(無我)인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아뱀 안에 있는 코끼리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외형이 실체인 줄 알고 살아간다.

〈어린 왕자〉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어린 왕자와 여우와의 만남이다. 여우가 주는 교훈은 ‘관계를 맺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망각한 존재의 근원을 찾는 가르침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화엄의 세계라면 ‘마음으로 보는 것’은 내면으로 침잠하여 불성의 세계를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우는 ‘잘 보려면 오직 마음으로 봐야 잘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심안(心眼)으로 보는 것이다. 육체에는 실제적인 나(我)가 없는데 육신의 눈으로 만물을 보고 파악하는 것은 허상이 허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의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나(我)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마음의 눈은 무아(無我)의 상태에서 열린다. 이때 논리적인 언어는 사라지고 마음의 언어가 창출된다. 이것이 바로 우주와 존재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며 원형의 소리가 피어나는 것이다. 존재의 근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분열된 언어를 초월하여 마음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꽃과 뱀과 여우를 비롯하여 모든 자연물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범아일여(梵我一如)의 마음 때문이다. 그중 여우와의 대화에서 여우는 어린왕자에게 언어의 모순과 불완전성을 이렇게 이야기 한다. “언어는 오해의 원천”이라고.

의식을 초월한 무아의 상태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논리적 언어와 관념의 허구성은 자연스럽게 파기되어 있는 그대로의 불성을 그대로 보게 된다.

생텍쥐페리는 사막에서 비축해둔 물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갈증으로 죽게 되어 우물을 찾아 나서면서 어린 왕자에게 너도 갈증이 나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물은 마음에도 좋을 수 있잖아요”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한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도착한 곳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대도시가 아니라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이다. 이런 사막을 벗어나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갈증과 고독, 공허와 침묵을 몸소 겪으며 이겨 내야한다. 사막은 모래가 펼쳐진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닌 번뇌와 탐진치(貪瞋痴)의 삼독을 안고 살아가는 일상의 한복판이면서 또한 명상을 하고 의식을 고양시키는 구도의 장소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생텍쥐페리가 사하라 사막에서 찾은 우물은 도르래와 두레박이 달린 마을의 우물이었으나 놀랍게도 마을은 없었다. 우물은 언제나 마을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은 눈 뜬 장님처럼 우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우물은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있다. 우물은 내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지만 자아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외부에서 그것을 찾으려 한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물은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고 마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모든 생명은 목숨을 잃게 된다. 물은 생명이다. 물은 바로 불성(佛性)이다. 진여(眞如)는 의식의 껍질을 벗고 마음의 때를 벗겨 심안(心眼)이 열릴 때 오롯이 드러난다.

생텍쥐페리가 이와 같이 어린 왕자를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한 것은 그가 어린 시절로의 회귀를 열망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린 시절에 근원을 두고, 그 뿌리는 더 깊은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탯줄로 이어진 우주와의 합일이며, 자의식이나 개체의식이 생성되기 이전, 전체의식으로의 회귀이다. 유(有)와 무(無)의 분별이 없는 절대무(絶對無)의 진공(眞空), 이곳에 생과 사의 분별은 없다. 현상계의 모든 상대성을 벗어난 절대 무애한 경지에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이다.

어린 왕자는 〈화엄경〉의 선재동자처럼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찾는 구도(求道)의 여행을 마치고 존재의 근원인 그의 별로 돌아간다. 생텍쥐페리 역시 죽음을 통하여 생사를 초월한 해탈의 경지를 보여준다. 1944년 5월 31일, 그는 약속 받은 5회보다 더 많은 8회 출격을 마친 상태였지만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나간 마지막 정찰 비행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산화(散華)했다.

“나는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어린 왕자의 말처럼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육체의 옷을 벗은 진여의 생텍쥐페리를 다시 바라본다.



송마나 수필가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80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채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전생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개인상담 및 공 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청강 후 등록 가능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산문 밖의 禪

신현득 불교아동문학가
(83·前 한국불교아동문학회 회장)



신현득 작가는… 1933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다.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소년한국일보에서 취재부장으로 일했다. 단국대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를 마쳤으며,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강사와 한양여자대학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서울예대 아동문학론 강사 등을 지냈다. 새싹회 3대 이사장과 한국불교아동문학회 회장을 지냈다. 1959년 '문구멍' 동시로 조선일보 신춘문예 등단했고 평생 동시와 불교동화를 쓰고 있다. 1971년 세종아동문학상과, 1994년 방정환 문학상, 2003년 윤동주 문학상, 2011년 윤석중 문학상을 수상했다. 〈참새네 말 참새네 글〉, 〈어린이 팔만대장경 1,2,3〉, 〈소리 내는 탑〉, 〈슬기의 왕자〉 등의 저서가 있다.

아이들의 40년 '아난다' …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如是我聞)"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쓰고 있는 부처님의 팔만법문은 아득한 시절, 그렇게 시작됐다. 그 시작은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 불리는 아난다의 육성이었다.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정확하게 기억했고 분명하게 전했던 아난다. 그의 정성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처럼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팔만법문을 모두 독파하고 아난다의 길을 가고 있는 이가 있다. 그것도 시대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여시아문"하고 있는 이가 있다. 40여 년 동안 아동문학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前 한국불교아동문학회 회장 신현득 작가이다.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원망으로 시작된 불연

신현득, 그는 '퐁당퐁당', '고추 먹고 맴맴' 등 1200여 편의 동시를 짓고 800여 편의 동요를 낳은 한국 아동문학의 아버지 윤석중 작가의 뒤를 잇는 한국 아동문학의 큰 줄기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인 1933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다. 어려운 시절이었다. 가세가 온전한 집안이 있을 수 없는 시절이었다. 그의 집안도 일제의 수탈을 피해갈 수 없었다. 아쉽지 않았던 가세는 점점 기울었다. 그가 열 살이 되던 해였다. 그의 모친이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9남매 중 4남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난다. 한참 동심의 마당에서 뛰놀아야 할 소년 신현득은 어머니가 그리웠다. 그리고 그 그리움의 반대편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의 부친은 삭발염의만 하지 않았을 뿐 생활은 거의 출가자였다. 집안보다는 절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고 식구를 챙기는 시간보다는 불경을 외는 시간이 더 많았다. 신 작가의 부친은 신 작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일찍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았다. 집에 돌아와 있어도 마음은 늘 산문에 있었다. 신 작가는 힘겨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아버지가 입에 달고 사는 뜻 모를 불경이 또한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신 작가는 알지 못했다. 그 원망스러운 문장들이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훗날 자신이 평생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아난다의 육성이었다는 것을. 신 작가의 불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문학, 아버지 그리고 불교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동사무소 급사로 취직한다. 배움에 대한 아쉬움이었을까. 그는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다. 그는 곁에 있는 책들을 보이는 대로 읽었다. 그리고 그는 책 속에서 '문학'을 발견한다. 시를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배움의 열망을 이어간다. 그는 병산중학교를 거쳐 안동사범학교에 진학한다. 그의 문학에 대한 모색은 소설쓰기로 이어졌다.

문학에 대한 꿈을 키워가던 그 때, 그는 성경을 접하게 된다. 당시의 시대상이 그랬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니며 성경을 배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하지만 신 작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시대의 보편적 상황과 이별한다.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는 성경과 점점 멀어졌다. 왠지 자신의 정서와 맞지 않았다. 그는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 마을인 중률초등학교를 거쳐 상주초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게 되는데, 그 무렵부터 그는 서양의 정서인 성경 대신 유교경전과 불교경전을 읽기 시작한다. 그는 〈금강경〉, 〈천수경〉 등을 읽으면서 그 문장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토록 원망했던 그 옛날의 문장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옛날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그 문장에 의지했던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 신 작가는 원망했던 아버지를 조금씩 다시 생각하게 됐고, 아버지가 매달렸던 그 문장들에 빠져들어 가면서 어느 새 탄탄한 불자가 되어갔다.

동심은 불성…어린이법회 창립

"늘 아이들과 있다 보니 언제부턴가 나의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언젠가는 삶이 아이들의 동심을

새싹 문학포교에 관심갖다

1959년 동시 '문구멍'으로 등단
1982년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창립
상주포교당서 어린이법회 조직

경전서 불교아동문학을 보다

〈본생경〉 읽고 불교동화집 발간
첫 작품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가져갈 테지만 그 아름다운 시절에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문학과 불교였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시절을 맡는다. 매일같이 아이들 속에서 살다보니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 힘든 시절을 사느라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던 동심, 신 작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언젠가 어른이 될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신 작가는 아이들이 동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에게 동시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자신도 동시를 쓰기 시작한다.

"동심은 곧 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심을 잃지 않는 것은 불성을 잃지 않는 것이지요. 아이들에게 문학과 더불어 부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신 작가는 당시 상주포교당 주지 스님을 찾아간다. 그는 어린이회를 조직하고 일요법회를 열어 아이들을 부처님 곁으로 부른다. 그리고 경전 속에서 아이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골라 법회에 모인 아이들에게 마치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듯 들려주기 시작한다. "여시아문"

〈본생경〉을 만나다

"빠꼼 빠꼼 / 문구멍이 / 높아간다. // 아이 키가 / 큰다."

신 작가는 상주초등학교 재직 시절인 1959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 부문에서 '문구멍'으로 등단하며 아동문학가로서의 본격적인 삶을 시작한다. 그리고 1961년, 그는 첫 번째 동시집 〈아기눈〉을 출간하며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신 작가는 김종상, 박경용, 조유로 작가 등과 함께 한국 동시문학의 전성기를 열어간다. 그러던 1975년 여름, 그는 20여 년간 잡았던 교편을 놓고 소년한국일보에 입사한다.

신 작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시를 가르치고 포교당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한 번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는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자신의 학교 아이들과 마을 포교당에서 만나는 아이들로 그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신 작가는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동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깨끗한 글과 동심과 한 가지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자라나기를 바랐던 것이다.

신문사의 일은 학교 교사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바빴지만 그는 그 자신 또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원불교대학에 입학해 불교 공부를 이어간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전기를 맞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방대하고 그 속에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본생경〉을 본 순간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본생경〉 자체가 한 권의 동화집이었죠. 세계 아동문학사에서 〈본생경〉을 세계 최초의 동화집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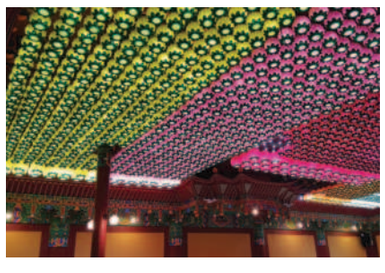
그렇다. 〈본생경〉은 세계 최초의 동화집이다. 우리나라 고대소설인 〈두껍전〉, 〈토끼전〉, 〈옹고집전〉의 원형도 〈본생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부족한 공부를 채우기 위해 입학한 대원불교대학에서 〈본생경〉을 보게 됐고, 그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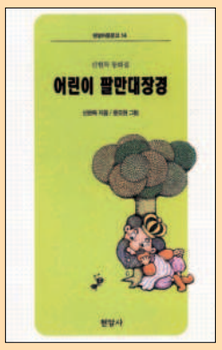
“팔만대장경은 동화의 寶庫”

〈보고〉











① ② ③ ④ ⑤

① 1980년 봄, 소파 방정환 선생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 왼쪽부터 동화구연가 이해창 씨, 소파의 장남 방운용 씨, 신현득 씨.
② 아동문학 평론사 주최, 소파 묘소 참배 대학생 동시쓰기 백일장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신현득 씨(사진 첫째 줄 왼쪽 첫 번째)
③ 2012년 제29회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주관 한국불교아동문학상 시상식 모습
④ 신현득 作 〈슬기의왕자〉
⑤ 신현득 作 〈어린이 팔만대장경〉

속에 무궁무진한 동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본생경〉을 시작으로 〈팔만대장경〉 속의 경전을 한 권 한 권 읽어 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로만 들려주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동화로 만들어야겠다고 발심한다. 그는 동화로 엮을 부분을 고르고 정리하면서 〈팔만대장경〉을 모두 읽는데 꼬박 3년이 걸렸다.

“〈본생경〉을 비롯해서 〈팔만대장경〉 속에는 수 천 편의 동화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모아 책으로 만들면 아마 책 100 권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팔만대장경〉은 동화의 보고입니다.”

本격 불교동화집 〈어린이 팔만대장경〉 출간

〈본생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동화를 발견한 신 작가의 마음은 마치 금맥을 찾은 광부의 마음과 같았다. 불교만 가지고도 아동문학의 커다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동문학 중에서도 ‘불교아동문학’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신 작가는 이 원력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1982년, 그는 석주 스님의 도움을 얻어 사범대 동문인 김종상과 수필가 김진식, 시조시인 진우스님 등과 함께 한국불교아동문학회를 창립한다. 원로 김동리 선생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본격적으로 불교아동문학이라는 큰 집을 짓고 싶었어요. 타종교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각종 책자와 교재를 발간하며 선교에 힘쓰는데 반해 불교는 제대로 된 아동용 교재 한 권이 없었어요. 저 개인의 원력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 해, 그는 마침내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라는 그의 첫 불교동화집을 발간해 교계와 아동문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다. 그리고 1989년, 신 작가는 불교동화 작업에 매진하기 위해 소년한국일보를 그만 둔다. 〈팔만대장경〉 속에서 동화책 100 권을 본 신 작가로서는 시간이 너무 모자랐던 것이다.

童心에 부처님 가르침을 담다

3년여 동안 〈팔만대장경〉 독파
1991년 〈어린이 팔만대장경〉 발간

1991년 그는 드디어 〈본생경〉에서 가려 뽑은 이야기로 재구성한 본격 불교동화집 〈어린이 팔만대장경〉을 발간한다. ‘구덩이에 빠진 대왕님 이야기’, ‘임금님은 알아들어요’, ‘야차와 재채기’ 등 33편의 동화와 ‘불교에서 쓰는 낱말풀이’로 엮은 〈어린이 팔만대장경〉은 아이들 마음에 지혜와 불성을 심어주는 부처님 말씀이 누구보다 동심을 소중히 생각하는 신현득만의 언어로 새롭게 그려져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그대로 살려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다. 〈어린이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요지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동화로 그려내 아이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다. 쉬운 언어를 쓰면서도 부처님의 깊은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신현득 작가가 한국 아동문학과 불교아동문학의 큰 줄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것은 동심에 대한 깊은 관심과 불교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후 〈어린이 팔만대장경2, 3권〉을 비롯해 〈부처님 말씀 이야기 바다〉 〈잠자는 부처님〉 〈날아다니는 목련존자〉 〈슬기의 왕자〉등을 연이어 발표한다. 지금까지 그는 동시집 30여 권과 동화집 20여 권을 출간했다. 동시집 30여 권 속의 1000편이 넘는 동시 속에는 ‘가야산’, ‘아기 왕자가 나던 날’ 등 그의 불교적 상상력이 이끌어낸 불가적 동시들이 함께 있고, 20여 권의 동화집 속에는 11권의 불교동화집이 있으며, 그 불교동화집은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에서 온 것이다.

“불교동화 출간은 중대한 미래 불사”

“10년 전에 탈고한 〈부처님 이야기 365일〉을 아직도 출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간 발간되는 아동문학집의 절반이 자비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불교아동문학집의 출간 역시 힘든 상황이지요. 경전속의 부처님 말씀을 불교동화집으로 만드는 일은 단순한 출판이 아닙니다. 불교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작가는 책 100 권 중에서 이제 겨우 몇 권의 책을 낸 것이라며, 불교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불교동화집 출간은 중단할 수 없는 불사 중의 불사라고 했다. 아울러 교계와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동시와 동화를 쓰기 위해선 동심을 잃지 않아야 해요. 동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물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의 나무와 이야기 할 수 있고, 풀숲 벌레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에 불성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심은 곧 불성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십을 넘긴 신 작가는 아직도 동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동심을 잃지 않는 것은 곧 불성을 잃지 않는 일이라며 그것은 동화작가로서뿐 만 아니라 불자로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 동화를 쓴다고 했다. 그 옛날 칠엽굴에서 아난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 전했듯이 신 작가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이야기를 해맑은 동심으로 암송하고 있다.

전법일기

“하면 된다, 될 때까지!”

“스님, 오늘은 바깥이 아니고 실내입니다.”

그동안 조계종 사회노동실천위원회가 출범한 후 대부분의 활동은 현장 내지 야외에서 이루어졌다. 그때마다 불교계를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천위원스님들의 이름과 얼굴, 활동내용들이 공개되었다. 그러자 이런 활동을 긍정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보다 ‘스님들이 정치적으로 뭐하느냐?’ 부터 ‘보여주기식 이벤트 좀 그만하고 본분으로 돌아가세요!’ ‘결국 되지도 않을 것인데 너무 애쓰지 마세요…’ 등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실천위원스님들은 각종 이익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소도 불사하기에 자칫 하면 위원회 활동이 특정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또 그 일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무관심한 이들이나 특정 배타적 타종교인들은 미간을 찌푸리기 일쑤였다.

직책 그대로 실천위원스님들은 현장서 민중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기도와 정진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밝은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어수선할 수 있고, 특히 발언(매 모임 때마다 한두 분의 스님께서 모임취지나 목적 등에 대한 의견과 소회를 피력하는 의식)을 서로 사이좋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비가 덜됐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실천위원회가 주변의 잡음 때문에 시작도 못해보고 해체될 것 인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처음 시작은 늘 설레고 힘듭니다. 힘냅시다”라는 말로 서로를 다독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신상의 문제와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몇 분들은 탈퇴의사까지 내비쳤다. 그리고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법회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올 초 20명 내외로 시작했던 실천위원스님들은 반년이 조금 지나자 절반으로 줄었다. 물론 대부분의 실천위원스님들은 지방에 있는 사찰에서 소임을 맞고 있어 시간내기가 쉽지 않고, 그런 스님들의 배려 차원에서 모든 모임에 강제성 없이 자율적으로 참석하며 참석여부만 미리 공지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과 상황 이전에 실천위원스님들의 실천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회인원이야 상황에 따라 조금 늘고 줄어들 수 있으나 스님 한 분만이 참석하더라도 20여 명 스님들 마음과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불보살님들과 사부대중을 포함한다면 소위 일당백 아니 천, 백, 만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실천위원스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당당하게 행동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급선무다. 스스로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이해시킬 수 없다. 수행자의 근본은 수행이므로 지금 하는 일들이 수행이라는 이론적 근거가 확실할 때만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혹여 흔들리더라도 재빨리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원만한 실천을 위해서 이론을 돌아볼 기회, 그것이 바로 사회관련 세미나나 토론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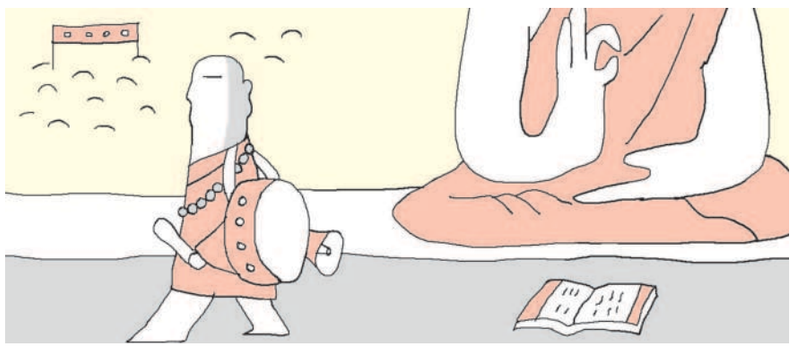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작은 나로부터의 자유와 큰 나로서의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수행이론을 근본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설득의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토론회를 통해 매번 보여주었다. 지금 하는 일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고 모나지 않게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변할 것이고, 이 글을 보는 스님들과 사부대중의 시선이 우려와 냉소에서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다. 성취될 때까지 계속하면 될 테니까!



고금 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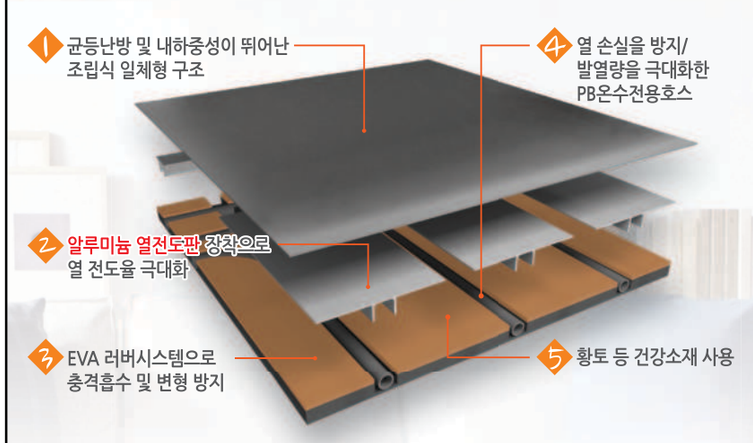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뜨시고 따시고
스님, 불자님
이제 연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조달청등록기업
MBC, KBS 방송광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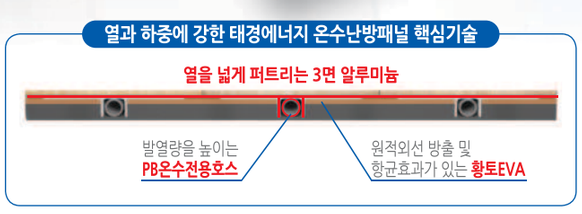
난방비 50% 이상 절감 / 반영구적 수명
내하중성 최고 / 전자파 Z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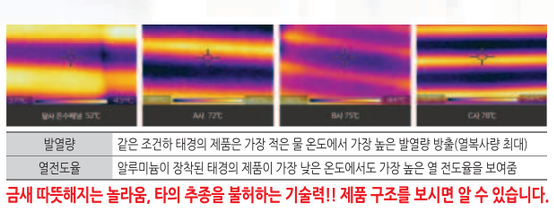




01 황토발포단열 EVA 사용
02 업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56%,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03 알루미늄을 이용한 방열식 온수난방패널 (특허 10-1386923호)
04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05 난방비 50% 이상 절감 (45℃ 이하의 저온수 난방 제품)

열과 하중에 강한 태경에너지 온수난방패널 핵심기술





발열량	같은 조건하 태경의 제품은 가장 적은 물 온도에서 가장 높은 발열량 방출(열복사량 최대)
열전도율	알루미늄이 장착된 태경의 제품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가장 높은 열 전도율을 보여줌

금새 따뜻해지는 놀라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 제품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태경에너지 TAEKYUNG 온수온돌판넬 전문기업

대리점 및 제품구입문의 1833-8404 www.태경에너지.kr

가스, 전기, 기름보일러 등 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

기신론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을 '마명론'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은 저자가 마명이기 때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마명(馬鳴:Asvaghosa)이 어느 마명인지가 정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 이설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신론의 저자라고 믿어온 마명의 활동시기를 100~150년으로 본다. 그는 원래 브라만 출신의 대학자로 총명함이 널리 알려졌던 사람인데, 당시 인도의 학문중심지였던 마가다 지방의 여러 도시에서 불교학자들과 논쟁을 벌인 끝에 패배하고 불교에 귀의했다고 한다.

조사 전법 법맥에 서천 12조로 되어 있으며, 부나야사(富那夜奢)의 제자로 되어 있는데 일설에는 협존자(脇尊者)의 제자였다고 한다. 또한 그는 당시 유명한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카니슈카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신론의 저자인 마명과 시인 마명이 동명이인이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에는 6명의 마명이 있었다고 하며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에는 2명이 마명이 있었다고 한다. 저자가 마명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저서에는 〈불소행찬(佛所行讚)〉과 손타라난타가 미인 부인을 두었으나 아름다운 부인에 대한 애착을 끊고 출가를 해 도를 이루는 과정을 서술한 서사시 〈손타라난타시(孫陀羅難陀詩)〉가 있는데 이 두 저서는 기신론의 저자와 다른 시인 마명의 저작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신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기신론이 인도에서 저술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찬술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이에 대한 논쟁도 있었던 것이다. 이는 주로 일본의 불교학자와 중국의 불교학자 사이에 있었다. 특히 중국에서 근대 신불교 운동을 주도했던 양문회(楊文會:1837~1911)와 구양경무(歐陽竟無:1871~1943), 태허(太虛:1889~1947) 스님 등의 활동시기에 기신론을 둘러싼 다각적인 주장이 나와 논쟁이 한층 가열되었다.

양문회는 '중국불교 부흥운동의 아버지'로 칭송된 인물이었는데, 그는 일찍이 기신론을 읽어본 것을 계기로 불교연구에 몰두하여 후에 불교경전을 간행하는 등 불교사상을 선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영국에 가서 막스 뮐러(Max Muller:1823~1900)를 만난 적이 있었고 일본의 학자 난죠분유(南條文雄:1849~1927)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류하여 불교 관계 전적들의 많은 자료들을 입수하기도 하였다.

기신론의 다른 이름 '마명론' 저자 대한 다양한 異說 존재

양문회의 사상은 바로 기신론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중국에 와 있던 영국인 선교사 리차드 티몬시(Richard Timohthy:1845~1919)에게 기신론을 선물하고 이를 영역하게 하여 1907년에 상하이에서 기신론 영역본이 나오게 하기까지 하였다.

양문회는 기신론이 불교를 배우는 최적의 입문서이고, 교문(敎門)과 종문(宗門)을 회통하고 여러 경전들을 통섭하여 포괄하는 대승불교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능엄경〉, 〈능가경〉, 〈화엄경〉, 〈법화경〉 등 대승경전이 기신론을 통달하면 저절로 쉽게 이해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미 많이 알려진 기신론의 3대 소인 혜원의 〈기신론의소〉와 원효의 〈기신론해동소〉, 그리고 법장의 〈기신론의기〉뿐만 아니라 명나라 때 진계가 지은 〈기신론찬주〉와 덕청이 지은 〈기신론 직해〉, 지욱이 지은 〈기신론열망소〉 등을 간행하였고 만년에는 수집한 각종 기신론 주소를 모아 〈대승기신론 소해회집〉을 간행하였다.

저자 마명(馬鳴)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현수소(賢首疏)〉에서는 마명이 태어났을 때 말이 감동하여 울었으므로 마명이라 했다는 설과 마명이 거문고를 잘 탔는데 말이 듣고 슬피 울었다는 설, 그리고 월지국의 왕이 말 7필을 굶겨 1주일이 지난 날, 마명에게 법좌에 올라 설법을 하게 하면서 주린 말들에게 먹이를 주었으나 마명의 법문을 듣느라고 먹이를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법문을 들었으므로 마명이라 했다는 등 여러 가지로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어떤 마음으로 보시하겠습니까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㊴ 재물 희사의 종류

捨財物者。凡有二種。一者命終時捨。二者布施時捨。死時捨者。一切都捨無有毫釐至後世。布施捨者。捨於少物得大果報。何有知者見此過患而不行施。若行施時令受者喜悅自亦喜悅。若人不能深生喜悅便自欺　。若有乞者有所求索。為求有故施與少物心則歡喜。復有施者自往施與。不求果報而行大施。餘有少許心中快樂不可為喻。設有美食若不施與而食　者不以為美。設令惡食得行布施。然後食者心中歡喜以為極美。若行施竟有餘自食。善丈夫者心生喜樂如得涅槃。(사재물자。범유이종。일자명종시사。이자포시시사。사시사자。일체도사무유호리지후세。보시사자。사어소물득대과보。하유지자견차과환이불행시。약행시시령수자희열자역희열。약인불능심생희열변자기광。약유걸자유소구색。위구유고시여소물심즉환희。부유시자자왕시여。불구과보이행대시。여유소허심중쾌락불가위유。설유미식약불시여이식담자불이위미。설령악식득행보시。연후식자심중환희이위극미。약행시경유여자식。선장부자심생희락여득열반。)

번역

재물을 희사하는 것에 무릇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명이 다할 때까지 희사하는 것과 둘째, 보시해야할 때 희사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희사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것을 희사하되, 털끝만큼도 후세에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보시를 해야 할 때 희사하는 것은 적은 재물을 희사했을지라도 큰 과보를 받습니다. 뉘가 알겠습니까. 이 과오와 환난을 보고 보시를 행하지 않은 것인 줄을. 만약 보시를 행했을 때 가령, 받는 이가 기뻐하고 역시 기뻐하되 만약, 사람을 마음 깊이 기쁘게 할 수 없다면,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인 것입니다. 만약 구걸하는 이가 있어 구하고 찾는 바가 있으면, 위하여 구하는 것이 있어 베풀어 주면 적은 재물에도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다시 보시하는 이가 있어 스스로 가서 베풀어 주되 과보를 구하지 않고 크게 보시를 행하면, 남은 것은 적어도 심중의 즐거움은 비유할 수 없게 됩니다. 설령 거친 음식을 얻어 보시를 행할지라도 자연히 뒤에 먹는 이가 심중에 기뻐하며 지극히 좋은 음식으로 여기게 됩니다. 만약 보시를 행할 뜻으로 자기의 음식을 남기는 착한 대장부는 마음이 기쁘리니 열반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해설

'마음은 의식(意識)'이다. 이 말은 불교 유식학(唯識學)의 기본이다. 의식하여 짓는 것을 업식(業識)이라고 한다. 업식은 인과(因果)를 만드는 일이다. 인과를 다른 말로 업(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불성(佛性)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인식의 근본작용을 이르는 말이다. 인식의 근본을 일러 여래장(如來藏)이라고도 한다. 선사상에서는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생이 불성을 가졌다는 말은 곧 의식작용의 근본을 가졌다는 말이다. 수행을 통해 근본자리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이나, 불성을 찾는다거나, 본래의 마음을 찾는 다는 것은 인도의 브라만 사상을 차용한 것이지 근본자리는 돌아갈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는 본래 그 자체로 여여(如如)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의식을 사용하느냐가 부처이거나 보살이거나 그냥 중생이거나의 차이일 뿐이다. 이제 제바라보살은 거듭 다시 묻는다.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고려 말 공민왕의 스승이셨던 나옹스님께서 그의 누이에게 준 게송이 있다.

너무도 유명한 널리 알려진 게송인데 당시 스님의 누이는 아미타불을 친견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아미타불을 밤낮 없이 염송(念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지켜보며 나옹스님은 누이에게 아미타불을 안겨 주는데 그 게송은 다음과 같다.

'아미타불이여! 어느 곳에 계십니까?(阿彌陀佛 在何方) 마음모아 간절하게 잊지않고 찾나이다.(着得心頭 切莫忘) 생각, 생각이 다하여 생각 없음에 이르니(念到念窮 無念處) 눈, 귀, 코, 입, 몸, 뜻, 그대로 금빛 찬란한 아미타 부처인 것을.(六門 常放 紫金光)'

그렇다. 아미타 부처님은 십만 팔천 국토를 지난 곳의 서방의 극락세계에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아미타불을 밤낮으로 간절심으로 찾고 또 찾았으나 마음이 맑아져 생각마저 끊긴 절대적 생각 없음에 이르고 보니 아미타불과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머무는 곳이 정토, 만나는 사람이 부처 마음모아 정진하면 내가 부처임을 안다

눈, 귀, 코, 입, 몸, 뜻, 이대로가 부처요 움직이는 진리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서방의 극락세계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리면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 아님이 없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 아님이 없는 것이다.

진리는 멀리 있거나 높은 곳에 있거나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게 아닌 것이다. 진리는 언제나 드러나 있는 것이다. 물처럼, 공기처럼, 자갈처럼, 빨래처럼 널려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세상만사가 시험지의 답안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눈높이에 따라 삶도 사랑도, 정의도 흔들릴 수 있고 가치기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형이하학(形而下學)보다는 형이상학(形而上學)쪽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역(周易)〉의 '계사상전(繫辭上傳)'에 보면 형이상자(形而上者)는 도(道)라 하고 형이하자(形而下者)는 그릇(器)이라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형이상학은 보여주고 쥐어 줄 수 없으나 형이하학은 증명해 보여 줄 수 있는 과학과 같아서 큰 그릇 작은 그릇과 내용물까지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겪게 되는 것이다.

신(神)과 영혼과 천국을 형이상학으로 포장해 과대선전을 늘어놓으며 교세확장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요즘 세태의 종교계의 현주소일 터이다.

그러나 불교만은 다르다. 불교는 논리적인 종교이면서 과학적인 종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설법의 다섯 가지 원칙으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논리와 표현을 갖춰 설법하라고 가르친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증험 될 수 있는 성질의 내용과 둘째는 때를 거르지 않고 과보(果報)가 있는 성질의 내용과 셋째는 누구나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내용과 넷째는 열반(궁극적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성질의 내용과 다섯 번째는 지혜 있는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성질의 내용으로 설법하라는 것이다.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분법적인 상학(上學)과 하학(下學)에 머물지 않는다. 오로지 마음 중심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논리로 발길 닿는 곳이 극락세계요 만나는 사람이 곧 부처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미타불은 서방의 극락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간절심으로 마음모아 정진(精進)하면 내가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본래 동, 서, 남, 북은 없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 이 순간임을 잊지 말 일이다. 나는 언제나 아웃사이드가 아닌 인사이드의 오늘의 주인공인 것이다. 내가 그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듯 그 누구도 나의 것이 영원히 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쯤해서 묻고 싶다. 왜 불교관련 TV에 광고로 등장하는 사찰과 주지 스님께서는 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가라고 선전하는가? 왜 소원성취와 영가천도 도량임을 마르고 닳도록 강조 하는가? 왜 나옹스님이 누이에게 준 게송의 뜻은 잊고 있는가? 설법의 다섯 가지 원칙은 왜 지키지 않는가?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개운한 삶이 수행자의 삶인데….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수행 정진중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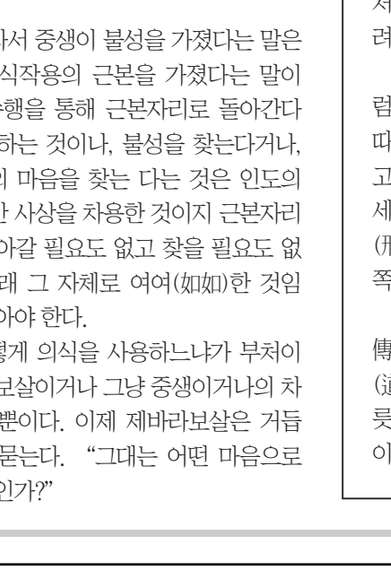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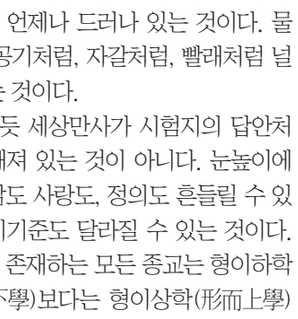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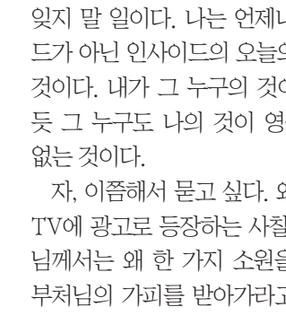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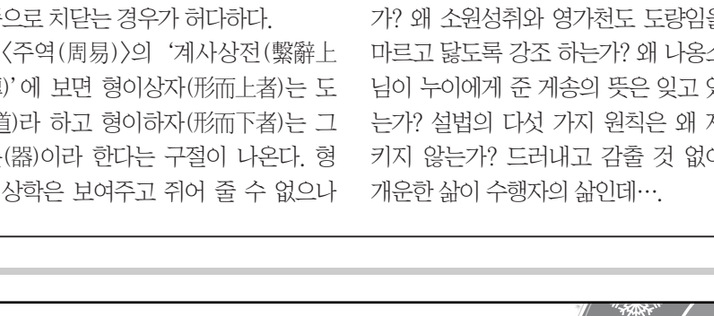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17세기 중반 불교 조각계를 이끈 巨匠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⑱ 운혜(雲惠) 스님

17세기 중반에 불교 조각계를 대표하는 조각승은 승일 스님, 무염 스님, 계훈 스님, 명준 스님, 사인 스님 등으로 30여명에 이른다. 이 시기에 많은 조각승이 활동한 것은 그만큼 사찰 내에 전각의 건립과 중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조각승들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스승을 따라 불상 제작을 배운 후, 스승의 계보를 잇는 스님들로, 대표적인 조각승이 운혜(雲惠, 雲慧, 云惠) 스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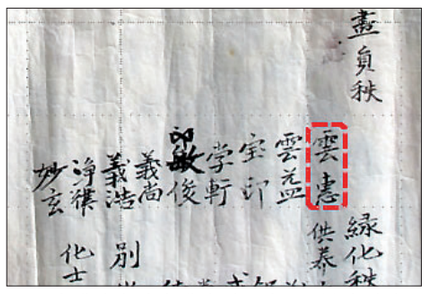
운혜 스님은 수연 스님과 불상을 같이 제작한 영철 스님과 활동하는데, 수연 스님과 직접 불상을 작업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1650년대에 충남 공주 마곡사에 주지를 맡은 것으로 보아서 1640년대 활동이 밝혀진다면 수연 스님과 관련성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까지 운혜 스님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불상은 7건 40여 점이 조사되었다.

운혜(雲惠) 스님은 생몰년이라든가, 그가 승려 장인(僧侶匠人)이 된 배경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스님이 제작한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發願文)과 사찰의 연혁을 적은 사적비(寺蹟碑)를 통하여 활동시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운혜 스님은 1649년에 영철 스님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황해도 배천 강서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현재 서울 화계사 봉안) 제작에 참여한 12명 가운데 4번째로 적혀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1650년에 수화승으로 전남 해남 서동사 대웅전 목조석가삼세불좌상을 제작하였고, 1650년에서 1659년 사이에 전판사(前判事) 승연(勝衍) 스님, 운익(雲益) 스님, 운일(雲日) 스님 등과 번갈아 가며 공주 마곡사 주지를 맡았으며, 박야외(朴野外) 거사(居士)와 각순(覺淳) 스님이 재산을 시주하여 탁일(卓一) 스님 등과 함께 묘수장사(妙手匠師)로 추대되어 승당(僧堂)을 건립하였다.

이후 운혜 스님은 수화승으로 1661년에 전남 장성 백양사 약사암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아미타불만 제주 월계사 봉안), 1665년에 전남 곡성 도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1667년에 전남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을, 1675년에 고흥 능가사 불상(조성발원문만 존재)을 제작하였다. 당시 능가사 불상 조성은 중창주인 벽천정현(碧川正玄) 스님이 공주 출신(公州錦江子)이라 그 인연으로 운혜 스님이 충남 공주 마곡사에서 전남 고흥까지 내려와 불상을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운혜 스님은 1678년에 영철 스님 등과 전남 순천 송광사 사적비 건립에 후원인으로 참여하였다. 스님이 만든 마지막 불상은 1680년에 도림사 목조보살좌상이다.



운혜 스님이 제작한 목조불상들. 왼쪽부터 1650년 제작된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67년 제작된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672년 제작된 순천 동화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1650년 제작된 전남 해남 서동사 목조불상 발견 조성발원문 일부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운혜 스님은 1654년에 마곡사에 조성된 범종의 명문에 산인(山人)으로 언급되어 충남 공주 태화산(泰華山)에 거주한 스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675년에 고흥 능가사 불상을 제작할 때, 대선사(大禪師)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운혜 스님은 1620년 이전에 태어나 1640년을 전후하여 불상 제작의 수련기를 거친 후, 1650년대 후반에 충청 공주 마곡사 주지를 역임하였으며, 전라남도 해남, 화순, 고흥, 곡성 등의 사찰에 불상을 조성하였다.

현재까지 밝혀진 운혜 스님의 활동 시기는 1649년부터 1680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으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불상을 조성하였다. 운혜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태전(太顚, -1600-1615-) → 수연(守衍, -1615-1639-) → 영철(靈哲, -1623-1649-), 운혜(雲惠, -1649-1680-), 운익(雲益, -1650-1684-), 승균(勝鈞, -1672-1675-), 경림(敬琳, -1665-1680-) → 인성(印性, -1660-1747-), 삼안(三眼, -1678-1740-), 묘경(妙瓊, -1665-1672-) 등으로 이어진다.

운혜 스님이 만든 대표적인 불상은 전남 해남 화원면 사동(寺洞) 마을에 있는 서동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삼세불좌상이다. 불상은 높이 120㎝로, 석가불을 중심으로 아미타불과 약사불이 배치된 목조삼세불좌상이다.

조각승 영철 스님과 선후배 관계

공주 마곡사 거주, 전국을 무대로 활동

判事와 大禪師의 지위에 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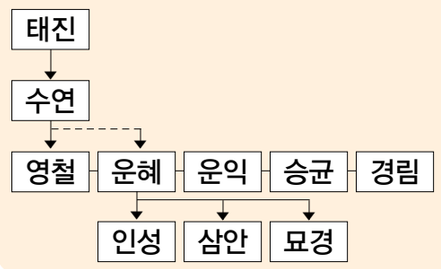
순천 송광사 사적비 건립에 참여

머리는 뾰족한 나발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로 표현되고, 육계 밑에는 반원형의 긴 중간계주와 원통형의 낮은 정상계주가 있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갸름하고, 이목구비(耳目口鼻)에서 풍기는 인상은 부드럽고, 목에 자연스럽게 삼도가 새겨져 있다. 본존의 착의 방식은 대의 안쪽에 편삼(扁衫)을 입지 않고, 양 협시불은 편삼을 입어 다르게 나타난다. 본존의 오른쪽 어깨의 대의자락은 겨드랑이가 보일 정도로 짧게 늘어져 세 번 접히고,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수직으로 내려와 하반신을 덮어 조선후기 불상의 전형적인 착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는 1650년에 운혜 스님을 수화승으로 운익(雲益) 스님, 보인(寶印) 스님, 학헌(學軒) 스님, 민준(敏俊) 스님, 의상(義尙) 스님, 의호(義浩) 스님, 정률(淨律) 스님, 묘현(妙玄) 스님 제작으로 기록되어 있다.

운혜 스님은 1667년경에 화순 쌍봉사 명부전(冥府殿)에 불상을 조성하였다. 이 불상은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배치하고, 향 좌측에 세 분의 대왕과 판관을, 향 우측에 일곱 분의 대왕과 사자 등이 봉안되어 있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높이가 104㎝로, 민머리의 성문비구형이다. 얼굴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여 얼굴과 앉은키는 대략 1:3.2의 신체비례를 보인다. 이는 고려와 조선전기에 제작된 불좌상(佛坐像)이 1:3.5 이상의 신체비례를 가진 것에 비해 조선후기 불상이 얼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형의 얼굴에 이목구비는 전형적인 조선후기 불상을 따르지만, 턱이 약간 뾰족하고, 인중이 다른 불상에 비하여 넓으며, 목에 난 삼도(三道)가 거의 수평으로 처리되어 있다. 따로 제작된 오른손은 어깨 높이까지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은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手印)을 취하고 있다. 바깥에 걸친 두꺼운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서 가슴까지 내려와 두 겹 접힌 후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의 대의는 세 겹으로 접혀 수직으로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는 중앙에 두께가 일정한 주름을 중심으로 파도가 출렁이듯 펼쳐져 있고, 반대쪽 주름은 한 가닥 넓게 펼쳐져 있다. 특히, 하반신의 대의 처리에서 가장 큰 특징은 복부에서 가운데로 흘러내린 주름의 끝이 부메랑같이 표현된 점이다. 이 하반신의 대의 자락 표현은 조선후기 다른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에서 볼 수 없는 요소이다. 이러한 특징은 20년 정도 늦게 활동한 색난(色難, 色蘭) 스님이 1694년 제작한 화순 쌍봉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의 하반신을 덮은 대의가 잔잔한 물결처럼 곡선을 그리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 표현에서도, 색난 스님이 제작한 불상은 조선후기 전형적인 불상과 마찬가지로 앙련형(仰蓮形)의 승각기 상단을 가진 것에 비하여 운혜 스님의 불상에서는 둥근 상단에 양쪽 끝이 날카롭게 접힌 도끼날 같은 부형(斧形)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외에도 목조지장보살좌상의 왼쪽 측면에 보이는 대의자락이 두 가닥 수직으로 내려오다 Y자로 접힌 표현은 특이하다.

운혜 스님의 조각승 계보



1650년에 제작한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1667년에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을 비교하면, 복부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던 가운데 대의자락이 옆으로 뻗어 복주머니 같고, 협시불인 목조아미타여래좌상와 목조약사여래좌상의 하반신 대의 처리도 차이가 있다. 이는 1667년에 만들어진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의 하반신을 덮은 대의처리의 변화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운혜가 제작한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인 대의 끝단이 부메랑같이 표현된 주름을 중심으로 파도가 출렁이듯 접혀있는 표현의 초기 형태이다. 또한 가슴을 덮은 승각기는 상단을 한 번 말아 도톰한 양련형으로 표현되었는데, 17년 뒤에 제작한 1667년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에서는 어깨를 덮은 대의 간격이 좁아지고, 승각기 상단의 표현이 도끼 날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불상의 왼쪽 측면에 대의자락이 두 가닥 수직으로 내려오다 Y자를 이루는 표현은 이후에도 볼 수 있다.

운혜 스님과 같이 활동한 경림 스님은 1678년에 전남 강진 백련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좌상(목포 달성사 봉안) 조성 시 수화승으로 활동하고, 운혜 스님이 제작한 1680년 도림사 목조협시보살좌상과 1678년 강진 백련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의 세부 형태가 비슷한 것은 운혜 스님이 1680년까지 살았지만, 이 시기 실제적인 불상 조성은 경림 스님이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혜 스님과 경림 스님이 제작한 불상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방형의 얼굴에 턱이 약간 뾰족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강한 인상을 주며, 여래상은 이마에 넓고 길쭉한 타원형의 계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승각기 상단의 주름은 처음에 조선후기 불상의 일반형인 앙련형에서 1665년경에 도끼날 같은 부형(斧形)으로 바뀌고, 다시 경림에 이르러서 상단의 중앙 주름이 원통형으로 바뀌고 뾰족하게 변하고 있다. 셋째는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이 가운데 주름의 끝이 부메랑 같이 표현되고, 옆으로 두 번 접힌 주름이 이후에 한 번으로 줄어든다. 넷째는 불상의 왼쪽 측면에 늘어진 대의 주름은 수직으로 두 가닥 내려오다 Y자로 접힌 표현이 운혜와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들이 제작한 불상들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요소이다.

운혜 스님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들이 17세기 후반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년명(無紀年銘) 불상은 전남 강진 백련사 명부전 불상, 충남 예산 향천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전남 순천 정혜사 지장전 불상 등 호남 지역에 주로 산재하는 특징이 있다.

"재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천 지 운 명
건강 120세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상담 환영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 결혼 무료상담 : 초혼 · 재혼 · 탈북자 특별우대

H·P 010-4496-6060 / 팩스 043)881-1359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자성을 찾아가는 근본불교
제 1 기생 길 따라 절로 가는 설봉포교원
6개월 과정 신입생 모집

화엄경(華嚴經)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반야심경(般若心經)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 입학식 : 9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공부하는 날
• 화 엄 경 반 : 9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반야심경 반 : 9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과 진여실상(眞如實相)을 화엄만다라(華嚴曼荼羅)와 반야(般若)의 지혜바라밀(智慧婆羅蜜)을 실천수행 하므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하는 참 불자(佛子), 법우(法友)의 법연(法緣)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설봉포교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131-5번지
010-5660-3653 주지스님

성도의 별을 보니 '다 성취되었다'

동휘 스님, 10월 11~19일 '깨달음의 별 축제'

유리공주 별만다라 100점 전시
압구정 여래사서… 2시 법문도



동휘 스님이 그린 유리공주 별만다라

만다라 작가로 잘 알려진 동휘 스님이 전시와 법회가 어우러진 축제 마당을 연다.

동휘 스님은 9월 26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부처님 탄생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이다.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듯이 '별'을 주제로 한 '옴오로라 깨달음의 별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옴오로라 깨달음의 별 축제'는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 압구정 여래사에서 진행된다. 축제에는 새로운 개념의 만다라인 '유리공주 별만다라' 100점이 전시되며, 매일 오후 2시 스님의 법문도 진행된다.

동휘 스님이 이번에 선보이는 '별만다라'는 치유와 통합을 의미하는 '약사유리광여래불(약사여래)'을 여성성을 가미해 상징화한 것이다. '유리공주'의 눈에 비친 별을 메인 주제로 다양한 문양과 글들이 다채로운 색감으로 채워졌다. 동휘 스님이 별만다라만으로 전시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축제에 대해 동휘 스님은 "'옴오로라 깨달음의 별 축제'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별을 통해 우리도 부처님처럼 별을 보고 깨달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모두 불성이 빛나는 별임을 알리고, 대한민국이 깨달음의 별들이 매일 탄생하는 중심임을 알리는 축제 마당이 될 것"이라며 "올해 축제를 기점으로 깨달음을 주제로 한 축제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02)540-5272 신성민 기자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에 '화엄-2016'

7개 분야 120점 입상… 11월 16일 시상


대상작 황규철 씨의 '화엄-2016'

천태종이 올해 야심차게 마련한 제1회 천태예술공모대전서 황규철 씨의 '화엄-2016'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9월 29일 서울 인사동 한 음식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심사를 마친 '제1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수상 결과를 발표했다.

상금 1천만원인 대상에는 황규철 씨의 현대불화 '화엄-2016'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총 8개의 철판 위에 부처 형상과 연꽃 등을 그려 넣고 산화시켜 부각했다. 전통과 현대적 기법을 아우른 실험정신이 높게 평가됐다.

최우수상은 강신애 씨의 전통불화 '반야바라밀다심경만다라'와 한동인 씨의 조각 '상원사문수동자(재현작)'가 받았다. 우수상은 각 분야별로 △이윤경-천수천안관세음보살(전통불화) △진현진-구인사아미타불도(현대불화) △박옥실-화조도(민화) △임형철-석가모니(조각) △장성우-건칠칠보문정병(공예) △신광자-부모은중경 제1장(한문서예) △김운식-구인사 생전예수재 등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가작 7점, 장려상 13점, 특선 36점, 입선 54점 등이 입상했다.

특히 이번 천태예술공모대전에는 3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위원으로는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위원장), 손연칠 前 동국대 교수, 정우택 동국대박물관장, 윤범모 前가천대 교수, 이관섭 문화재전문위원, 윤열수 가회민화박물관장, 권성하 · 김선숙 서예가, 이상배 문인화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천태종은 11월 16일 서울 인사동 씨라이트(구 아라아트센터)서 수상작 시상식을 개최하며, 1주일간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최첨단 미디어로 만나는 SMART 불교문화

BBS불교방송, 2016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개최



통일 신라시대 조성된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을 주제로 한 '2016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된다.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은 현존하는 세계의 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우리 방식으로 만들어진 '성덕대왕신종'의 가치를 알리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 축제는 '세계의 종 타종 체험', 경주 유적지를 4D로 체험하는 '리얼 4D 큐브 체험', 40여 가지의 '신라문화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에밀레전은 'SMART'를 주제로 펼쳐진다. 불국사와 첨성대, 동궁과 월지, 대릉원, 경주 남산 등 경주 주요 유적지가 4차원 입체 영상으로 구현된다. 에밀레전을 찾은 관람객들은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준비한 '리얼4D큐브'에서 아름다운 경주를 4D로 직접 느낄 수 있게 된다.

국보 31호 첨성대와 국보 21호 불국사 석가탑 등 주요 문화재는 3D프린팅을 이용해 모형 첨성대와 석가탑으로 다시 태어난다. 3D 프린팅 전문 업체 3D뱅크

10월 7일부터 3일간 열려
경주 첨성대 광장서 개막식
경주유적 4D체험 등 눈길

가 미리 준비해둔 모델링을 바탕으로, 관람객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실물을 출력할 수 있으며 소장도 가능하다.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경주의 문화재들은 '에밀레전'의 색다른 볼거리가 된다.

이와 함께 성덕대왕 신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 LED 종으로 제작해 신라 왕경을 환하게 밝히게 된다.

에밀레종을 형상화한 6톤 규모의 '에밀레 모형종 타종 체험'과 경주의 밤하늘을 밝힐 '신라 간등회'는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다.

'에밀레 주제관'은 30여 평의 기와집으로 조성되며 6개의 신라시대 범종 모형종 전시를 비롯해 성덕대왕신종 표면의 기록물인 명문 해석과 문양 설명 등을 전시한다. 또 성덕대왕신종의 특징과 과학성, 주조과정 등을 그림으로 쉽게 풀이해 소개한다.

'신라문화 체험 마당'은 성덕대왕신종 비천상 탁본 및 인경 체험, 신라 금관 만들기, 신라 왕과 왕비 옷 체험 등 옛 것을 배우고 즐기며 체험하는 4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신라 간등회(看燈會)'는 한국 전통등의 효시인 신라시대 간등(看燈)을 재연하는 행사로 대형 공작등과 용(龍)등, 에밀레종 모형 등을 비롯한 50여 개의 대형 전통등이 첨성대와 함께 은은한 야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6톤 규모의 '에밀레 모형종 타종'은 에밀레전의 빼놓을 수 없는 체험이다. 범종을 타종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직접 타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힘들기 때문. 매년 행사 때마다 가족단위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축제기간 매일 수준 높고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시와 국악의 만남', '국악과 놀다', '청년의 소리' 등 매일 컨셉을 달리해 관객들을 찾아간다. 명상음악가 홍순지, 곽홍란 시인, 소리꾼 남상일 등이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가을밤을 수놓고, 축제 마지막 날엔 동국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의 열정적인 무대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2016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개막은 10월 7일 오후 5시, 불국사 회주 성타스님,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최양식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개막식은 화려한 식전공연에 이어 BBS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의 개막선언, 점등식, 레이저쇼, 에밀레 주제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번에 '중드'… 동자승 활약 기대하세요

〈중국드라마〉

BTN 불교TV, 10월 12일 '동자스님 소공공' 첫 방송

총 49부작…전편 우리말 더빙


BTN이 기획 방송하는 중국드라마 '동자 스님 소공공'의 한 장면.

드라마 '붓다'로 많은 화제를 모았던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가 이번에는 중국의 불교 드라마를 새롭게 선보인다.

BTN은 "오는 10월 12일 저녁9시 높은 시청률로 중국에서 호평을 얻으며 방송되었던 '동자스님 소공공'의 우리말 더빙판을 국내 첫 방송한다"고 9월 28일 밝혔다.

'동자 스님 소공공'은 동자승 공공 스님을 비롯한 저마다 다른 성격과 개성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백성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49부작 드라마이다.

주요인물로는 영리하고 꾀가 많지만 속이 깊은 동자승 공공 스님, 불경에 정통하지만 겁이 많은 물요 스님, 무공을 수련하면서도 실전에는 약한 무원 스님, 먹는 것만 좋아하고 단순한 물완 스님, 어리지만 침착한 무회 스님, 그리고 이 다섯 동자승을 아우르는 숭산 대법왕사 방장 중의대사이다.

드라마는 동자승 공공스님과 동자승들이 대법왕사와 사하(寺下)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갈등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활약상을 그렸다.

BTN에서 기획한 '동자 스님 소공공' 우리말 더빙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공모한 '우리말 더빙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새롭게 제작됐다.

BTN편성 관계자는 "깨끗한 동심과 지극한 불심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동자승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법속에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2015년 드라마 붓다 우리말 더빙판의 인기로 이번 드라마도 49부작 전편을 우리말로 더빙해 불자 및 시각장애우들의 편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9부작 '동자스님 소공공'은 10월 12일 수요일 밤 9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수 · 목 밤 9시, 일 오후 2시50분 2회 연속방송된다. 신성민 기자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香
DONGUIBOHYANG
동의보향은 한방약제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만원이상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 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9.21~2016.9.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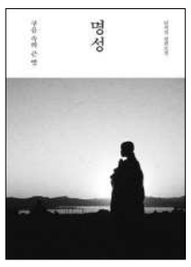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샘앤파커스
2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3	참선이란무엇인가	진제대선사	매일경제신문사
4	돌이키는힘(치유하는금강경읽기)	서광	모과나무
5	날마다 새날-불교 명절에 담긴 수행이야기	법륜	정토
6	부처님말씀 따라쓰기	불교방송	비단길
7	깨달음과역사(개정증보판)	현응	불광출판사
8	나를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만공법어)	만공	비움과소통
9	그녀는다시태어나지않기로 했다	조민기	㈜조계종출판사
10	어느수학자가본기이한 세상-조합	강병균	살림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한국 비구니계의 큰 별, 명성 스님 소설로

강미농의 금강경 강의

남지심 지음 | 불광 펴냄 | 1만 7천원



이 책은 청도 운문사를 한국의 대표 비구니 교육 도량으로 일궈낸 명성 스님 일대기를 담은 소설이다.

명성 스님〈사진〉은 폐허와 다름없던 운문사에 와서 40여 년간 운문사 강원을 세계에 드러내도 손색이 없는 운문승가대학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선원, 율원을 갖춘 대가람으로 일으키기까지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 힘겹고 드라마틱한 여정을 있는 그대로 작가가 섬세한 필체로 그려냈다.

비구니 교단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비구니의 계맥과 명성 스님이 일군 운문사에 대한 찬사가 잇달은다. 명성 스님의 유발상좌로 30여 년 스님을 가까이서 바라본 〈우담바라〉의 남지심 작가가 비구니계의 큰 스승 명성 스님의 발자취를 평전소설로 꾸몄다. 스님이 생존해 계시고, 책 속에 생을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많아서 평전 쪽에 가깝다. 이 책은 한국 비구니사를 연구하는 데 활용해도 큰 도움이 될 만하다.

〈명성〉은 스님의 수행자, 교육자, 행정가, 지도자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명성 스님의 개인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스님의 생 자체가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산증인으로서 한국 비구니 역사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 책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운문사 학인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것이다. 먹거리 해결을 위해 농사짓던 이야기, 사교반 집단 탈출 사건, 감 서리 갔다가 사단이 난 이야기, 간담을 서늘케 한 화재 사건 등 학인들과의 재미있는 일화들은 책 장을 넘기는 내내 절로 웃음 짓게 한다. 매사에 철두철미한 명성 스님이지만 학인들을 포근히 감싸주는 어머니 같은 모습은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전해온다. 이외에도 명성 스님의 수행 이야기에는 각 사찰의 창건 설화, 관세음보살 전생 이야기, 스님들의 일화 등이 녹아 있어 읽을거리가 다양하고 흥미롭다.



비구니 승가 교육에 새 바람 일으켜

이부승 제도 복원, 비구니사에 한 획

2007년 '탁월한 불교 여성상' 수상

1930년 경북 상주서 출생한 명성 스님은 1952년 합천 해인사 국일암서 선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3세 되던 해 부친인 관응 스님이 출가의 길을 권했다. 관응 스님은 유식학의 대가로 당대 최고의 강백이었고, 최초로 무문관서 6년간 수행을 마친 선승으로 존경받았다.

1970년 40세 때 명성 스님이 운문사 강원에 강주로 왔을 당시만 해도 강원 교육은 서당에서 훈장이 가르치는 방법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명성 스님은 전형적인 주입식 교육의 틀을 깨고 모든 수업을 논강식 교육 방법으로 바꾸었다. 또한 절집 공부만으로는 안 된다고 여기고 외학(外典)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미술, 외국어, 심리학, 철학, 유학, 다도, 꽃꽂이, 피아노, 서예 등을 교과목에 넣었다. 그 당시 경상북도 산골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시대를 앞서 간 획기적인 일이었다. 절에 들어오면 여성성을 제거하고 남성을 닮은 중성이기를 강요한 시절에 명성 스님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살려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승가 교육 현장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명성 스님은 비구와 비구니는 다 같은 부처님 제자로 그 위상이 대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비구니가 비구니로부터 전강을 받는 전통을 만들었다. 1983년 명성 스님은 평소 존경한 화산당 수옥 스님에게 법제자로 위패 건당 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만들었다. 수옥 스님은 금룡 스님, 혜옥 스님과 함께 근대의 3대 비구니 강백 중 한 분이다. 이후 1985년 두 제자 흥륜, 일진 스님에게 전강을 함으로써 기둥을 만든 것이다. 이 전강 식은 비구니 손으로 역사의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비구니사에 기록됐다. 비구니 강사가 배출돼 비구니를 직접 가르치는 여법한 이부승 제도가 되살아났으니, 끊어졌던 강맥을 복원시킨 명성 스님의 생은 그래서 더욱 빛난다.

비구니 위상이 높아지자 종단서도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직접 계를 주는 별소 계단을 만들었다. 2001년부터 다시 구족계 별소 계단이 만들어져, 이제 비구니스님은 비구스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 불교 교단의 한 축을 감당하게 됐다.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비구니스님들의 노고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명성 스님이 존재했다.

스님은 자로 잰 듯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엄하게 교육하는 한편, 허물을 다 덮어주는 포근한 어머니가 돼 주었다. 그래서 학인들 마음속에 명성 스님은 관세음보살처럼 자리한다.

명성 스님은 육군사관학교서 사경 법회를 주관하고, 논산훈련소 군법당서 전계사로 3,500명의 현역 군인들에게 계를 주는 수계 의식을 치렀다. 비구니스님이 전계사가 되어 수천 명의 군인들에게 계를 준 것은 명성 스님이 처음이었다. 이는 군포교의 이정표가 되었다. 스님은 지금도 수계 법회를 지속적으로 후원한다. 명성 스님은 '법계장학회'와 '법륜비구니장학회'를 만들어 불교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명성 스님은 2007년 조계종 명사 법계에 품서돼 불교계의 큰 어른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탁월한 불교 여성상'(OWBA)을 수상하는 등 세계 불교계의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다.

남지심 작가는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존경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일이라고. 명성 스님을 만난 남 작가는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내가 행복해야 그대가 행복하다"

길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정찬주 지음 | 황금물고기 펴냄 | 1만 4천원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한 뿌리다. 나와 이웃은 한 뿌리의 이파리들이다. 한 이파리가 불행하면 다른 이파리도 불행하게 된다. 이것이 내가 행복해야 할 이유이다. 내 삶이 행복해야 더불어 이웃의 삶도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남도 산중으로 훌쩍 떠난 지 16년째인 정찬주 작가〈사진〉가 고립을 자처해 외로움과 직면하고 자연과 소통하며 살아온 날들이 고스란히 담긴 산중일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 사색한다. 그래서 저자의 글들은 잠언 같이 사유하게 만들어 준다.

가령 이렇다. "우리가 짜증을 내거나 부담스러워할 때는 분명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순간이다. 이럴 때 문제 해결 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면, 원인을 제거해 버리면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다."



이불재 손님들과 나누는 행복 지혜

인간 내면서 건져올린 깊은 통찰

작가와 인연 맺은 이들, 그리고 산방을 다녀간 법정스님, 박완서 · 최인호 · 정채봉 작가 그리고 이웃마을 농부에 이르기까지 저자가 머무는 전남 화순의 이불재 손님들과 나눈 향기로운 추억들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헤아려본다.

저자는 "나에게는 나를 후려치는 두 개의 죽비가 있다. 하나는 '집착하지 말라'는 죽비이고, 또 하나는 '걸림없이 살라'는 죽비이다. 미로 같은 불교 공부 40여 년 만에 얻은 두 개의 죽비이다."라고 책 속에서 고백한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집착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놓아버릴 때와 나를 들여다볼 때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어느 때 '집착'을 버려야 하며 어느 때 '몰입'해야 하는지 불교적 사유로 빚어낸 저자의 삶의 지혜를 가만히 귀기울여보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속에 들어 있는 저자의 산중일기처럼 담담히 써내려간 삶의 단상과 낭만과 추억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답하며 찾은 즉문즉답과 같은 사색의 언어들이 돋보인다. 그리고 집착을 버리고 자유자재하게 사는 인생은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 가야 행복의 길이 있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적어내려간 명상의 글들은 마치 산중수행자의 법문을 듣는 듯 하다. 바람처럼 막힘없이, 구름처럼 자유롭게, 때로는 송곳같이 예리한 통찰력으로 우리네 삶을 들여다보는 정찬주 작가의 단순명쾌한 식견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운을 남긴다.

김주일 기자

붓다 가르침에 감화된 21명 여인의 일화 정리

그녀는 다시 태어나지 않기로 했다

조민기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 6천원



여기 그녀들이 있다. 붓다와 인연 맺은 여인들은 실로 다양한 계층 사람이었다. 그들 중에는 당시 인도 국가의 왕비, 노예, 창녀도 있었다. 그들은 붓다의 가르침에 감화되거나 귀의해 붓다의 든든한 후원자나 제자가 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났다. 전생의 업이 현생의 삶이 된 그들은 일가족을 모두 잃고 미쳐 버리기도 했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남편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책 제목서 연상하듯 붓다를 만난 여인들은 인연과 윤회의 끈을 끊고 완전한 열반에 든 붓다처럼 삶의 굴레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한편 붓다와 여성의 인연은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나 여성 재가 불자인 우바이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중에는 그와 승가(僧伽)를 끊임없이 괴롭혀 온 여인도 있었고, 외도의 사주를 받아 붓다를 음해한 여인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삶을 산 21명 여인들의 일화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이 책의 저자 조민기는 불교계의 여러 매체에 붓다와 붓다 주변의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톡톡 튀는 문장과 쉽고 재미있는 구성으로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이 책서는 '붓다를 만난 여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전과 관련 문헌 등의 내용을 집약해 각 인물의 스토리를 재구성, 현대적인 언어로 재탄생시킨다.

저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불교 경전을 비롯한 불교 관련 도서에 대해 선입견을 가져온 독자들도 마치 한 편의 소설 혹은 동화를 읽듯 좀 더 가볍게, 더욱 가깝게 경전 속의 여인들과 붓다를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행본과 여러 매체의 삽화 작업을 활발히 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견동한 작가의 그림도 이 책의 매력 중 하나이다. 이야기의 결정적 장면을 포착해 정성스럽고 세심한 터치로 순간을 그려 낸 견동한 작가의 삽화는 독자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더욱 자극한다.

김주일 기자

잘하는 명상은 나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병이나, 괴로움, 번민 등은 모두 자연법칙을 위배하는데서 일어납니다.
명상을 통하여 모든 자연법칙들의 근원인 순수의식을 확립하면
마음과 몸은 자동적으로 단단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여 생리계통이 바뀌게 되며, 그후 문제 없고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빠르게 발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 첫째주 (토요일) : 나를 귀하게 하는 명상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 둘째주 (토요일) : 자기 능력을 일깨우는 창조명상〈취업준비 직장인 및 상업인, 사업인 등〉
◆ 셋째주 (토요일) : 사랑을 얻는 행복명상 〈결혼, 이혼, 재혼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 넷째주 (토요일) : 귀한 자녀를 얻는 태교명상
〈뇌세포의 70%는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 지며, 스트레스는 태아의 뇌 크기를 줄인다〉

◆ 문 의 : 작은 마음선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 전 화 : 010-8673-7558 / 010-5658-2657 / 031-335-2568
◆ 매주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삶에 대하여 ...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자신을 키우고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보세요.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불교, 종합, 쇼핑몰.
불교 서적
명상 음반
신행 용품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11 동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붓다북 02. 953. 7181.

2천 년 불교유적, '방만 행정'에 훼손 위기

파키스탄 '반 파키란' 발굴 완료 후 보존작업 실시 안해

파키스탄 불교유적지 '반 파키란(Ban Faqiran)'이 정부의 방만한 행정으로 보존공사조차 착수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 이슬라마바드(Islamabad) 마르갈라 언덕에 위치한 반 파키란은 기원전 2세기 경 건축된 불교 유적터다. 발견 당시 사원 뿐 아니라 석회석 탑, 물탱크, 6개 동전 및 4개 쇠 화살촉 등이 함께 발굴돼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탑으로 추정되는 석회 건물은 사각형태로, 한 쪽 벽 길이만 10m에 달한다.

파키스탄 영자지 '익스프레스 트리뷴'은 9월 26일(현지시간) "반 파키란 불교 유적지가 발굴 완료 이후 보존책이 없어 문화재 부식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현재 반 파키란은 자연적 마모와 지역민들 접촉 등으로 부식이 시작됐다.

발굴총괄책임자 무하마드 아리프 박사는 "올 3월 발굴이 완료된 2000년 역사의 반 파키란 유적지는 고고학박물관부가 보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방치된 채 부식이 심각하게 진행됐다"며 "정부는 자연 마모, 주민 접촉 등 훼손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고학박물관부는 2010년 4월 18차 헌법 개정 후 첫 책임 조사로 반 파키란 발굴을 맡았다.

자연 부식 · 주민 접근 등으로 훼손
4월 예산 받았지만 '무용지물'
"하루빨리 보존책 마련해야"

지난해 4월 국민문화유산기금(the National Fund for Cultural Heritage, NFCH)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4개월 후 발굴에 착수했다. 무하마드 박사는 "고고학박물관부는 2백만 루피(한화 약 22억) 예산을 할당받았지만 무용지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유물 조사 및 규명, 유적지 인근 터에 대한 조사까지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발굴된 유물은 이슬라마바드 박물관에 보관 중인 상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부 측은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반 파키란은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매우 자랑스러운 유적지"라며 "최근 고고학박물관부 문화재권고위원회에 보존대책 마련 및 물탱크 주변 심층 조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고고학박물관부 문화재권고위원회엔 연방운영위원회 소속 파루크 사와티 박사, 슐레만 샤아 정보부 장관, 무하마드 아리프 박사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방만한 행정 속 훼손 위기에 놓인 '반 파키란' 불교 유적지.
사진출처=익스프레스 트리뷴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현장 '반야심경' 초판본 새긴 비석 발견"

운거사, 석각 내용 해석 토대로 주장

중국 운거사가 현장 스님이 한역한 〈반야심경〉 초판본이 새겨진 석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 사이트는 9월 26일(현지시간) "북경시 방산구 운거사에 소재한 석각이 현장 스님이 한역한 '반야심경' 초판본으로 판명 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석각은 현장 스님 사망 3년 전인 기원후 661년 조각된 것이다.

〈반야심경〉은 불과 260자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경문이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문은 산스크리트어로 많은 번역본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현장 스님의 번역본이 가장 많이 독송된다.

따라서 운거사 석실서 보관돼 온 이 석각이 현장 스님의 〈반야심경〉 초판본으로 밝혀질 경우, 이는 현장 스님의 한역(漢譯)본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 및 학술계에선 진실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운거사 측과 전문가들은 석각에 새겨진 '삼장법사인 현장이 임금의 조칙을 받들어 번역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현장의 번역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한편 운거사는 베이징시 팡산구에 위치한 고찰로, 약 1400년 전 수나라 시대 창건됐다. 운거사 창건주인 진관 스님이 당시 불교를 탄압하려던 위 · 주나라 위협에 대비해 경구 조각을 시작, 현재 총 글자 수 3억 자, 경전 3,572권 분량의 석각을 제작 보관 중이다.


운거사 석실서 보관돼 온 '반야심경' 석각. 사진출처= 중국 관영 사이트

박아름 기자

인도 데칸대, 불교 고고학 수업 개설

"불교문학과 고고학 잇는 가교 역할 기대"

인도의 데칸대학교가 인도서는 처음으로 불교 고고학 수업을 연다.

관련 학자와 연구자들은 불교 고고학 수업이 불교문학과 고고학적 증거를 찾는데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도 언론 '푸네미러'에 따르면 불교 고고학 수업은 4개월 코스로, 런던 대학에서 동남아고고학을 가르치는 줄리아 쇼 교수의 주도하에 진행된다.


인도의 데칸대학교가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불교 고고학 수업을 열어 진행한다.
사진출처=edunts.com

줄리아 쇼 교수는 인도 중부, 마디야 프라데슈 주의 동(東) 마르와지방에 있는 불교 유적을 조사했으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캠프리지 재학중 불교 사원을 주제로 많은 연구를 했다.

데칸대학 고대인도역사문화 슈리칸 간비르 조교수는 "이번 수업은 2003년 캠프리지 대학에서 고고학 석사 과정을 마친 줄리아 쇼 교수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비르 조교수는 불교 고고학 과정 개설을 통해 인도 전역의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리큘럼은 고대 불교 대학과 사원이 있던 날란다(Nalanda)와 5~12세기의 연와조 불교사원 유적이 있는 라트나기리(Ratnagiri)와 오디샤(Odisha) 지역의 불교 유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또한 불교사원과 불교의 전파가 미치는 사회경제, 무역 등 전반적인 지식들도 배울 계획이다.

불교 고고학 과정은 2017년부터 고고학부내에 신설되어 운영된다. 또한 데칸대학은 내년 '불교 고고학과' '문화유산 보존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바산트 신데 데칸대 부총장은 "고고학 분야에서 역사적 문헌에 의존하기보다 물질적 증거를 집중 연구해야 더 정확한 역사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학과 개설이 인도 역사와 불교 고고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람 테이싱 사라오 델리대학 불교연구소 교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불교에 대한 정보는 고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문헌적 자료만으로는 역사를 만들 수가 없다"며 "인도의 고고학적 자료는 불교 이해를 기본으로 해야 하지만, 불교학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대학은 고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난 싱 고타마 붓다 대학의 불교학과장은 "불교의 쇠퇴과정은 고고학지역을 추적하면 배울 수 있다"며 "초기 선사시대 등의 유적현장에 집중해 불교 역사를 추적할 것이며 이번 불교 고고학 과정을 통해 다차원의 측면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답사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도고고학회(ASI;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에서 인도 역사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유적지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안내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불교고고학과 개설은 향후 인도 공공 지역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선두 할 것으로 본다.

아난 싱 학과장은 "많은 전문가들은 산치(Sanchi)지역 60km 반경에 사원을 비롯한 고고학적 유물이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지역 정부도 관광사업에 혈안이 되어 고고학 연구는 등한시 하고 있다. 과학에 근거한 고고학 연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비행 승려' 다룬 영화, 오스카 출품

"불교 모독"이란 불교계 반발 및 정부 검열 불구

마을 소녀와 사랑에 빠지는 등 계율을 저버린 승려 이야기를 다룬 태국 공포영화가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에 출품돼 논란이다.

영문 잡지 'GLOBE' 9월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태국영화협회는 내년 2월 개최될 제89회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부문 경쟁작으로 불교 배경 공포영화 '아파띠(Apatti, 2015)'를 출품했다. 아파띠는 아버지의 강요로 승려가 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은 승려 생활 중 사춘기 시절 한 마을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후 그는 만취 상태로 폭력을 휘두르고, 불상의 머리를 만지는 등 승려 본연의 신분과 엇나간 생활을 지속한다.

이러한 장면에 대해 태국 불교계는 '불교에 대한 모독'이라 간주하고 크게 비난했다.

이에 정부까지 가세해 지난 8월 검열을 실시, 상영이 지연됐다. 그러나 태국민들이 영화 상영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10만 명 이상이 청원을 벌인 끝에 제목을 변경하고 약 2분 정도의 분량을 삭제해 상영하게 됐다. 아파띠는 태국 박스오피스서 5천만 바트(한화 약 16억)가 넘는 흥행성적을 거뒀다.



'비행 승려' 이야기를 다룬 태국 영화 '아파띠(Apatti, 2015)'가 제89회 오스카 아카데미 경쟁작으로 출품돼 논란이다.
사진출처=GLOBE

'방콕 포스트'서 활동 중인 영화 비평가 콩 리트디(Kong Rithdee)는 "승려를 소재로 다룬 영화는 태국 영화사서 역사가 깊다. 승려를 재밌거나 신성스런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도덕성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내용은 문제될 수 있다"며 "이번 오스카 출품을 두고 '감독의 예술적 표현의 승리'라고 자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박아름 기자

족첸(대원만) 수행의 안내서!



아로 예세 중내의 족첸 수행 지침

깨달음을 얻는 티베트 수행 요결

10세기 티벳불교의 위대한 성취자이자 스승인 아로 예세 중내의 핵심 가르침!

티벳불교의 가장 높은 단계의 가르침인 족첸 수행에 대해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설명! 어떻게 마음의 본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마음의 본성에 머무는 삶을 살 것인가? 근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아홉 단계의 수행법을 통해 모든 이들을 행복과 평안으로 이끌어준다.

켄첸 빨덴 셰랍 린포체 • 켄뽀 체왕 된걀 린포체 저 / 고수연 옮김 / 국판 / 256쪽 / 값 14,000원

부처님의 가피가 가장 수승한 법화경 사경!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말 (전5권)

법화경 사경 혜조 역 /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940쪽 / 값 40,000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한문 법화경 사경 (전7권)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750쪽 / 값 4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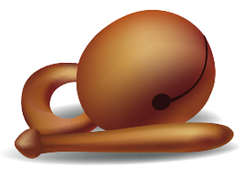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약 물이 항상 있다면 우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만약 욕심이 전혀 없다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리.

– 소부경전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신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비구니스님, 수계보살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정신분열,정신이상,
빙의,환청,환시,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배우자 관상을 보면 몇 살 때 어디 질병이 있는지, 죽음까지 알 수 있다
– 암, 질병, 묘터, 교통사고, 이혼을 얼굴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관상과 손금 비밀이야기 (판매중)
010-4014-8822

평생교육원 등록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파동명상요법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는 분. 빙의,
영가장애로 고통받는 분,
우울증 등 심인성 질환자
041-555-0374
주지스님 찾으세요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범패작법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6개월과정 / 수시접수)
교육내용 : 조석예불,새벽종송,사시불공,천도재, 사십구재,점안의식,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관욕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나비무 : 도량게,다게,운심게,오공양, 삼귀의,육법공양,향화게,법고무
* 범패작법 전문스님들이 사찰 각종행사 대행하여 드립니다 *
* 전생체험 및 빙의환자 퇴마치유 전문*
010-5269-4168
(연화사 범패작법교육원)

퇴불 철거
(탱화,동불,목불,석불,불기,석물)
모시던 부처님 회향하실때 좋은
인연으로 이원해드립니다
사찰,포교원 소개해 드립니다
법당철거,신당철거 정성을 다해
철거,퇴불,원상복구 해드립니다.
(주)다사팜
010-2395-3333

25년 전통 국내산
떡갈비 도매
• 양념이 완료된 성형제품
100g 1장 900원 (1팩 2.5kg)
• 양념이 완료된 성형제품
58g 1장 295원 (1팩 17개)
• 육가공 10종 최고의 맛 보유
010-2264-1919. 053-583-1918
국내산 현미 부드러운 누룽지
–당뇨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 누룽지는 쌀눈(현미과 미강)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만들었음. – 졸음운전 방지, 귀한손님 방문, 주전부리 간식 / 현미누룽지 270g, 150g / 보리와 현미 누룽지 / 병아리콩 현미누룽지

사주핵심강의
(명리, 성명학, 영통비법)
기초반,일반부 :
3개월 60 만원
전문부 (핵심비법전수) :
2개월 100 만원
※ 철학관, 포교당 개업하실 분
(월 4회 강의)
010-3801-4266
운문산 벽송스님 합장

사주학 제10기
• 교육과목 : 사주학,매화역수,성명학
• 초급반 : 사주명리 왕초보자, 이론 정립이 안되신 분
• 실전반 (통변반) : 질의 / 응답식 강의. 본인이 궁금한 사주를 즉석에서 풀이
• 강사 : 정인스님
010-4047-0134
정인역학연구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 성불사 주지)

특허기술로 탄생한
다이어트 돈까스 도매
• 9가지 자연 곡물 + 5가지 건강야채 (양파,당근,마늘,부추,연근) + 블루베리
• 뱃살 찌지 않는 야식 돈까스 (1봉 150g×7개) 16,000원
• 사찰 스님 드시는 돈까스 (연근 20%,야채,버섯,대추 / 1봉 15,000원)
• 유치원 납품, 식당업소용, 창업,지역취급 상담
제조원:(주)효경식품 / 판매원:신푸드
010-2264-1919
053-583-1918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출가 1-2년차
비구니 부전스님 모심
(의식, 집전 공부하면서)
지역 : 울산, 안동 (지장정사)
울산 010-3858-0306
안동 010-6475-3439
※출가를 원하는
비구니 행자도 모심

문두루 기도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배워야 산다
비법 + 명리 + 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5960-4984
지리산 현담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노원구)
010-9223-34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010-6585-0579
055-931-437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마이크 설치 에 대한 공사 안내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중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8721-2198
02-2234-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 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조계종 출신
비구스님 초빙
(경주지역, 60대 초중반)
010-5221-5893

비구니 주지 스님 모십니다
– 포교원 운영 경험 많으신 분
– 노원구 수락산 입구
010-6874-3789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소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 (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부처님의 경전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크게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경전을 전해 받는 사람은 큰 경사를 얻고 일체 중생은 윤택함을 얻는다.

- 증일아함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탁트인 바다 전망과 전통목조 사찰◀
- 위 치 : 진해구 용원동
- 총부지 : 240여평. 1만여세대 대단지 아파트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목조산신각(7여평)
- 가액 : 6억 5천만원

▶ 백두대간 격조높은 사찰◀
- 위치 : 강릉
- 총부지 : 2000여평(100%가용), 버스 진입 가능
- 건물 : 목조건물 5동(대웅전 25평) 산좋고, 물좋은 고장(계곡물 철철)
- 양도가액 : 5억 3천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경기도 안성 사찰 추천 급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요사채 등, 토지 1000㎡
- 법당 뒷편이 산이며 조용하고 아늑함 스님 건강상 부득히 양도하심
- 양도가액 : 2억 5천만원, 조정가능(융자있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 위치 : 서울시내산밑
◎ 부지 : 100평 ◎ 대지 : 45평
◎ 법당 : 50평 ◎ 인법당 : 60평
◎ 요사 : 60평 ◎ 요사 : 20평
◎ 양도 : 16억8천 ◎ 양도 : 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 총부지 : 183평
- 건물 : 60평
- 법당,요사채(방4개),화장실2개
- 정원,주차장 위치 좋은 암자
- 매도액 : 몽땅 2억 2천

직통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중주사찰(급)안내

- 목조법당,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등
- 토지 2,300㎡, 뒷편은 산
- 교통편리하고, 조용하며 남향임
- 현 운영 성업중이나 스님께서 연로하심
- 가액 : 3억 6천만원(조정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 동림동 새고개 2길 47
- 대지 300평
- 법당 20평
- 요사 30평
- 가액 : 3억

011-9551-337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 3천(대출 2억 포함) 대출 승계 가능함

010-6628-827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불국역 부근
-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정남향, 대지 200평, 건평40평 대웅전, 요사채, 방 3개, 친견실, 공양간, 화장실3개, 삼성각 15평, 집기일체
- 가액 : 2억 8천(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5427-3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시내
- 평수 : 60평
- 정원 조성 되어 있는 기와집 단독주택
- 법당1, 방2, 입식주방1 창고1, 보일러실1
- 시설 : 삼존불, 집기류 완벽
- 가액 : 전세 2,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8223-4879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1,500만, 월 80만 시설비 절충

010-3112-0480

절 터 안 내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계곡속
- 천하명당 절터 434평
- 입구에 폭포있음, 지방도 바로옆
- 전기, 관정 공사 완공 하천부지 일부사용
- 가액 : 5,800만원, 절충가능
- 장난전화 사절.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010-2499-300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화명동 (요지)
- 3층건물의 3층
- 법당, 공양간 약 60평
- 깨끗한 시설 완벽 (소임관계로 급 양도)
- 가액 :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신설공사비) 1800만원 (절충)

010-3582-89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 2,103㎡
- 법당, 요사 약 100평
- 창고, 기타 약 15평 외 20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5천만원

010-5518-6606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산속 솔밭 속 사찰
- 대지 670평, 가건물 5동
- 매실나무 350그루 외 다양한 유실수 보유
- 건강 관계
- 가액 : 2억 8천만원

010-6656-8117 (주인직접)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78-2(성내 2리 35-4)
- 대지 60평, 건평 60평(2층 건물에 1층)
- 마당 60평(잔디) 법당외에 방4개
- 주위 무료공용주차장, 넓은 수세식 화장실
- 법당 : 삼존불, 후불탱화, 산신 및 후불탱화, 신장 탱화 인수시에는 시설비 8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입주 가능
- 가액:보 500만원,월세 50만원

010-6667-8819
010-9087-4813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 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포교의 미래는 개척 불교의 희망

- 위치 :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상권 교통요충지 3층 30평 옥상이용
- 법당 주방 집기일체 갖추어져 있음
- 약초재배연구 관계로 14년 운영하던 포교원 부득이 양도코져함
- 가액 : 500만원, 월 25만원 (가액 조정가) 시설비 2,700만원 보시면 깜짝 놀람
- 즉시 법회 가능

010-3813-61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 3층 건물중 2층 약 80평
- 방 5개(주방,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 교통 편리
- 가액 : 보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4805-595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 시내버스 승강장, 장소 최적, 3층건물중 2층
- 삼존불, 소불 108, 주방, 욕실, 방1, 창고, 에어컨 1, 냉장고 1, 즉시법회 가능, 주차 1
- 가액: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7583-1235

합천 무학동굴 앞 대지 및 전원주택 매각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2번지
- 대지417평(1,379㎡), 건물(전원주택)44평(147.36㎡)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8번지
- 임야 211평(699㎡)
- 특징 : 합천무학동굴은 조선시대 왕사인 무학대사가 어린시절 수련하였던 동굴이며, 동굴에는 무학대사가 술가락으로 팠다는 샘이 있다(경남문재재연구원의 합천무학대사 유허지 발굴 보고서 및 합천향토문화지 등에 기록)고 강숙자 보살이 무학동굴앞 부지를 매입하여 1999년부터 무학동굴을 관리하고 있었다.(건물은 2008년도 신축함)
- 가액 : 4억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 토지 : 대지 200평, 답 760평
- 건물: 45평 (후불탱화, 지장보살 봉안)
- 방향: 남향
- 야산에 위치한 아담하고 조용한절
- 전기, 전화, 인터넷 가능

010-2831-8573
(주인직접)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586
- 부지 : 종교용지 200평
- 요사 : 대 130평
- 농지 : 100평
- 법당 목조 25평, 요사 50평, 심야전기
- 가액 : 3억 5천만원

033-762-2494
010-5780-1415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시설비 금액은 1,600만원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010-9902-39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여주시 대신면 송촌 2길 157-47
- 교통 : 중부내륙고속 -북여주IC에서 8㎞, 제2영동고속-대신IC에서 2㎞
- 부지 300평, 건물 120평(방사4), 법당 40평, 요사 60평 외 20평 계 : 400평(토지)
- 가액 : 3억 5천 (절충가능)

010-2393-9613

사찰,암자,선방부지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 평수 : 약 2,300평 양도가 평당
- 지목 : 계획관리지역 + 보존임야
- 특징 : 조용하고, 전망과 조망이 좋고 투자성으로 매우 좋습니다. 주인직접

010-2215-3657

사찰 및 요양원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최고의 명당터
[사찰] ●1층 30평 천불상 관음궁전
●2층 25평 삼존불 및 지장보살 소불 130불 요사채 45평(황토방1, 큰방3
[요양원] ●1층 90평, 2층 90평 입소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
- 가액 : 17억 5천
- 월수입 약 4천만원(원장 건강상 급 양도)

010-9567-0813

청평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개, 욕실2개, 거실, 주방 (큰방 1개,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
- 난방 : 석유 보일러
- 실내에 패치카 있음(화목보일러 사용가)
- 가액 : 2억 4천만원

010-9411-5302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 건물, 목조한옥, 원룸형 10.5평
- 부지 82평, 전 221평 (추가필지)
- 2차선 도로에서 200M
- 계곡물이 흐르고 도로 끝 지점
- 가액 : 9천만원

010-8562-448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양산 통도사 부근
- 법당 10평(삼존불, 신중, 영단)
- 요사 약 23평, 방3, 거실, 주방 주차장 크게 사용할 수 있음
- 비구니, 보살, 스님, 법사, 철학원 적합
- 공찰 소임관계 급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300만, 월25만 시설비 2,800만(절충가능)

010-5298-7357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공양간 외 부속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급 2억 8천 (스님건강상 문제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 생극면 생리 사찰
- 대지 513평
- 계획관리 위치좋음
- 가액 : 2억 1천만원

010-6341-3477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 무성산 칠부능선
- 365일 1급수 물 사시사철 흐르고, 약수물 옹달샘 있음
- 가옥 40평, 25평(2채)
- 평수 : 8,500평(5,000평은 과수원)
- 뭐라해야 스님께서 오시려나... 정말 좋은데...
- 가액 : 8억 5천 (주인직접)

010-4130-0606

도심 암자 안내

- 위치 : 부산 부암동
- 현재 운영중
- 법당 평수 20평, 공양간, 요사채 마당, 스님 열반으로 양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보 1,6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무

010-2575-228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 평수: 3층 건물중 2층,46평
- 법당 : 완전구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 절충가능
- 불사관계로 급양도함

010-5451-605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마당 잔디. 조경 전망 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 7천 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8억 6천만원)
- 불사 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길 26 부근
- 평수 30평에 방3개 단독주택
- 시설 : 삼존불, 신중후불, 탱화 등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150만원 3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9252-0766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덕로 86번길 (내덕동)
- 대지 64평, 건평 40평 법당 15평
- 방2개, 주방겸 거실(태양열 전기)
- 주차장 완비, 조용한 주거지 위치 새로단장(네이버 지도 사진과 다름)

010-5874-335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한옥 2동(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262-100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오태동
- 3층 건물중 3층
- 약사여래불, 소불 60불
- 주차편리한 대로변
- 포교에 적지이고 완벽한 시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9203-336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안양시 만안구청 근처, 명학역 도보 10분(명학시장 2층)
- 평수 : 약 42평
- 시설 : 삼존불 외 완비(주방 침실 욕실)
- 가액 : 보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없음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0-5495-4678
031-441-467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 650평(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 : 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 포함) 옥외 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내
- 4층 건물중 2층 40평
- 삼존불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

010-8758-131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지리1길 31-3호
- 별장같은 아담한 45평 단독주택
- 특수담장 대문에 비디오폰 설치
- 화단에 과일나무 정원같은 도량 비구니 스님이면 너무좋은 도량
- 가옥 및 법당시설 모두 7천 8백 임대시: 보 1천 월 40만원 시설비 5백

010-8934-8259 (건물주)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45평, 건평 92평,
- 4층 건물 1층 33평(법당), 2층 24평, 3층 20평 4층 15평
- 건물 : 철근 콘트리트구조 산밑 아담하고 조용한 곳

010-5931-1071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대지 69평
- 1층 27평(방3칸, 공양실, 요사) 2층 25평, 법당, 스님 친견실
- 삼존불, 각단 탱화, 법당시설 완벽
- 종무소 3평, 도시가스, 주차가능
- 가액 : 4억 5천

010-7311-533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자갈치 시장 입구 명당자리 위치(유동인구 많음)
- 평수 : 약 80평 정도
- 시설 완벽 (금탱화 : 달집, 기타)
- 가액 : 1억 3천 (보증금, 시설비 포함)
- 건강상 급히 양도함

010-4876-5353

도심 속의 아담한 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121-11번지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7500만원 대출 + 1억 1천 5백만원
합 가액 : 1억 8천 5백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토마스 비엔 · 비버리 비엔(명상 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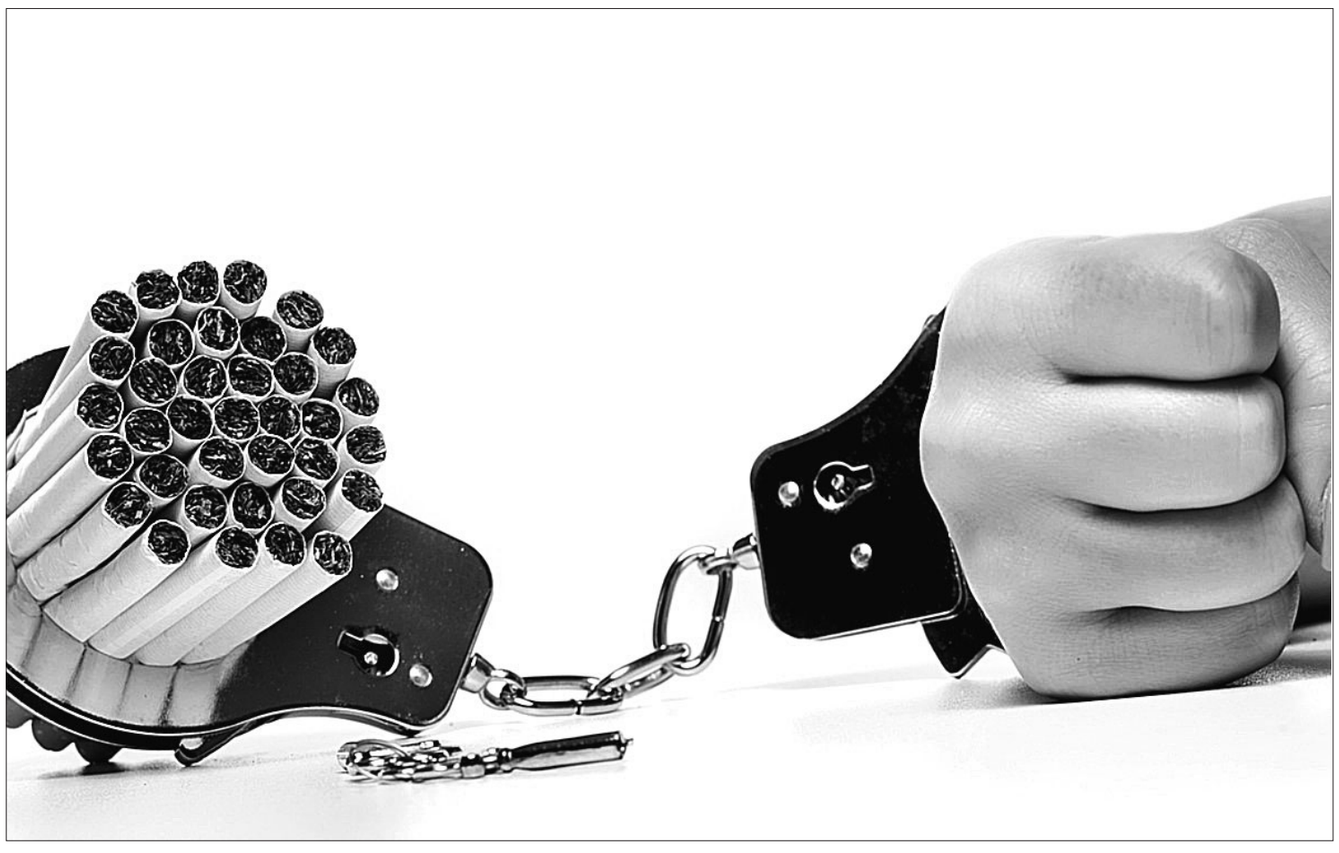
〈1〉 마음챙김을 통한 중독 회복

영성훈련, 중독서 벗어나는 '열쇠'

1인당 알콜 소비량 OECD 회원국 중 7위, 올해 담배 판매량 약 39억7000만 갑(기획재정부, 2016), 국민 10명 중 7명이 모바일 게임으로 하루 82분 소비(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각종 중독으로 휘청대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위태롭다.

현대 사회서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거듭해 치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중 토마스 비엔과 비버리 비엔은 '억제적 관점'이 아닌 '명상적 관점'서 치료를 접근하는 마음챙김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책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서 불교적 깨달음과 영성을 활용해 중독 회복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있다. 핵심은 부정적 감정을 잠재우고 내면의 목소리와 소통하는 '명상'에 있다. 중독서 벗어나는데 효과적 방법을 발견하지 못한 독자들이 있다면 저자가 제시하는 마음 치유 과정을 따라가보자.

정리=이승희 수습기자



고통이 중독을 부른다

우리 두 저자가 중독 전문가로서 영성과 영적 수련에 대해 가졌던 평생의 관심을 엮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중독 행동은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혹은 변화하지 못하는지) 배울 수 있는 적절한 연구 영역이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파괴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러한 통찰을 항상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인간의 기본적 딜레마에 대해 알 수 있는 연구 영역이기도 하다.

중독이란 그 본질상, 깨어 있는 상태로 삶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삶을 '회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삶을 회피하고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하면 문제의 발생 빈도와 심각성은 점점 악화될 뿐이다. 이에 '영성'과 '삶의 의미'가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열쇠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회피의 대척점에 있는 마음챙김에 기초한 영성 훈련이야말로,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삶에 대한 영적인 접근법'을 제안하고 싶었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은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변화의 과정을 시작한 중독자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영적인 바탕이나 토대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자 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사용하는 '영적'이라는 말에는 우리의 삶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더욱 소중하다는 자각이 깃들어 있다. 이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므로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와 철학의 정의로 볼 때, 불교는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다.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길(path of liberation)일 뿐이다. 붓다(깨어 있는 자)가 된 고타마 싯다르타는 철학적, 형이상학적 사변(思辨)에는 관심이 없었다. 불교는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어떻게 하면 고통을 끝내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한다.

처음 붓다는 침묵을 지키는 현자로 살아가는 데 만족했다고 한다. 그러나 머지않아 아직 깨닫지 못한 존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가르침을 펴고 난 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그때까지 펼친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했다. "나의 가르침은 오직 고통과 고통의 종식에 관한 것이다."

고통과 고통의 종식,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교화시킨 교사로서 붓다가 지녔던 유일한 관심사였다.

지금보다 더 좋은 순간은 없다

자신이 바라는 삶의 길에 서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괴로움과 공허함이 생겨난다. 이럴 때 당신은 무엇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감당하는가? 우리는 삶에 존재하는 공허함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가,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공허함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 하는가? 어떤 사람은 지나친 소비와 끝도 없는 개인적 야망, 텔레비전과 일, 컴퓨터와 비디오게임, 술과 약물로 공허함을 메우려고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중독 치유의 접근법은 마음챙김(mindfulness)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대한 자각(알아차림)과 수용(받아들임)을 특징으로 하는 열린 마음을 말한다.

중독은 나에게 아픔을 주는 대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려는 욕구에서 생긴다. 하지만 아픔을 차단하면 현재 순간에 대한 단순한 경험으로부터도 단절되고 만다.

작은 것에 대한 자각은 매우 중요하다. 틱낫한 스님은 설거지를 할 때는 오직 설거지만 하라고 가르친다. 혹시 다른 무엇을 하기 위해 설거지를 그저 '해치우고' 있다면 설거지를 즐기지 못할 뿐 아니라 설거지 이후의 활동도 즐길 수 없다. 예컨대 설거지가 끝난 뒤 먹게 될 디저트를 목표로 설거지를 해치우고 있다면 당신은 디저트 역시 맛있게 즐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 상태로는 실제 디저트를 먹더라도 마음은 다시 디저트 '다음의 것'에 온통 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삶의 실재하는 순간들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순간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애쓴다. 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기 위한 계획만 세우는 일이다.

마음챙김은 우리에게 더 큰 목적을 제공한다. 여기서 더 큰 목적을 갖는다 함은, 더 넓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된 시야를 통해 우리는 더 큰 회복력을 갖추며 현재 순간을 더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과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건강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식습관과 음주습관을 기꺼이 변화시킨다. 또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린은 자신의 경험을 관찰하고 기록하겠다는 보다 큰 목적을 가짐으로써 끔찍한 나치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 그는 니체의 말을 즐겨 인용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삶의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 삶 회피하는 한 방법 '중독'
> 마음챙김 기초한 영적훈련으로
> 직접 마주해 탈피 가능
> 새 관심 둘 '무언가' 필요

중독을 치유하는 10가지 마음가짐

더 큰 목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목적, 고상한 목적일 필요는 없다. 중독자는 중독 물질을 끊는 동시에 자신이 새롭게 관심을 가질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 우리는 독자 여러분이 중독 치유의 길에 확실하게 발을 들여놓도록 마음챙김으로 들어가는 '열 개의 문'을 제시한다.

1. 현재로 돌아오라. 마음이 과거에 관한 기억, 미래에 대한 걱정에 끌려다닐 때 중독 행위가 재발하기 쉽다.

2. 나의 삶을 아직 진행 중인 미완결의 이야기로 보라. 고정된 삶의 각본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다. 누구라도 자기 삶의 각본을 '새로' 쓸 수 있다.

3. 일기 쓰기를 통하여 나의 삶 이야기를 깊이 자각하고 영적 깨어남에 마음을 열라. 규칙적으로 일기를 쓰면 내면의 지혜와 연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4. 명상 수련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받아들여라. 삶의 긍정적인 면을 자각함으로써 탄탄한 영적 토대를 놓을 수 있다.

5. 자연과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지적 · 예술적 · 영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수동적 쾌락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6. 중독 극복에 도움 되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라.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패턴을 자각하고 그 패턴에 변화가 생기면 중독에 빠질 필요성은 줄어든다.

7. 꿈을 탐구하여 자신에 관한 한정된 관점을 넘어서라. 꿈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불균형한 상태인지 알려주는 단서다.

8. 직장에서 마음챙김을 수련하라. 직장에서 평온함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9. 힘겨운 감정이라 해도 성공적인 중독 회복을 위해 품어 안는 법을 배우라.

10. 수련, 수련, 또 수련하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변화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

토마스 비엔 · 비버리 비엔은

토마스 비엔은 심리학자이자 마음챙김 지도자이다. 럿거스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 프린스턴 신학대서 신학석사, 뉴멕시코 대학서 임상심리학 박사를 취득했다. 평생토록 동양의 영성과 명상에 관심을 갖고 공부했으며, 특히 중독 행동 분야서 광범위한 임상 실습과 연구를 통해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비버리 비엔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인생의 행복(La Vida Felicidad)' 실행이사로서, 남편인 토마스 비엔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 글은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청 네거리 대도로 인접
- 3층, 법당,방2, 주방, 욕실
- 가액: 인수가 1천만원 ,월 50만원 (보증금 300만원 포함)
- 종교법인 인수 하실분, 별도상담 요망 바람

0505-242-2404

사찰(급) 안내
- 위치 : 창원 도심 사찰 의창구
- 교통, 경치, 생활방편 양호, 슬라브지붕, 토기와 올렸음
- 6층 전체사용, 상가빌라 2채
- 도시가스, 수도(직수), 지하주차장,전유면적 많음
- 건평 : 종교시설 601호 33.56평 법당,단청, 요사채 26평, 주택 • 가액 : 2억 3천

010-4548-766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23-0777

탈종공고

- 사찰명 : 금강사
- 주 소 : 서울 중구 퇴계로 34(남창동)
- 법 명 : 석천(조자룡)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장 법하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 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해 드립니다.) 동영상 CD(외장하드)를 함께 드리며 화상강의도 가능합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 著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영남 범음범패(통범소리) 제주도 교육원

- 실전위주 단기교육 특강 -

1 불교의식 각종 사물 단기교육
2 범음범패 실전위주 단기교육
3 각종(불공) 1인 진행법 단기교육
(전체교육 3개월)

현 시대에 맞는 실전위주의 톡톡튀는 불교의식 교육을 강의합니다.
제주도에서 홀로 포교당 운영 및 수행하시는 주지스님, 법사님 환영합니다.

- 인터넷 유투브. 다음 (월오스님을 클릭 하세요!)
- 영남 천수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극락무, 승무, 연화무, 지전무 등 배우실 스님, 법사님, 보살님 개인특강
- 범음범패 문의 : 010-3189-0602 월오 합장
- 불교무용 문의 : 010-3844-9565 하늘소리예술단장 (서련)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 서길 92

염불공덕 성취도량 문수암

전화 064-799-1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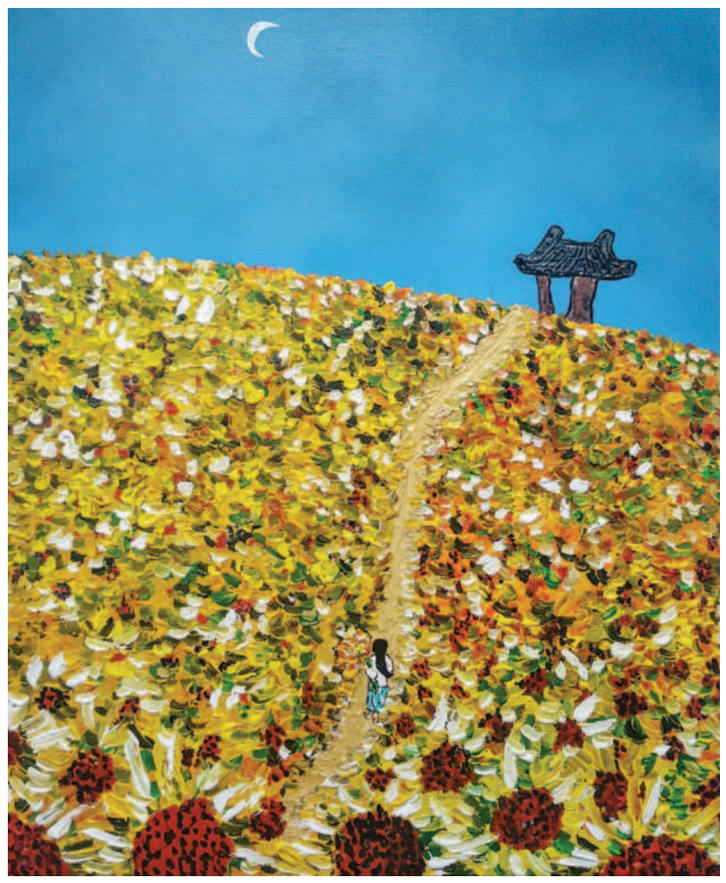
배종훈의 명상카툰

해바라기 속 우리네 삶

해바라기 들판과 소박한 마을, 그리고 낮에 뜬 달은 우리 삶의 모습이다. 즉 해바라기는 결국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해바라기가 그렇듯 우리도 모두 모여 함께, 때론 각자 살고 있다. 나름의 행복을 찾으면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고 사는 것처럼 말이다.

멀리서보면 아름다운 이 들판도 가까이 다가가면 슬픔도 있고, 아픔도 절망도 있다. 하지만 그 어둠 안에 또 행복도, 웃음도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니까.

눈부신 낮, 파란하늘에 조각달이 있다. 이 달은 변치 않는 진리이다. 달은 사실은 원형이고 그 자리에 있다. 낮엔 잊혀지고, 모양은 매일 바뀌는 것 같지만 외로워지고 아프고 그리운 이에게 난 언제나 이곳에서 널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부처처럼 말이다.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술 중독 벗어나기

"술에 취한 아빠가 미워요"

"평소 아빠는 다정다감하고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렇게 권위적이지도 않아요. 웃기도 잘 웃는 편이고요. 그런데 술을 너무 자주 드세요. 술에 취한 날은 어김없이 폭력을 휘둘러요. 집에 들어오면 물건을 부수고 던지고 엄마를 때리기까지 해요.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심한 건 언어폭력이에요. 엄마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저한테까지 심한 욕을 해요. 왜 우리 아빠는 술을 드실까요? 우리 집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그럴 때면 집을 뛰쳐나가고 싶고, 어떤 때는 차라리 아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단 생각도 해요. 아빠가 술을 못 드시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젊었을 때 술만 마시면 절제를 못하고 인사불성이 됐어요.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하루걸러 직장에 결근했고, 손도 수시로 떨리고, 새벽이면 악몽에 시달리곤 했죠.

제가 술을 끊은 날은 1993년 6월 17일이에요. 생각 이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랐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의 역사는 술의 역사만큼이나 깊어요. 분명한 건 부처님 시대에도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단 사실이에요. 부처님이 설하신 오계 중 '술을 마시지 말라'가 포함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부처님께선 또 술에는 열 가지 잘못이 따른다고 했어요.

첫째, 얼굴빛이 나빠진다. 둘째, 비열해진다. 셋째, 눈이 어두워진다. 넷째, 성내게 된다. 다섯째, 일과 살림살이를 파괴한다. 여섯째, 병이 생긴다. 일곱째, 다툼이 많아진다. 여덟째, 나쁜 소문이 퍼진다. 아홉째, 지혜가 줄어든다. 열째, 죽은 뒤에 악도에 떨어진다.

부처님은 오래 전 이미 술의 병폐를 알고 우리에게 술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병을 부정한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 병이란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도 해요. 거기서 그치면 다행이에요. 술을 끊으라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너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핑계로 더 자주 술을 마셔요. 그럴수록 가정은 점점 더 파괴되고, 가족들의 마음도 병들어 가죠.

알코올 중독자에겐 '냉정한 사랑'이 필요해요. 더 이상 그런 아버지로 인해 화내거나 고통 받지 말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한 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초연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든 말든, 아버지가 술로 인해 고통을 받든 말든, 술 취한 아버지가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든 말든, 아버지와 가족을 분리한 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고 어머니와 학생은 어머니와 학생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정머리 없고 잔인해 보이지만, 그게 아버지와 가족 모두를 살리는 길이에요. 술로 인해 일어난 '위기 상황'과 결과를 직접 깨닫게 함으로써 아버지가 스스로 술 끊을 결심을 하도록 도와야 해요.

부처님 당시 때도 술 중독자 있어
이미 병폐 알고 '술 조심' 당부
중독자를 보채고 채근하지 말고
'냉정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 "가족 모두 함께 노력해야 완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해요.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아버지에게 "만약 당신이 술을 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나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당신을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라고 선언해야 해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 있을 때 "아빠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아빠의 폭력과 폭언을 견딜 수 없어요. 아빠가 계속 술을 마신다면 엄마와 함께 아빠 곁을 떠날 거예요. 그것이 아빠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해보세요.

그 후 가족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 있다면 당연히 그들도 포함돼요. 알코올 중독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그 알코올 중독자로 인해 온 가족이 감정적, 신체적으로 큰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초연하게 가꿔나가는 일이에요. 또 알코올 중독이란 병이 무엇인지 배워야 해요.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란 말도 있듯, 알코올 중독에 대해 알아야 자신을 지키고 아버지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족 모임에 나가는 것이 좋아요. 거기 나가면 알코올 중독자를 가족으로 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격려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학생은 '알라틴(Alateen)'에, 엄마는 '알아넌(Al-Anon)'에 가면 돼요. '에이에이(A.A.)'가 술을 끊기 위해 모인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면, '알라틴'은 가족이나 친구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의 모임이에요. '알라넌'은 누군가의 음주로 인해 삶에 영향을 받거나 고통을 겪는 가족, 친구, 친척을 위한 모임이고요.

학생들의 알코올 중독 치료는 매우 중요해요. 알코올 중독자를 부모로 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쉬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 아버지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술만 마시면 어머니와 싸우고, 어쩔 땐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고 자랐는데, 어른이 돼 어느 날 보니 저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술만 마시면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주정뱅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어머니와 함께 마음의 분노와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야 해요.

학생과 엄마의 태도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 지금 당장이라도 '알아넌'에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도움을 받으세요. 그곳에 혼자 가기 두려우면 저에게 찾아와도 돼요. 그러면 제가 안내해줄 수 있어요. 그 길만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학생과 어머니가 회복하는 길이에요.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116호 현대불교
2016년 10월 5일 (9월 5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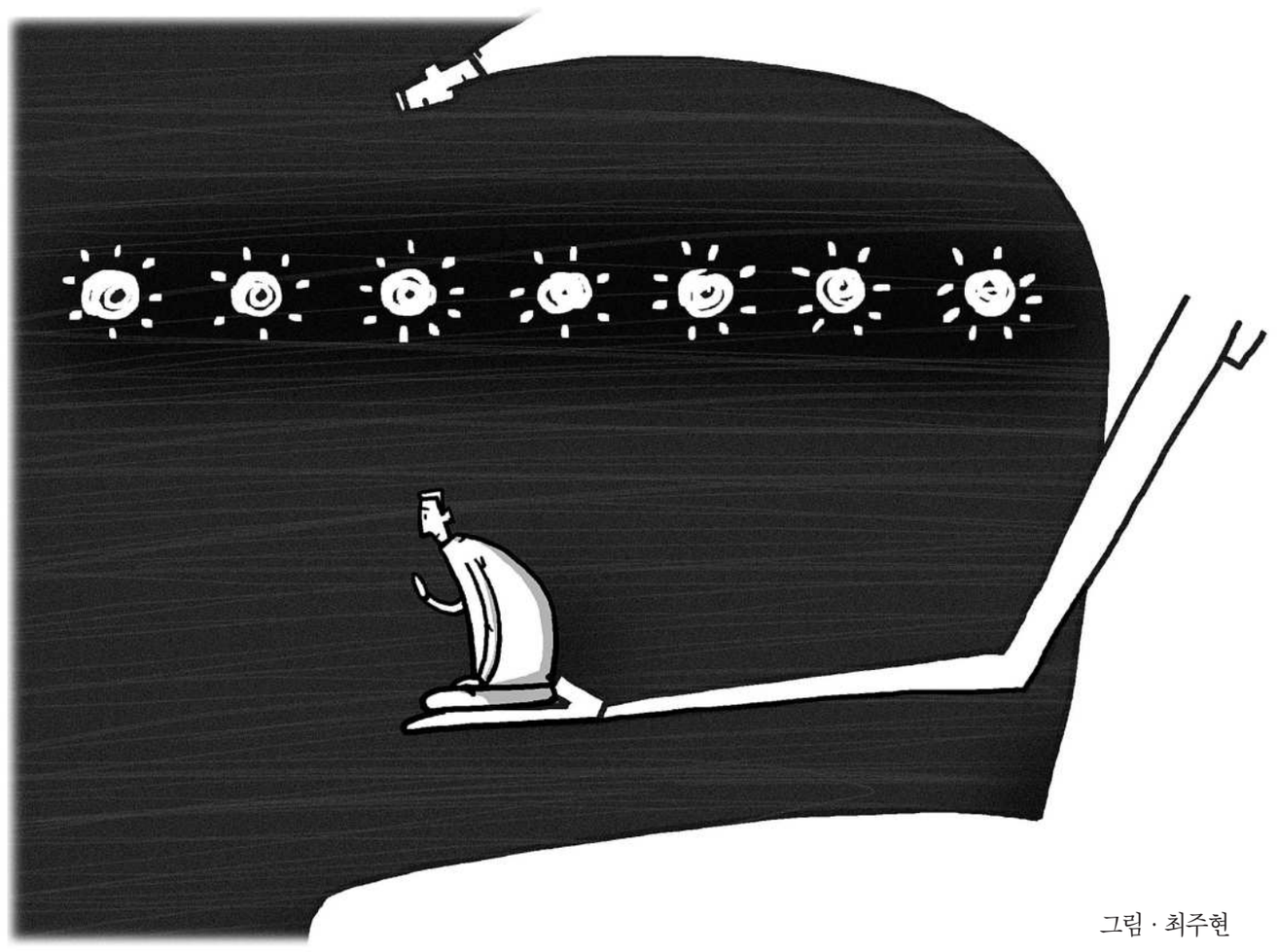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벌써 날씨는 가을 날씨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 쳇바퀴 돌 듯 찰나찰나 변해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정신계는 무시하고 물질계만 집착하여 물질 50%만 넣고 굴리려니까 맞지 않습니다.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맞먹어서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100%가 되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깥에서 끄달리고, 바깥으로 이름을 찾고, 바깥으로 형상을 찾고, 바깥으로 허공을 보고, 모든 것을 허무하다고 하고 이렇게 나가시니까 50%는 감추어져서 100%가 같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치가 됩니다. 그러니 뭐가 하나라도 걸리지 않고 순수하게 돌아가겠습니까? 모두가 걸리고 액난이 거듭거듭 닥쳐오고 내 몸도 이끌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거죠. 모두 회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셨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살아나가다가 어떠한 고난이 생길 때 여러분이 여기를 찾아오시는 얘기를 합시다.

부처님 말씀과 다른가 안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은 어떠한 액난이나 어떠한 고난을 안고 옵니다. 그 안고 오는 고난, 액난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 한마음 속에서 악이 술술 풀려나오고, 액이 술술 풀려나오고, 병고가 술술 풀려나오고 모두 과거에 살던 인연에 따라서 업이 지어진 관계로 그렇게 풀려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거기다가 되맡겨 놔야만 되입력이 돼서 앞의 것이 무너지고 새로이 입력된 게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나는 생각해 본 예도 없고 말한 예도 없고 행한 예도 없다."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치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실 때 뭘 가져왔다면 마음으로 가져오시죠? 내게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졌을 때 광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합쳐서 작용을 할 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의 양면이 합쳐지면 전자와 전자가 없어지고 그 에너지 광만 나오게 돼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양면이 다 없어지고 불만 번쩍 일어나듯이 여러분이 가져온 재료에 성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했다고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중에 어떤 누가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좁게 보면 네가 하고 내가 했다 하겠지만, 넓게 본다면 네가 했다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공(空)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독불장군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애를 낳아도, 아내 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남편 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넓게 보면 모든 문제들이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고,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네 형제 내 형제가 따로 없다는 그런 이치가 돌아가죠. 그럼으로써 '하지 않았다'도 아니고 '했다'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없습니다. 네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그게 없습니다. 네가 했다, 내가 했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체 중생이 다 그 무심(無心)에 와서 닿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무심이기 때문에, 들여놓은 것도 두드러짐이 없고, 그것을 많이 굴려서 내보내도 또 주는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영은 영이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영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왜 묘하냐? 그것은 체가 없어서, 만물을 목신 한 가지로 비유할 때, 목신과 내 마음이 한데 한마음이 된다면 내가 목신이 될 수 있고 목신도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면 탈이 난다고 하는 것도 둘이 아닌 까닭인데 그 마음을 내 마음에다 넣어서 한마음이 된다면 그때는 잘라도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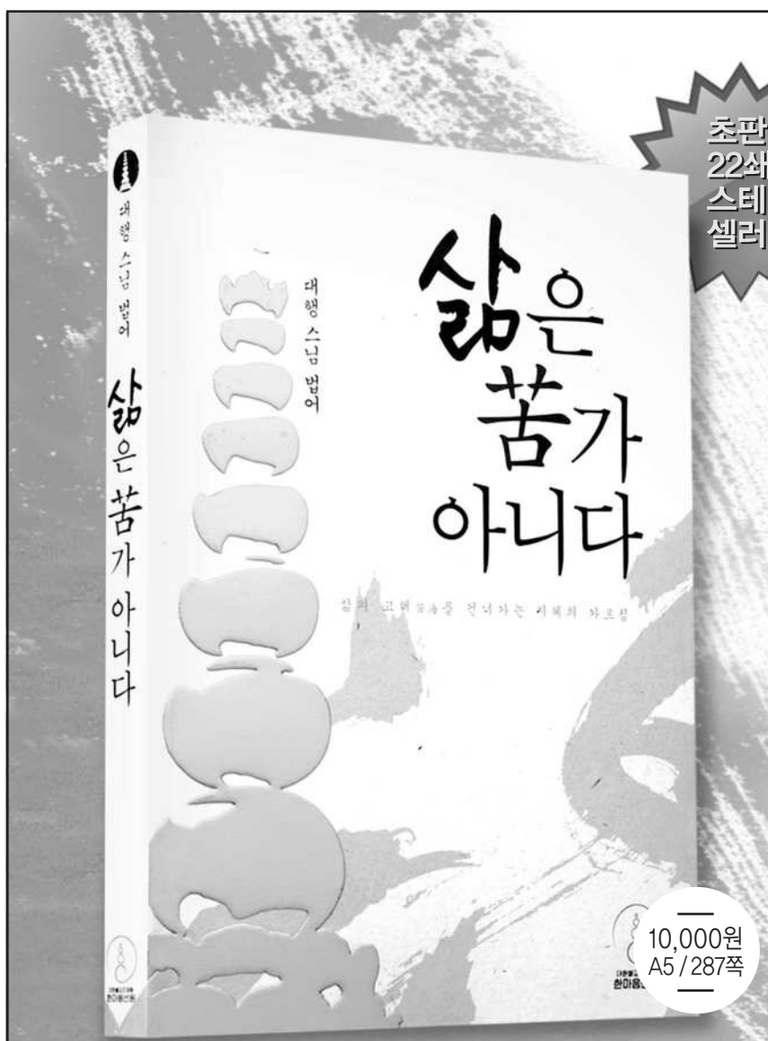
지금 모두 신중단을 만들어 놓고 영가 위패를 붙여 놓고 하는데 그것을 모두 없애도,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들기 때문에 위패는 치워도 된다 이겁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묘하고, 뜻이 깊고 광대무변한지 여러분은 들은 얘기 또 듣고, 들은 얘기 또 듣고 그래야만이 어느 순간 귀가 번쩍 뜨이죠. 어언간 수만 번을 들어도 흘러져 가다가 어느 순간 한번 딱 감응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듣는다고 다 감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잘 침착하게 들으시고, 침착하게 행동하시고, 침착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생전에 마음으로 항상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만 굴려서 생각하고, 이익 하게만 굴려서 생각하고, 이익 하게 굴려서 말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그냥 해 버리는 말,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이지만 그게 아주 적중해서 현실로 나오는 무서운 도립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일해서 돌아갈 때, 바로 두 전자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다 하는 거는 하나로 몰입하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력만, 즉 에너지 광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니 하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유전성으로 오는 사람, 영계성으로 오는 사람, 세균성으로 오는 사람, 업보성으로 오는 사람, 윤회성으로 오는 사람 등 갖가지로 많습니다. 이런 거를 병원에서 100%를 다 해결한다고는 못 봅니다. 과거로부터 온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신계의 발전을 아니 한다면 그걸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65%든 60%든 대처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는 내 몸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며 내 가정도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넓게 생각하세요. 좁게 개별적인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포괄적인 하나로 생각을 하세요. 한 가정이라면 한 방통 안이라고 봅니다.

내가 항상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방편으로. 전구는 많지만 전력은 똑같다 이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 내 뒤를 따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고 "왜 나는 나가는데 안 나가느냐?" 하고 온통 야단들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니까 내 주인공에다가 '한마음 주인공!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 식구를 다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몸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성사가 되는 것도 거기요 성사가 안 되는 것도 거기니 성사가 되게 하는 것은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맡기고 놓았을 때 가정이 점점 마음이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전등은 다 각각이지만 전력이 같으니까. 그렇게 밝아질 것을 나가서 안 들어오느니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느니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아등바등하면서 온통 애를 태우니 병은 병대로 나고, 가정은 가정대로 파괴가 되고, 화목지 못하고, 부드러운 말 나오지 못하고, 부드러운 행 나오지 못하고 이거는 모두가 악화가 되는 거죠. 너그럽게 생각을 하십시오, 너그럽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배낭을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벌써 현실로 수억 개나 되는 악업 선업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어딨습니까? 미래는 또 아직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요. 그럼 그 배낭 속에, 이 몸을 배낭이라고 해도 됩니다. 배낭 속에 그렇게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면서, 인과를 짓고 업을 지은 이 악업 선업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모두 나오는

☞ 26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주인공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 25면에서 계속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맡겨 놓으신다면, 바로 앞서의 것은 무너져 없어지고 현실에 좋게 생각해서 새로 맡기는 것만이 풀려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숙명통(宿命通)이라고 하죠. 비유한다면 지금 컴퓨터와 같은 거죠. 과거를 짊어지고 나오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인데.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죠. 여러분이 없으면 상대가 있을 리가 있나요? 무효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고 모든 게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상대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화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화두예요. 화두를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요. 그대로 내가, 내 주인공이 화두니까.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일을 하나 똥을 누나 모든 것이 참선 아닌 게 없어요. 좌선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 이런 것을 모두 한데 합해서 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앉았을 때는 앉아서 생각하고 설 때는 서서 생각하고, 일할 때는 일하면서 생각하고 그대로 하십시오. 내가 없으면은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닥치는 모든 일이 여러분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딴 데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 배낭 속에다 다시 맡겨 놔야만이 과거에 입력됐던 것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나오는 그 액난을 어떻게 소화하고 나갈 겁니까? 거기서 나오는 줄 모르고, 거기서 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겹게 만들고, 딴 사람을 통해서 망하게 만들고, 딴 사람을 통해서 죽도록 매를 맞게 하고, 딴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게 하고 이 별의별 우환이 다 드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 액난이 다 나오는 거니까, 액난을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그 자리밖에 없다.' 하고 놓는 것이지 '나를 잘되게 해주시오.' 하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믿고 그냥 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主人空)! 한마음 주인공! 나를 이렇게 해 주시오.' 이게 아닙니다. '해 주시오'가 어딨습니까? 둘이 아닌데. 유심(有心)과 무심(無心)이 어떻게 둘이 됩니까?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둘이 됩니까? 그러니까 '해 주시오'가 아니라 '틀림없이 거기서 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놓는 겁니다.

이심전심으로써 수없이 통하고 돌아가는데 내 마음이 저쪽 마음으로 가서 해결을 하는 것도,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바로 보살로 화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없이는 내 속에 있는 이 업보성을 전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부 보살로 만들 수 없습니다. 보살로 만들지 못하면 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무심(無心)의 중용. 보이는 데나 보이지 않는 데나 100%를 작용하면서 굴리는 것이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쯤 해 두고 여러분이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男) 저희들은 윤회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윤회한다는 그것을 유전자를 통해서 후세에게 계속 자기를 복제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개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본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다시 본래 주인공 자리로 되돌아간다고 그러신다면 그 업식으로 뭉쳐서 윤회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앞전에 배낭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배낭 속에서 나온 업식이 모양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큰스님 물론 그 배낭 속에 생명, 의식, 모습 다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의식 자체는 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체가 체가 없듯이 모두가 내 마음이 하는 대로 행을 따라 줍니다. 이 인과의 업식은 잘되고 잘못되고를 자기가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 따라서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윤회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윤회라는 거를 못 느낍니까? 사계절이 돌아오는 것도 윤회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로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이것도 윤회입니다. 또 저런 별성도 이 거죽만 벗습니다. 은하계에서 별성들의 마음이 태양계를 만들었다 합시다. 그럼 만들었으면 이 옷만 벗지 영혼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본 말입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부합되면은 다시 옷을 입고 생산이 됩니다. 인간도 영혼이 그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있다고, 과거의 업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조금도 에누리 없이 자기한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우리가 몸을 받아서 또 나오죠.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있다 해서 어린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거기 한데 합쳐져야, 삼합이 합쳐져야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물이 올라가서 비로 내립니다. 비로 내리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이 생명체들이 다 그걸 먹고 삽니다. 살아나가는 데도 수없이 돌고 도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물이 되고 독의 피가 되고, 약초가 먹으면 바로 약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물을 먹고 땀을 흘리고 죽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물로 돌아가서 도랑물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바다에서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윤회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윤회라는 건 이름이지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만 하고 죽어서 그냥 없어진다면 지속되는, 끝 간 데 없는 진리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질문자1(男) 스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는데 어떻게 윤회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과거….

큰스님 그럼 말입니다, 댁이 이름을 몇 개를 가졌죠? 몇 개를 가졌습니까, 이름?

질문자1(男) 그냥 저죠.

큰스님 형님이라는 이름도 가졌죠? 동생이라는 이름도 가졌겠죠?

질문자1(男) 예, 물론입니다.

큰스님 자식이라는 이름도 가졌겠죠. 사위라는 이름도 가졌고요, 남편이라는 이름도 가졌고요, 아버지라는 이름도 가졌고요. 그런데 순간순간 남편이 될 때는 자동적으로 남편의 말을 하고 남편의 행동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또 "아버지!" 하고 오면은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또 "얘, 아무개야!" 부르면은 자동적으로 아들의 노릇을 하고 아들 말을 하고 아들의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질문자1(男) 제가 지금 살아 있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 또는 생각하고 제 본래 주인공 마음에다가 입력하고 다시 내놓고 그러는 것은 지금 제가 살아 있기 때문인데 그게 과거에서 이어져 오고 미래에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나하고 같이 살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많이 끼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연대로 뭉쳐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참으로 제 소견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큰스님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면은 얽매이고 알면은 벗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진리 속에서, 말하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요.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자꾸자꾸 바뀌어서 돌아가는데,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뭐가 그렇게 의정이 납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정신계의 무심도(無心道)를 이렇게 생활로써 엮어 나가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신이 빠졌으면 무효야! 하하하. 그런데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어요.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 여러분의 법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 아, 윤회라고 말할 건덕지가 뭐 있나? 고정됨이 없이 공(空)해서 그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관하지 않는다. 끊어졌다 하는 생각은
자기의 관념적인 생각이지 포괄적인 생각은 아니야.
그러니까 쉬라 이 소리야, 그냥.

질문자2(男) 큰스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특히 강조하시는 부분은 '모든 것은 주인공이 하니까 그 주인공에다가 몰락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관찰해 보면 '예전부터 믿어 왔던 나'가 아니라 참나 또는 주인공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느낄 순 없지마는 주인공을 찾을 때 큰스님께서는 관(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주인공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른 관을 할 수 있는지 그 관하는 관법(觀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허허허. 여태 얘기했는데도 묻는다면 어떡해? 관법은 누우나 앉으나, 내가 좀 앉아서 참구해 보겠다 하고 앉았으면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그게 관법입니다. 당신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지 바깥에서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공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뛰어넘고 뛰어넘고 하는 교차로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교차로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죽을 거고, 내쉬고 들이쉴 수 있다면 살 겁니다. 그 양면이 교차하는 그런 틈에서 그냥 그대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바로 그놈이 있으니까, 그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그놈밖에 없잖아? 그리고 모든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들이고 내는 게 아닌가. 자기가 없다면 들이고 낼 건덕지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은 이 공부는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이 배낭이라는, 종이라는, 집이라는 육신에 50%가 달려 있다 이 소리야. 그래도 이해가 안 가나?

질문자2(男)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스님께서는 배낭에서 나오는 문제를 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관할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전혀 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큰스님 관하지 않으나 관하나 지구는 돌아가고 있어. 허허허.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고, 자기가 관을 안 하든 하든 돌아가고 있어, 그냥. 안 하는 것도 그 자리요 하는 것도 그 자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여여함이야. 안 한다, 끊어졌다 하는 생각은 자기의 관념적인 생각이지 포괄적인 생각은 아니야. 그러니까 쉬라 이 소리야,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얘기를 안 하고 그거를 끊어뜨리고 있다 하는 것도 자기 관념의 생각이지 끊어지긴 뭐가 끊어져, 시공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데.

질문자2(男) 그럼 정말 쉬라는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아, 끊어진 것도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도 거기서야. 이게 이런 게 있어. 24시간이라는 거는 우리의 관념적인 생각이지 24시간이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생각했다 저녁에 생각해도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냥 붙어 버려. 그 공간이 그냥 없어져 버려. 이렇게 묘한 법이야. 이래도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념적인 생각이라 이거야. 하루 종일 내가 끊어뜨렸다 하는 생각은.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10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자비로운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황수경
동국대 강사

얼마 전 20대 청년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성우 지망생이었던 안치범(28)씨는 당시 화재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그렇지만 늦은 시간에 잠들어있는 이웃들을 깨우기 위해 다시 건물로 들어갔다고 한다. 모든 층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불이 났어요! 나오세요!"하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다 정작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해 사망하게 된 것이다. 안 씨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다. 이 소식에 정재계 각처와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고, 정부는 안 씨를 의사자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층간 소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웃과 각종 범죄 소식들에 지쳐있는데, 젊은 청년이 남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든 그 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하다. 그는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단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살리려고 한 것이다. 안 씨가 아직 취업도 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희망을 다시 보게 된다. 3포 시대의 이기적인 신세대라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대학생들을 가르치며 수업시간에 물어보곤 한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언제나 많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거나 때로는 손해를 불사하고 남을 위해 보시하거나 한 일을 말해왔다. 물론 그런 일들은 인터넷이나 매스컴에 나오지 않는다. 취업을 위한 경력이 되지도 않고 돈이 되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사실 안 씨도 본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알려지거나 이슈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비심과 봉사하는 마음만은 보이지 않은 공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반면에 화재의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안 씨와 같은 20대 청년이 불을 낸 것이라고 한다. 헤어지자는 애인의 말에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한다.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까닭이다.

'한 찰나에 부처님의 마음이요, 한 찰나를 몰라서 끊임없는 억겁에 이끌린다' 라는 가르침이 생각난다. 그동안 교도소 봉사를 다니며 가슴깊이 참회하는 수많은 재소자들을 보아왔다. 그 가해청년도 안 씨의 희생을 보고 진심으로 자기잘못을 참회하는 계기가 되기만을 간절히 기원한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공생하는 연기적 존재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닌 공심공체(共心共體)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무아(無我)를 말씀하시며, 혼자서만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셨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분리된 '나' 라는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허상이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 하는 한마음인 것이다' 라고 하셨다. 사실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지만 안씨처럼 소리없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대승보살들이 많을 것이다.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에서는 보살이 보리심에서 물러나는 원인 중 하나가 중생들에게 자비심이 작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냥 안씨의 희생을 잠깐 고마워하고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희생을 무릅쓰지는 못하더라도 일상에서 자신의 중생심을 보살의 마음으로 다스려갈 수는 있다. 매일 하루를 사는 동안 갖가지 경계가 일어난다. 그 순간 마음 속에 삼독심의 불을 일으킬 것인가, 남을 생각하는 자비의 불을 피울 것인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이 달라진다. 오늘 나의 한 생각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불같은 마음에너지가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자비의 힘이 될 수도 있다. 안 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일체 중생이 탐진치의 불을 끄고 내면의 불성을 환하게 밝혔으면 한다.

발언대

김영란법 시행, 불교언론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이 9월 28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불교계 안팎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불교기자협회(협회장 김현태)가 26일 불교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나라의 전승진 변호사가 질의응답을 통해 불교계 언론 상황의 법적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싣고자 한다. 〈편집자주〉

"취재시 금품받으면 징역 2년"



전승진
법무법인 나라 변호사

1. 김영란법 상 언론인, 불교언론인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합니다.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스님이 대표, 발행인, 편집인 등을 수행하고 있다면 언론인에 포함됩니다.

2. 만약 부정청탁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크게 과태료 부과, 징계, 형사처벌로 나뉩니다. 가장 약한 처벌인 과태료부과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1000만원 이하)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2000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해 공직자가 부정청탁(3000만원 이하)을 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본인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징계와 형사처벌이 되게 됩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부정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수행한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 처리자 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의 상급자와 감독권이 있는 대표자 모두가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3. 금품의 수수범위는 어떻께 됩니까.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다면 그 본인과 배우자까지 금품수수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시 뇌물죄가 성립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4. 언론사가 불교계 사찰과 단체 등과 공동기획, 공동주최 등으로 취재를 하는 경우, 현장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 등 언론사 임직원에게 사찰과 단체가 교통비 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저촉이 되는지요.

원칙적으로 금품수수는 금지되나, 광고나 구독 형태는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판단돼 예외사항입니다. 또한 공동기획 시 계약에 의한 업무집행상 경비지급이 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다면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경비지급으로 보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5. 각종 지방과 해외 취재의 경우 주최 측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저촉되는지요.

행사에서 특정언론의 임직원에게만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제재대상입니다.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금품은 예외범위입니다.

6. 언론사를 대상으로 식사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일률적 제공에 의한 것이라면 일명 3 · 5 · 10으로 일컫어 지는 음식 · 선물 ·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기자단이나 기자협회 등 해당분야에서 인정받는 공신력있는 단체를 통해 일률적 혜택이 제공된다면 저촉되지 않습니다.

7. 언론사에서 각종 행사 진행 시 다양한 단체, 기관의 협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앞서 밝혔듯 김영란법은 자연인, 개인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 현재 법인과 단체는 제재범위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단체와 개인의 청탁과 금품수수 행위 등은 단체의 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직까지 도입 초기 단계로 국민권익위에서 법원의 판례보다 더욱 보수적이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社說

WFB 서울 총회가 남긴 과제는?

전세계 불교도들의 대축제인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28차 서울총회' 가 태국과 스리랑카 등 전세계 20여개국 불교지도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막을 내렸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다. 더 멀리 볼 필요도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속한 한반도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분위기가 잔뜩 얼어 붙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그 벽을 뛰어넘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해법을 모색키 위해 마련된 이번 총회는 그 여느때보다도 의미가 컸다. 설립당시 27개 국가의 27개 지역 센터로 시작한 WFB는 66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 55개국의 189개 지역 센터로 성장 발전해 세계 불교계의 여론 형성에 무시못할 큰 규모의 단체다. 명성과 역사를 말해 주듯 3일간의 회의와 포럼 분위기도 사뭇 진지했다. 언어간의 장벽은 있었지만 회원들간의 소통엔 문제가 없었다. 어느 총회나 하이라이트는 대회 기간중 회의와 포럼 내용을 집약한 아젠다가 담긴 공동 선언문 채택이다. 총 6개 의제가 담긴 이번 선언문에도 시선이 집중됐다. 골자는 이렇다. 우리는 평화 · 조화 · 관용의 정신을 유지함으로써 세계 시민의 책임을 알고, 그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와 안정은 지각 있는 존재의 행복을 위한 기초이고 개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 개인적 성장, 공동체 관계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WFB 모토는 하나된 지혜와 동정심이며,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각자 본국으로 돌아가 이 지혜를 자국의 불자들에게 전법하는 것이다. 2년 뒤 2018년 11월 일본 나리타서 열릴 '제 29차 총회' 에 WFB 회원들은 또 어떤 해법을 들고 모일까?

옥천사의 문화재 환수 비결

경남 고성 옥천사는 '문화재 환수' 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옥천사가 단독 혹은 종단과 협력해 환수한 문화재는 올해만 3점이다. 지난 8월에는 1988년 도난됐던 나한상 2점이 옥천사로 돌아왔고, 9월 23일에는 보물 제1693호로 지정된 '옥천사 시왕도' 의 한 폭인 '제2초강대왕도' 를 프랑스에서 환수했다.

이번에 환수된 '제2초강대왕도' 는 조계종이 도난 여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중앙기록관에서 확인하고, 국내외 법률자문을 받는 등 역할을 했지만, 결정적 협의는 모두 옥천사에서 이끌어냈다.

옥천사 성보박물관장 원명 스님과 강소연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9월 12일 추석연휴도 뒤로하고 프랑스로 가서 기메박물관 학예사와 '제2초강대왕도' 소장자를 만났다. 이들은 협의 끝에 15일 소장사에게 유상 기증을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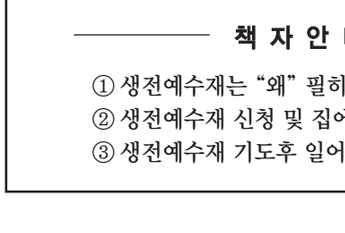
옥천사의 이같은 성과는 모두 '도난성보문화재 환수' 라는 원력에서 나온다. '제2초강대왕도' 환수의 경우 기증사례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성보 환수를 하겠다는 옥천사 주지 진성 스님의 원력에 따라 실무자가 프랑스 현지로 급파돼 성과를 낸 것이다.

나한상 환수도 마찬가지다. 옥천사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는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성보문화재 연구와 도난문화재 환수 등 상호 지원을 이어가기로 약속했고, 기초 연구를 진행해 도난 나한상의 진본 사진을 발굴했다. 이후 도난 나한상 2점이 환수되기까지는 2달여 밖에 안 걸렸다. 결국 옥천사의 문화재 환수 비결은 원력과 공심 그리고 실천에 있다. 이는 종단적으로 권장할 문화재 환수의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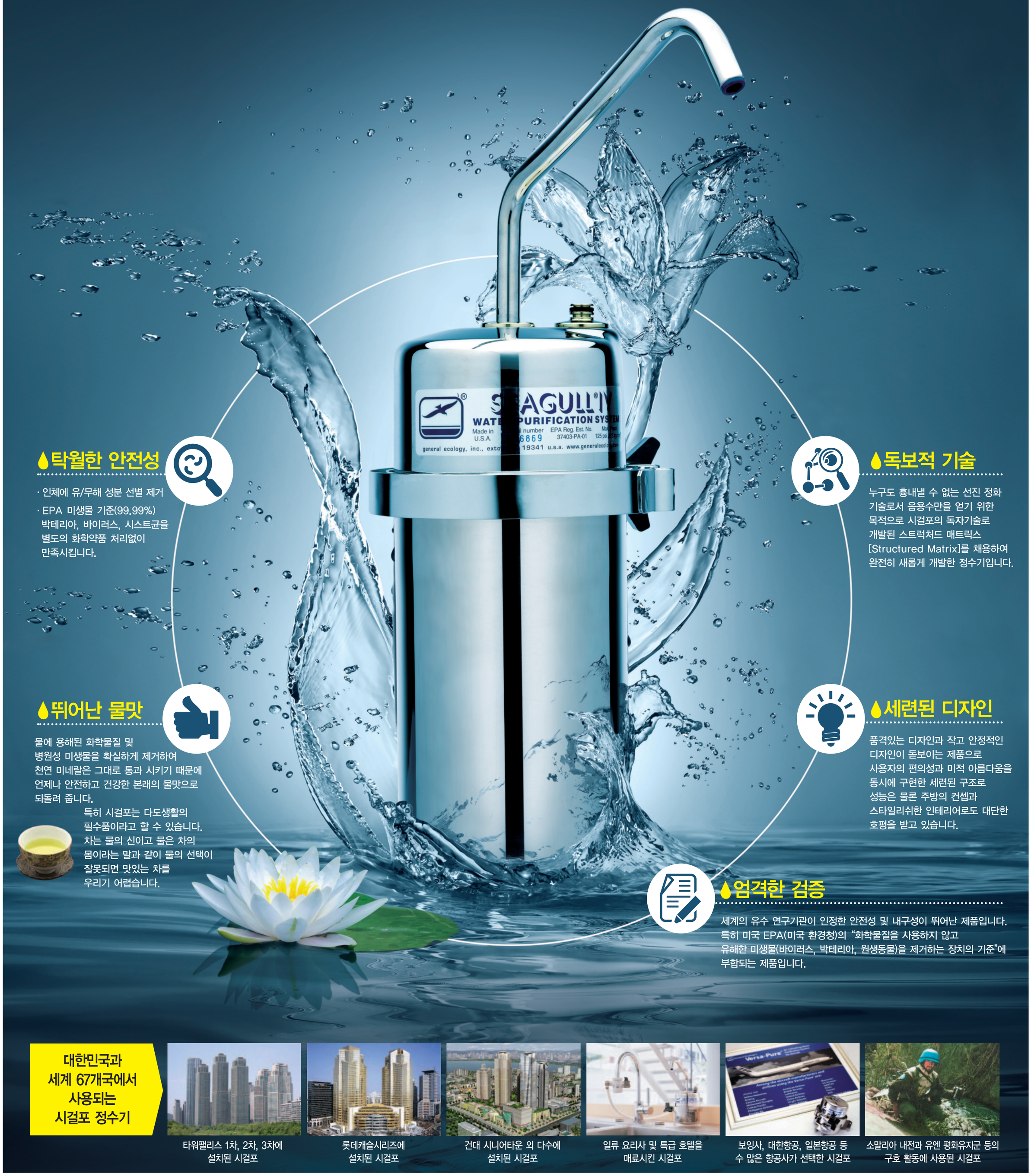
완전한 지혜의 세계,
화제의 신간
密 밀이 세상에 나왔다 !!
최상 깨달음 지혜 과정이
이보다 더 상세할 수는 없다.
5, 6, 7, 8, 9식(識) 전변 깨달음세계와
완전한 깨달음 6종각(六種覺)인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十覺) 성불
과정의 경계와 지혜의 길을 상세히 완전히 밝혔다.
밀법 태장계와 금강계, 옴마니반메훔, 광명진언 등의
실상세계를 자세히 밝혔다.

전국 서점 판매중!
박명숙(德慧林)저
밀1권 500쪽 / 밀2권 584쪽 / 정가 각: 35,000원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사찰의 감로수를 시걸포에서도 느끼세요!

시걸포는 인공적으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아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천연수로서
대자연에서 정화된 암반수와 같은 건강한 감로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탁월한 안전성

- 인체에 유/무해 성분 선별 제거
- EPA 미생물 기준(99.99%) 박테리아, 바이러스, 시스트균을 별도의 화학약품 처리없이 만족시킵니다.

독보적 기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선진 정화 기술로서 음용수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걸포의 독자기술로 개발된 스트럭처드 매트릭스 [Structured Matrix]를 채용하여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정수기입니다.

뛰어난 물맛

물에 용해된 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천연 미네랄은 그대로 통과 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한 본래의 물맛으로 되돌려 줍니다.

특히 시걸포는 다도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는 물의 신이고 물은 차의 몸이라는 말과 같이 물의 선택이 잘못되면 맛있는 차를 우리기 어렵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품격있는 디자인과 작고 안정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구현한 세련된 구조로 성능은 물론 주방의 컨셉과 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로도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엄격한 검증

세계의 유수 연구기관이 인정한 안전성 및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특히 미국 EPA(미국 환경청)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해한 미생물(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을 제거하는 장치의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는 시걸포 정수기

타워팰리스 1차, 2차, 3차에 설치된 시걸포

롯데캐슬시리즈에 설치된 시걸포

건대 시니어타운 외 다수에 설치된 시걸포

일류 요리사 및 특급 호텔을 매료시킨 시걸포

보잉사, 대한항공, 일본항공 등 수 많은 항공사가 선택한 시걸포

소말리아 내전과 유엔 평화유지군 등의 구호 활동에 사용된 시걸포

판매원 현대불교현불샵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제 품 문 의 상담 후 카다록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080-866-1080